

2020 국별 진출전략

독일



I.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3
1. 개요	3
가. 시장 전망	3
나. 주요 경제지표	4
2. 2020년 주요 이슈 및 전망	5
가. 2020년 1월 브렉시트에 따른 유럽 경기 하방리스크 증가	5
나. 트럼프ଙ୍କ 경제위기 가시화	6
다. 2019년 ECB 통화정책 정상화 후 추가 양적완화 조치 시행 예정	7
라. 차세대 자동차 시장 수요에 맞춘 혁신 제품 및 부품 시장 판로 개척 적기	7
마. 독일,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에 따른 대체 수입선으로 부상	8
II. 비즈니스 환경 분석	9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9
가. 정치 환경	9
나. 경제 환경	10
다. 산업 환경	11
라. 정책·규제 환경	15
2. 시장 분석	19
가. 시장 특성	19
나. 교역	20
다. 투자진출	28
3. 한국과의 경제 교류 및 주요 경험 의제	30
가. 교역	30
나. 투자	31
다. 주요 경제협력 의제	33
III. 진출전략	36
1.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36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37
3. 한-독일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45
4. 진출 시 유의사항	50
첨 부	
1. 수출유망품목(상품)	52
2. 수출유망품목(서비스)	56
3. 2020년도 KOTRA 주요 사업(잡정)	59
4. 2020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60
부 록	
對독일 K패키지(양국 간 상생협력방안)	62



I.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1 개요

가. 시장 전망

☞ 우리 기업을 위한 시사점

※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 브렉시트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독일 제조업에 타격을 주면서 독일 경제는 눈에 띄게 둔화되었으나 고용·내수시장 강세로 2019~2020년 소폭이나마 성장 전망, 우리 기업은 경제 회복기에 증가할 자동차·IT·소비재·중간재 수요 증가에 대비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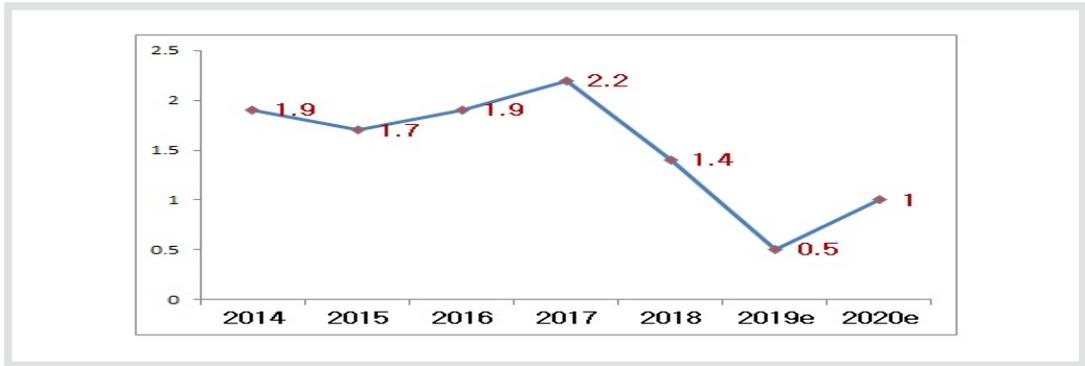
📌 (상승) 글로벌 불확실성 지속으로 2019년 0.5%, 2020년 1.0%의 완만한 경제성장 전망

- 2018년 독일은 글로벌 통상분쟁과 이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수출 신기록 경신, 수입 역시 호조를 보였으나, 성장폭은 둔화
 - * 2018년 수출 1조 3,179억 유로(+3.0%), 수입 1조 900억 유로(+5.7%), 무역흑자 2,278억 유로
 - 특히 국제 통상분쟁에 따른 경기 냉각과 브렉시트 우려를 성장 저해요인으로 지목
- (경기둔화 우려) 독일 정부는 2019년 경제 전망 하향 조정(2018년 가을 1.8% → 2018년 1월 1.0% → 2019년 4월 0.5%) 발표, 2020년 1.0%의 완만한 성장 전망
 - 이는 2020년 1월 예정인 브렉시트와 미국의 대(對)EU산 자동차 관세 부과 위협 등 대외 불확실성과 미래기술 선도역량 부족 등의 대내요인*에 기인
 - 또한 트럼프發 통상분쟁 장기화로 중국 및 유로존 경기둔화가 독일 제조업의 수주 감소로 이어지며 수출경제인 독일에 직·간접적 타격
 - 독일 내 고용 및 내수는 비교적 안정적 성장 전망
 - * 2019년 실업률 5.0% 전망, 민간소비 2019년 1.4%, 2020년 1.2% 증가 전망

독일 GDP 성장률 추이

GDP 성장률(%)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9	1.7	1.9	2.2	1.4	0.5	1.0

* 2019년, 2020년 수치는 전망치



자료 : 독일연방통계청(2019년 10월)

나. 주요 경제지표

주요 지표	단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전망)	2020년 (전망)
인구	백만 명	82.2	82.5	82.8	83.0	83.2	83.4
명목GDP	십억 유로	3,030	3,134	3,245	3,344	3,437	3,537
1인당 명목GDP	유로	37,324	38,370	39,650	40,843	-	-
실질성장률	%	1.7	1.9	2.2	1.4	0.5	1.0
실업률	%	6.4	6.1	5.7	5.2	5.0	-
소비자물가상승률	%	0.3	0.5	1.9	1.6	1.5	1.6
재정수지 (GDP대비)	%	0.6	0.8	1.2	1.8	1	0.8
총수출	백만 달러	1,326,722	1,334,482	1,448,689	1,560,603	1,576,210 (+1.0%)	1,607,730 (+2.0%)
(對韓 수출)	"	19,948	19,200	20,349	21,030	-	-
총수입	백만 달러	1,051,533	1,055,404	1,163,314	1,285,684	1,319,112 (+2.6%)	1,362,642 (+3.3%)
(對韓 수입)	"	7,271	7,074	10,815	10,839	-	-
무역수지	백만 달러	275,189	279,078	285,375	274,919	-	-
환율(연평균)	현지국/US\$	1.1095	1.1069	1.1297	1.1810	1.1004 (9월 평균)	-
해외직접투자	억 달러	990.2	603.4	880.8	632.8	504.4 (1분기)	-
외국인직접투자	억 달러	305.6	126.1	331.9	119.2	104.1 (1분기)	-

자료 : 독일연방통계청, Eurostat, Global Trade Atlas, 독일연방은행, OECD(2019년 10월)

2 2020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우리 기업을 위한 시사점
2020년 1월 브렉시트 시행 압박에 따른 시장 내 불확실성 우려와 함께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와 미·EU 간 무역 분쟁 이슈 등 글로벌 대외요인으로 독일 주요 산업경기 둔화 움직임 확대, 우리 기업은 차세대 혁신 제품 및 부품을 주축으로 한 신규 시장 공략에 주력 및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에 따른 대안으로서 독일 고려 필요

가. 2020년 1월 브렉시트에 따른 유럽 경기 하방리스크 증가

- 2016년 6월 23일 영국은 브렉시트(Brexit) 관련 국민투표 가결
 - * 주요 배경은 유럽통합에 회의적인 영국 내 여론의 정치적 이용, 이민자에 대한 영국민의 부정적 인식, EU 내 영국의 낮은 위상, EU 분담금 부담 및 과도한 규제
- EU와 영국은 수차례 협상 하에 2019년 3월 브렉시트 시행 이후 2020년 12월 31일까지 과도기적 시기를 갖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하원 투표에서 EU와 영국 간 합의안에 대한 의견차로 브렉시트 합의안이 부결, 기한을 2020년 1월 31일로 연기 합의
- **(경제영향)** 독일 수출산업 전반에 타격 및 경기둔화 확대 우려
 - 파운드화의 평가절하로 독일 수출품의 가격 상승, EU-영국 간 관세 및 비관세장벽으로 독일 수출기업에 상당한 타격 예상
 - 독일산업협회(BDI), 브렉시트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 분야는 자동차, 에너지, 통신 및 기계 제조, 철강 생산 분야
 - **(국내 대응)** 시장의 변동성 예의 주시 및 노딜 브렉시트에 따른 부정적 영향 최소화 노력* 필요
 - * 한·영 양국 통상부, 지난 8월 22일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안정적인 교역환경 조성

브렉시트 협상 경과 내역

시기	진행내용
2016년 6월	브렉시트 결정(국민투표 결과 52% 찬성), 캐머런 총리 사임
2016년 7월	메이 총리 취임
2017년 3월	EU에 탈퇴의사 공식 통보(2019.3.29. 공식 탈퇴 예정)
2018년 11월	EU와 탈퇴협정 합의
2019년 4월	메이 총리, 노동당(제1야당)과 브렉시트 협상 시작
2019년 6월	메이 총리 공식 사임
2019년 7월	보리스 존슨, 제77대 영국 총리 취임
2020년 1월 31일	브렉시트 시행 예정일

나. 트럼프發 경제위기 가시화

- 미·중 무역분쟁 첨예화와 미·EU 무역분쟁 확산 양상으로 트럼프發 경제위기로 대두
 - 잇따른 미·중 간 무역협상 결렬과 더불어 갈등 첨예화로 양호하던 독일 경제 역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 오더 감소로 부정적 영향 가시화
 - * (최신 동향) 2019년 8월 13일 美 트럼프 대통령, 2019년 9월 1일부터 총 3,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의 추가 관세 부과 대상 품목 중 휴대폰 등 일부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시점을 2019년 12월 15일로 연기 발표
 - * 중국정부는 이에 국유기업에 美 농산물 수입 중단 요청으로 반격 예정이었으나, 무역갈등 격화 양상 일 단락, 향후 이에 따른 무역분쟁 완화 가능성에 주목
- 미·EU 간 무역분쟁 맞불 작전
 - 2018년 6월 1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EU, 캐나다, 멕시코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무역 확장법 232조 적용 공표,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
 - * 트럼프는 선거 공약의 핵심으로 '미국 최우선(America first)' 기조를 토대로 대(對)EU 철강수입품 25%, 알루미늄 수입품에 10% 관세 부과 조치
 - 2018년 6월 EU는 28억 유로 규모의 미 수입품(오토바이, 청바지, 위스키 등)에 대한 보복 관세로 대응
- 미·EU 간 무역분쟁 재점화
 - 2019년 4월 美 정부의 에어버스 보조금 지급에 대한 보복 차원의 약 98억 유로 규모 EU산 제품에 고율 관세 부과 계획 발표에 대해 EU도 4월 12일 200억 유로 규모의 보복 관세 부과 위협으로 무역긴장 가열
 - 5월 17일 트럼프 대통령은 대(對)EU 및 일본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 결정을 180일 연기(2019년 11월 17일까지) 발표
 - 관세부과에 따른 보복 악순환 속에 미·EU 관계 경색 및 독일 경기 불확실성 확대 우려 지속
- EU의 즉각 보복관세 대응 방침으로 본격적인 무역전쟁 확산 우려
 - 말름스트롬 EU 통상정책 집행위원은 미국으로부터 자동차 관세를 방지하고, 그 대신 여타 제품에 대한 면세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美와 협상 중, 무역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2018년 7월 자동차관세 부과 결정을 보류하기로 한 지난해 무역합의안을 미국이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
 - * 2019년 7월 23일 EU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EU산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관세 부과 시, 350억 유로 (약 45조 5,000억 원) 규모의 보복 관세로 대응 예고
- (기회요인) 자동차 등 주요 제품에 美·EU 양방 관세가 부과될 경우 각국 글로벌 기업의 가치사슬 및 판매 전략의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
 - 독일 글로벌 기업의 경우 미국산 부품 조달·대미(對美) 판매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아시아 등 대체시장 모색 전망

다. 2019년 ECB 통화정책 정상화 후 추가 양적완화 조치 시행 예정

- (추가 양적완화 조치) 유로존의 성장을 견인해 왔던 독일경제의 둔화세가 확인해지면서 유로존 경제의 자생력 부족에 따른 추가 완화 필요성 대두
 - * 양적완화 정책은 2015년 3월 이래 지속, 2018년 1~9월까지 국채매입 규모를 월 300억 유로로 감축, 2018년 10월부터 월 150억 유로로 감축 후 연말 종료
- ECB는 중기 물가수준 목표치(2.0% 근접 하회) 달성을 위해 충분한 정도의 팽창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해 나갈 예정이며, 2019년 6월 시장 기대 인플레이션 하락과 관련하여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추가 완화조치 시사
 - * 2019.7.31. 美 연준의 기존 금리 인하를 비롯해 글로벌 무역분쟁과 더불어 유로존과 중국을 중심으로 경기둔화가 본격화하는 흐름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평가
- ECB 드라기(Draghi) 총재, 국채 매입 재개를 가용 정책수단 중 하나로 언급
 - * ECB는 중기 인플레이션 전망이 목표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포워드 가이드선스(Forward Guidance) 강화 및 새로운 자산매입 프로그램 등 적절한 조치 실행 예정 발표
- 2019년 9월 12일 ECB는 오는 11월부터 추가 양적완화 조치로 월 200억 유로 매입 예정 발표, 아울러 장기대출프로그램(TLTRO-III) 적용금리 완화 및 만기 연장 정책 발표
- (저금리 기조) 2019년 7월 25일 주요 정책금리 동결로 저금리 기조는 지속 유지, 2019년 유로존 경기 하방리스크가 크고, 인플레이션 둔화로 2019년 전망수치가 1.2%, 2020년 1.0%로 목표 수치인 2%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 2019년 9월 12일 예치금리 -0.4% → -0.5%로 인하 조정
 - * ECB의 초저금리(0%, 2016.3.10.~), ECB는 정책금리 조정 시기를 2019년 말에서 2020년 상반기로 연기, 2020년까지 현 정책금리 수준 또는 더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
- (환율 변동성) 미·중 무역협상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 유로존과 미국의 성장세 및 통화정책 결정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해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유로화 환율은 독일 제조업 수주가 예상보다 부진하면서 달러 대비 약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
 - * 국제금융센터, 중기적으로 美 연준 금리인하 선반영으로 국채 금리 하락 여지가 축소되면서 달러는 2018년 말 대비 강보합 전망
- 일부 투자은행들*은 유로지역 경기 및 인플레이션 둔화, 이에 따른 ECB의 추가 완화조치 가능성을 반영하여 달러 대비 환율 전망치를 소폭 하향 조정
 - * Paribas, Standard Chartered, Nomura, Citi, JP Morgan, UBS
- (국내 영향) 통화정책 완화 재개에 따른 유로화 가치 하락과 더불어 결제통화 다변화 시스템 구축 및 계약 시 환율변동에 따른 요인을 적극 고려 필요

라. 차세대 자동차 시장 수요에 맞춘 혁신 제품 및 부품 시장 판로 개척 적기

- (시장 재편) 현재 독일 자동차업계는 전기차를 주축으로 한 시장 재편 진행 중, 각 완성차 기업은 가능한 다각도의 모든 솔루션을 고려

- 경량화, 모터 성능 개선을 통한 CO₂ 배출 감축, 전기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친환경차 생산 및 무인주행차 개발에 박차, 48V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통한 과도기적 솔루션 도입, 유해가스 배출이 적은 새로운 합성 연료(E-Fuels) 및 수소연료전지기술 개발 확대 등
- (E-모빌리티) 2019년을 기점으로 VW, BMW, Mercedes-Benz 등 독일 주요 완성차 기업의 전기자동차 대량 생산 본격화
- (자율주행 기술) 2022년 5월 이후 신규 출시 차량 모델에 현 안전 운행 보조 장치를 기본 사양으로 설치 의무화, 2024년 모든 신차에 확대 적용 예정으로 중기적으로 다양한 자율주행 기술 제품 및 부품 수요 확대 전망
- (기회요인) 미래의 자동차 시장 내 새로운 브랜드 경쟁과 더불어 자동차부품 분야 밸류체인에도 큰 변혁 예상
 - 관련 신소재 부품, 스마트기술 제품 및 부품, 경량부품, 수소차와 전기차 및 스마트형 제품 시장 공략을 위한 부품 개발 및 시장 판로 개척에 역량 집중 필요, 시장 주도권 변화에 편승한 고부가가치 상품 판로 개척이 관건

마. 독일,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에 따른 대체 수입선으로 부상

- 일본은 2019년 7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리지스트(감광제) 등 반도체 관련 첨단소재 3종 수출 규제에 이어 2019년 8월 28일 한국을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배제 하면서 대(對)한국 수출 규제 강화
 - (대체수입처 발굴 시스템 구축) KOTRA, 실태 파악과 더불어 대체수입처 발굴 시스템 및 신규 수입처 확보 지원 해외거점 구축 및 해외 소재부품 공급처 발굴 지원, 특히 원부자재 공급선 조사 등을 통한 기업 수요에 적기 지원
 - * KOTRA 중점무역관 중 38개 무역관 및 타이베이 무역관 소싱 거점 무역관 지정, 일본 수출규제 피해 기업의 해외 대체공급처 및 M&A 타깃 매물 발굴, 해외 동향 조사, 해외기술인력 알선 등 지원
- 독일은 한국의 대일(對日) 수입의존도 30% 이상인 261개 수입품목* 중 총 246개 품목의 주요 수출국 10위에 포함, 대체 불가한 품목의 대체 수입처로 적극 고려 가능
 - 단, 대체 수입선 발굴에는 해당 제품 물량 확보와 물류비용 상승 등에 따른 부담 상존



II. 비즈니스 환경 분석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 브렉시트 시행에 따른 EU 판도 변화 영향 속 트럼프發 경제위기 가시화로 수출입 및 대외환경 약화가 예상되나 고용 및 내수 안정을 토대로 2019년 0.5%, 2020년 1.5%의 완만한 경제성장 전망
- 독일의 최대 기간산업 중 하나인 자동차 산업 경기 악화 속에서도 전방위 친환경화·경량화·무인 자율주행차 개발을 위시한 차세대 산업환경 구축을 위한 노력에 따른 신산업수요 발생 기대
- K-Beauty 붐 지속과 스타트업 창업을 통한 진출에 주목

II

비즈니스
환경 분석

가. 정치 환경

(유럽의회 선거) 유럽의회 선거 시 기성정당 입지 약화, 녹색당 약진

- (종합) 기성정당들의 지지율 하락 및 녹색당의 대약진(20.5%, 2위)이 두드러진 가운데, 독일 및 EU의 그린 에너지 정책 및 산업별 친환경 정책 추진이 가속화 될 전망이며, 이번 유럽의회 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독일 주요 정당들은 2021년 총선 대응체제를 구축 중
 - 2019년 5월 제9회 유럽의회 선거에서 현 제1당인 기민·기사당 연합(CDU·CSU)은 약 28.9%의 득표율로 1위를 기록하였으나, 유럽의회 선거 역사상 처음으로 30% 지지율선 붕괴
 - 기민당과 함께 오랜 기간 독일 정치를 양분했으며, 현 집권여당의 연정파트너이자 제2당인 사회민주당(SPD)은 15.8% 득표율 기록, 2014년 유럽의회 선거 득표율 27.3%보다 지지율이 대폭 하락하였으며, 독일 전역을 대상으로 치러진 선거에서 창당 이래 처음으로 3위로 밀려남
 - 녹색당(Die Gruenen)은 2014년 유럽의회 선거보다 약 10% 상승한 20.5%의 지지율로 2위 기록, 유럽의회 선거의 실질적인 승자로 등극
 - 녹색당은 기후변화·환경보호 쟁점화에 성공하여 30세 이하 기민당과 사민당의 유권자를 대거 흡수했으며, 주요 정책별로 목표치를 제시하는 등 타 정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한 점이 주효함
 - * 베를린, 함부르크, 뮌헨, 쾰른 등 독일 주요 대도시에서 최다 득표율을 기록한 점이 특히 고무적으로 평가됨
 - 극우정당인 독일 대안당(AfD)은 2014년 유럽의회 선거보다 3.9% 높은 11%의 득표율을 달성했으나, 이는 2017년 총선 득표율 12.6%보다는 낮은 수치임

독일 4대 정당의 유럽의회 선거 주요 경제정책 비교

구분	기민·기사당 연합 (CDU/CSU)	사민당(SPD)	녹색당 (Die Grünen)	대안당(AfD)	
성향	친EU			반EU	
득표율(%)	28.9(△6.4)	15.8(△11.5)	20.5(+9.8)	11(+3.9)	
경제 정책	통상	- 자유무역주의 * FTA를 효과적인 자유무역 확대 방안으로 상정하나, 사민당과 녹색당은 FTA 체결 시 협상의 투명성, 형평성, 환경적·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			
	재정	- 회원국 자율성과 자기 책임 강조 - EU 예산 확대 지지 - EU 재정위기 대응을 위한 유럽통화기금(EMF) 설립에 유보적	- EU재무부 설립을 통한 재정통합 지지 - EU 예산 확대 지지 - 유럽통화기금(EMF) 설립 찬성	- EU예산 확대 지지 - EU 고유의 재정수입 확대 주장 - 유럽통화기금(EMF) 설립 찬성	- 회원국 자율성 강화 - EU 예산 확대 반대 - 유럽통화기금(EMF) 설립 반대
	통화·금융	- 유로화 찬성 - 유럽중앙은행 독립성을 강조, 유럽중앙은행의 회원국 채권구입과 부실은행 지원 반대	- 유로화 찬성 - 유럽중앙은행 독립성을 강조, 유럽중앙은행의 회원국 채권구입과 부실은행 지원 반대	- 유로화 찬성 - 유럽중앙은행 독립성을 강조, 유럽중앙은행의 회원국 채권구입과 부실은행 지원 반대	- 유로화 반대 - 유럽중앙은행 독립성을 강조, 유럽중앙은행의 회원국 채권구입과 부실은행 지원 반대
	산업	- 독일 및 유럽의 환경보호·디지털화 필요성 공통적으로 역설 - 디지털화에 있어서 사민당과 녹색당은 노동자 보호 전제 명시			
	노동	- 회원국 임금덤핑 방지 - 유럽노동청 설립 지지 * 녹색당은 유럽 노동청 설립에 대한 명시적 언급은 없으나, EU 내 전면적인 최저임금도입 등 EU 차원의 노동정책 강조	- 회원국 임금덤핑 방지 - 유럽노동청 설립 반대		
	기타	EU의 제도권 내에서 현안을 해결하는데 초점			- 독일의 EU 탈퇴 (DEXIT)도 고려하나, EU 제도권 내 문제해결이 불가능할 때 최후의 수단

자료 : 각 정당 정책공약집(2019년 10월)

나. 경제 환경

 (경제성장) 2019년 경제성장을 0.5%에 그칠 전망

- (경기둔화) 브렉시트와 더불어 美 트럼프를 둘러싼 미·중 및 미-EU 무역분쟁이 장기화되며 독일 경기에도 타격, 2019년 독일은 0.5%의 성장에 그칠 전망
- 대내외 경기악화 요인 속 경기둔화에 따른 수출 감소세를 다소 견조한 내수 수요와 고용 시장의 호조세* 등이 상쇄

- (2020년 반등) 독일 정부 및 주요 연구소·기관은 2020년 0.6~1.4% 경제성장 전망
* 2020년 수출 +2.0%, 수입 +3.3%, 민간소비 +1.2% 전망

독일 정부, 주요 연구소 및 기관의 독일 경기 전망

기관명	발표 시기	2019년 전망(구)	2019년 전망(신)	2020년 전망
독일 정부	2019.10.	1.0	0.5	1.0
IMF	2019.10.	1.3	0.5	1.2
Ifo 경제연구소	2019.9.	0.6	0.5	1.2
IWV 세계경제연구소	2019.9.	1.0	0.4	1.0
OECD	2019.9.	0.7	0.5	0.6
EU 집행위	2019.7.	1.1	0.5	1.4
연방은행	2019.6.	1.6	0.6	1.2

자료 : 각 기관 홈페이지(2019년 10월)

- 2019년 8월 Ifo 경제연구소의 영업환경지수가 5차례 연속 하락한 94.3 기록, 유럽재정위기가 휩쓸었던 2012년과 같은 약한 수준

(교역 동향) 미·중 통상분쟁 및 브렉시트로 인해 수출경제 둔화

- (수출 둔화) 2019년 6월 누계 수출은 6,661억 유로(+0.5%), 수입은 5,562억 유로(+3.0%)로 예년 대비 증가폭이 크게 둔화, 글로벌 무역분쟁 장기화와 브렉시트 리스크 등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으로 산업 수주 감소세 뚜렷
* 대(對)EU 수출 -0.2%, 대(對)유로존 수출 0.5%, 대(對)비유로존 유럽국가 수출 -1.5%, 대(對)기타 제3국가 -1.7%
- 무역수지의 경우 1,099억 유로로 전년 동기 1,224억 유로 대비 10.2% 감소, 예년 대비 수출 증가폭 감소에 따라 흑자폭도 감소

독일 수출입 동향

(단위 : 억 유로)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6월 누계
수출	11,958	12,075	12,794	13,179	6,661
수입	9,480	9,546	10,346	10,900	5,562
수지	2,478	2,529	2,449	2,278	1,099

자료 : 독일연방통계청(2019년 10월)

다. 산업 환경

자동차 : 경기둔화에도 전기차를 필두로 자율주행차 기술 확대 보급 전망

- (경기둔화 영향) 2019년 9월 누계 독일 자동차 시장은 총 판매대수 324만 2,373대로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하며 월별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증가세

- 그러나 경기부진과 디지털화에 따른 비용 상승에 따른 영향이 업계에 전이되며 부정적 영향 가시화
 - * 특히 Continental, Schaeffler, Bosch, Mahle, Mann+Hummel, Schuler 등 주요 부품기업은 비용절감 프로그램이나 단축근무제 시행, 일자리 축소 고려 등 신중한 행보, 2019년 9월 Schaeffler, 자동차 생산 감소 및 친환경차로의 기술적 전환 등의 여파로 250명 단축근무제 실시, 향후 700개 일자리 삭감 예정, 부품업계의 경우 이미 3개 기업 중 1개 기업이 단축근무제 시행 중
- 현재 대다수의 기업은 다각도의 혁신 시도 중이나, 매출은 여전히 기존의 기술린 엔진 분야에서 발생해 투자에 따른 부담 증가
- 최근 9년간 독일 시장에서 한국 기업은 약진, 판매량 및 시장점유율 증가
 - * 시장점유율 2010년 현대 2.5%, 기아 1.3% → 2019년 7월 누계 현대 3.4%(시장 내 9위), 기아 1.9%(14위), 판매증가율 현대 각각 +7.7%, 기아 3.1%
- (차세대 자동차 및 부품 수요대응) 2019년 초 독일자동차산업협회 마테스(Bernhard Mattes) 회장, 향후 3년간 자동차기업은 E-모빌리티 분야 관련 400억 유로, 디지털화·커넥티드카 및 자율주행기술에 180억 유로 투자 예정
 - 향후 3년 내 VW를 필두로 벤츠, BMW, Audi 등 독일 완성차 기업은 현 시점 대비 3배 증가한 약 100개의 전기자동차 모델 보급 전망
- (자율주행 기술 보급 의무화 전망) 2022년 5월 이후 신규 출시 차량모델에 각종 안전장치 의무화 시행이 유력한 가운데 관련 기술의 수요 확대 양상 예상
- (역외산 소싱 비중 확대 편승) 유럽 글로벌 OEM들의 원가 절감을 위한 역외산 소싱 증가*, 특히 향후 보급 예정인 전기차 및 자율주행 기술 관련 신성장 시장을 타깃으로 해외 아웃소싱 행보 주목
 - * Audi 2022년까지 절감정책 진행, 총 150억 유로 절감 계획, VW 역시 2022년까지 60억 유로 절감 계획
 - 자동차부품업계의 판도 변화에 대비해 주력상품인 리튬이온 배터리를 비롯해 모터, 컨버터, 차저, E-차축, 케이블 등 전기자동차부품 및 차체 무게 경감을 위한 경량화 소재 수요 대응 필요
 - 국내 기업의 납품 레퍼런스 및 기술 인증 보유 등을 바탕으로 독일 OEM 및 Tier 1, 2 기업 고객의 신뢰 향상
 - * 2018.9.10. 프랑크푸르트에서 KOTRA가 주최한 슈펠러(Schaeffler) 'Supplier Day 2018'에서 글로벌 자동차 OEM 구매부 이사인 슈프 박사(Dr. Florian Schupp)는 국내 Tier2 급 소싱 조달 비중 확대 계획, 실제로 국내 부품기업 B와 K 등 다수 기업의 수주 성과

기계산업 : 산업계 경기 둔화 우려 속 디지털화에 박차

- (해외 수주량 감소) 세계 경기 둔화 우려 속 2019년 상반기 해외 수주량 감소세
 - 독일 기계산업협회(VDMA)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독일 기계산업계의 수주량은 2019년 1월 부터 6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함
 - 또한 해외 수주량이 2018년 동기 대비 약 9% 감소하여 수출 중심 산업인 독일 기계산업계에 전반적인 침체가 우려됨

- 특히, 기계산업 밀집 지역인 브란덴부르크, 작센주, 작센-안할트, 튀링엔 등을 포함한 독일 동부지역의 전년 대비 상반기 국외 수주량은 19% 감소
- **(주요 원인)** 세계 경제 둔화와 전기자동차 확산
 - 기계산업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는 세계 경제 둔화와 전기자동차 확산에 따른 자동차 업계의 근본적인 구조변화가 꼽힘
 - 미·중 무역분쟁 등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추세, 브렉시트 및 이란과 서방세계 간 갈등이 향후 경기 전망에 불확실성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독일 기계산업계 전반의 투자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음
- **(디지털화)** 독일 기계산업계, 디지털화를 통한 돌파구 마련
 - 2019년 현재 독일 기계산업 업체의 약 75%가 사물 인터넷(IoT) 플랫폼 활용 중
 - 2019년 독일 기계산업계는 인공지능 및 기계-학습기반(Machine Learning-based) 솔루션 개발과 상용화에 약 4~5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
 - 그러나 전문 인력 및 알고리즘 습득에 필요한 검증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선결 과제

항공산업

-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독일 항공산업)** 독일우주항공산업협회(Bdli)에 따르면, 독일 항공산업은 2013년 이후 연간 8%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총 매출액은 2018년 400억 유로이며, 2019년 매출액 7.5% 증가 전망
 - 독일 항공산업은 독일 경제부가 선정한 핵심기술(Key Technology) 분야 중 하나로 전자전기, 로봇, 전자제어, 소재부품 등 주요 산업들의 기술이 집약되어 있음
- **(신기술 개발의 선두주자)** 유럽 Flightpath 2050* 협약에 따른 친환경 기반 에너지 고효율 기술 개발 진행 중
 - * 유럽위원회(Europe Commission) 소속 자문기구인 Acare(Advisory Council for Aeronautics Research in Europe)에서 발표한 항공 분야 전략적 연구과제
 - R&D 투자비용은 전체 매출액의 10%에 달하는 40억 유로이며, 현재 CO₂ 배출 50% 절감, 질소산화물(NOx) 80% 절감, 항공기 소음 50% 감소, 사고율 5배 절감 등의 목표로 하는 기술 개발 중
 - 독일 항공산업은 약 2,300여개의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사자 중 50% 이상이 고학력자 및 엔지니어로 구성, 독일 정부로부터 핵심기술 분야로 지정된 만큼 추후 혁신 기술이 가장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임
- **(클러스터 기반 산업역량 강화)** 독일 전역에 고루 분포한 항공클러스터 내 기업, 대학 및 연구 시설 간 3자 협력교류를 통한 역량 강화

- Alround e.V.(노르드베스트팔렌 주), Bavaria(바이에른 주), BBAA e.V.(베를린-브란덴부르크 지역) 등 독일 전역에 골고루 존재하는 항공클러스터의 네트워크가 각 클러스터에 소속된 대학, 연구소, 기업들 간 교류를 지원함으로써 독일 항공산업 발전에 주요 역할 수행 중

(소비재) 유통·화장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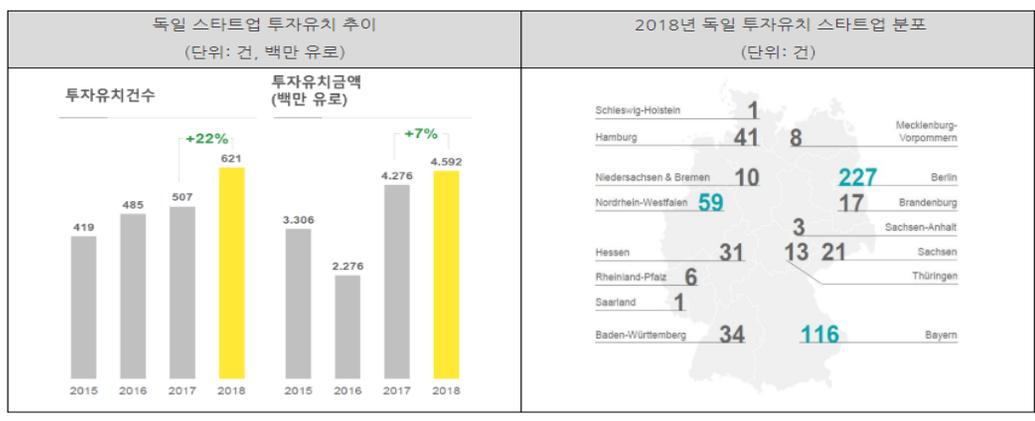
- (건재한 소비재 유통) 독일유통협회(HDE)에 따르면, 2018년 독일 소매 유통 시장의 연매출은 5,250억 유로이며, 지난 10년간 매출 상승세 기록, 최근 들어 지속되는 매출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시장 성장에 힘입어 2019년 전년 대비 2% 증가한 5,370억 유로로 성장 전망
 - (온라인 시장 고공행진 지속) 독일 온라인 유통 시장은 지난 5년간 꾸준한 증가세, 소비재 중심으로 온·오프라인을 겸하는 멀티 유통 채널이 널리 보급
 - * 2018년 매출이 총 536억 유로로 전년 대비 +9.7%, 2014년 대비 +50% 증가, 2019년 전년 대비 9.1% 증가(VS. 오프라인 시장은 +1.2% 성장) 전망
- (EU 최대 시장) 독일은 EU의 최대 화장품 시장, 완만한 성장세 지속
 - ‘Cosmetics Europe 2019’에 따르면, 2018년 독일 화장품 시장의 매출은 138억 유로로 EU 화장품 시장 내 최대 규모*(총 EU 시장의 17.8%)
 - * 프랑스 114억 유로, 영국이 109억 유로, 이탈리아 101억 유로, 스페인 70억 유로 규모 순
- (대(對)한국 수입 증가) 2018년 HS 코드 3304 기준(화장품) 총 수입 7.6% 증가, 대(對)한국 수입 (1,960만 달러)은 82.3% 증가하며 평균 증가율을 크게 상회
 - 2018년 HS 코드 3304 기준 최대 수입국은 프랑스로 전체 수입의 28.8%를 차지, 이어 스위스 (14.3%), 이탈리아(9.7%), 폴란드(7.2%), 영국(6.0%), 오스트리아(4.7%) 등의 순, 한국은 17위
 - * 중국과 일본은 각각 9위와 13위로 규모 면에서 우위이나 -1.5%, -0.1%로 감소세
 - 2018년 대(對)한국 수입은 1,960만 달러, 전체 수입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0.72%) 하나 높은 증가세 지속, 최신 집계 기준 2018년 5월 누계 대(對)한국 수입은 952만 달러(총 시장점유율 0.86%, 17위), 21.3%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선전 중

스타트업 : 베를린을 중심으로 스타트업 투자유치 활발

- (투자유치 활발) 2018년 독일 스타트업 투자유치 신기록 경신
 - 2018년 독일 전체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건수는 전년 대비 22% 증가한 621건 기록
 - 투자유치액 역시 전년 대비 약 7%, 3억 1,600만 유로 증가한 45억 9,200만 유로를 기록하며 2017년도 최고 투자유치 기록을 깨고 신기록 재경신
 - 1,000만 유로 이하의 중소형 규모의 투자유치 건수는 493건으로 2017년도 대비 14% 증가, 1,000~5,000만 유로의 대형 투자유치 건수는 전년 대비 50% 증가한 81건 기록
 - 5,000만 유로 이상의 특대형 규모 투자유치도 전년 11건보다 2건 늘어난 13건 기록

- (유망 분야) 전자상거래(E-Commerce), 핀테크, 소프트웨어 및 분석, 모빌리티, 헬스케어 분야가 가장 많은 VC 자금 투자유치에 성공
 - * 투자유치 건수로 살펴보면 소프트웨어&분석(149건), 전자상거래(102건), 헬스케어(84건), 핀테크(54건), 모빌리티(46건) 순임
- (베를린 강세) 2018년 독일 스타트업 투자유치 Top 5 중 4개의 스타트업이 베를린에 위치하는 등 베를린은 여전히 독일 스타트업의 중심임

독일 스타트업 투자유치 추이 및 스타트업 분포도



자료 : Ernst&Young(2019년 10월)

2018년 독일 스타트업 투자유치 Top 5

(단위 : 백만 유로)

기업명	시기	투자유치액	사업 분야	소재지
Auto 1	1월	460	중고차 거래 플랫폼	베를린
About You	7월	246	온라인 쇼핑 플랫폼	함부르크
HOME 24	6월	172	인테리어 쇼핑 플랫폼	베를린
Go Euro	10월	132	여행 플랫폼	베를린
N26	3월	132	모바일 은행	베를린

라. 정책·규제 환경

📌 '국가산업 전략 2030' 발표

- 2019년 2월 독일 알트마이어(Peter Altmaier) 경제에너지부 장관의 주도 하 '국가산업전략 2030' 발표
 - (의의) 독일의 기술경쟁력 및 주요 산업 리더십 보존을 위한 미래 핵심기술 지원·보호의지 표현
 - (배경) 세계화 및 혁신프로세스의 가속화, 타 국가의 보호무역주의 및 다자간 협약에서의 이탈 현상 속 독일의 부(wealth) 유지 및 확대

- (목표) 경제 분야 이해관계자와 공동으로 모든 관련 분야에서 국가, 유럽, 글로벌 차원에서 경제적, 기술적 역량과 경쟁력 및 산업 선도국의 지위 확보 및 회복에 기여
- (미래 전략 과제) 산업 및 기술 주권과 경제 역량 확보로 핵심기술과 기초혁신 분야 내 글로벌 경쟁에 대처
 - (제조업 강화) 2030년까지 총 부가가치상 제조업 비중 25% 달성(현재 23%)
 - (밸류체인) 폐쇄형 부가가치사슬 유지 : 소재 생산에서 생산 및 가공, 판매서비스, R&D 등 총 밸류체인을 단일 경제권(EU) 내 확보 의지
 - (미래 핵심 산업 강화) 특히 AI, 바이오, 배터리산업 및 플랫폼 경제 집중육성
 - (독일·유럽 챔피언) 항공산업, 거대 인터넷 플랫폼, 기계설비, 국제금융·은행 분야는 미·중 대기업에 대항할 수 있는 거대자본이 필연적이라 주장, 독일·유럽 ‘챔피언(거대기업)’ 필요성 강조
 - (M&A) 외국 경쟁기업의 M&A 관련, EU의 핵심 인프라 포함 국가안보 위협을 피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례별로 금지

EU, CO₂ 배출 감축 목표 확정 발표

- 2018년 12월 7일 EU는 오랜 공방 끝에 2030년 자동차 CO₂ 배출 규제 목표에 최종 합의
 - (배경) 청정 모빌리티를 위한 패키지의 일환이자, 운송 분야 내 배출가스 감축 노력 및 경쟁력 유지
 - (목표) 기후중립적인 운송 실현
 - (감축 목표) 승용차의 경우 2021년 대비 CO₂를 2025년 15%, 2030년 37.5% 감축해야 하며, 소형 상용차*의 경우 2021년 대비 2025년 15%, 2030년 31% 감축의무
 - * 차량 중량 3.5t 이하, 형식승인 N1으로 분류된 상용차
 - (업계 반응) 업계 내에서는 EU의 최종 합의 CO₂ 감축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우려가 큰 편이며, 이는 디젤 게이트 후 일련의 변동사항과 함께 자동차 업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대응) 주요 완성차 기업, 업계 내 일자리 감축 우려와 적극적인 지구책 모색 필요
 - 국내 기업에게도 또 다른 비관세장벽으로 작용 예상, 중기적으로 CO₂ 배출 감축 추진과 더불어 친환경자동차 출시 및 영업 확대 등 이중 전략을 통해 차후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다각도의 방안 모색 중요

2019년 7월 22일 이후 ‘유해물질 제한지침(RoHS II)’ 모든 신규 출시 전자제품에 확대 적용

- RoHS II는 2006년 발효된 EU의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
 - 전자제품의 제조과정 뿐만 아니라 최종 제품에 대해 전기·전자제품 폐기물 처분, 재활용을 저해하거나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유해물질의 사용을 규제

EU, 단계별로 RoHS 인증 대상 확대 적용

- 2014년 7월 22일 이후 의료 모니터링 및 제어장비
- 2016년 7월 22일 이후 체외 진단 의료기기
- 2017년 7월 22일 이후 산업용 모니터링 및 제어장비(카테고리 9)*
 - * 적용 품목 : 화재경보기, 온도조절계, 동작감지기, 온도계, PH 테스트기(산성·알칼리성 수치 측정기기), 미디어 콘솔, 기타 측정기기, 무게측정 및 조정기기 등

- 2019년 7월 22일 이후에는 일부 예외를 적용하고 모든 전기·전자제품에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화학물질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
 - * 2017.11.15. 지침 개정안(EU) 2017/2021을 통해 지침 일부 개정
 - 처음 발표와는 달리 개정을 통해 이미 유통기업에 배송된 신규 제품이 아닌 시장 내 최초로 출시된 제품에 한해 RoHS 요구사항 적용 명시
 - * 특히 전기장치가 내장된 가구나 의류 등에 적용

EU의 플라스틱 사용 규제에 따른 식품유통 업계 변화 및 대체재 시장 주목

- EU, 2021년부터 대체 가능한 소재가 있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 **(금지대상 품목)*** 대체 제품이 있는 경우이며, 이 외 특정 플라스틱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물티슈 등도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표기 의무 적용
 - * 산화분해성(oxo-degradable) 플라스틱 제품과, 면봉, 접시, 식기류(포크·손가락·나이프 등), 빨대, 음료수 막대, 풍선막대, 폴리스티렌(polystyrene) 소재 식품용기 등
 - **(기타 규제)** 친환경 원료로 대체가 불가능한 제품의 경우 사용 감축 의무 적용
 - * 일례로 담배필터와 과자봉투 등의 식료품 포장지, 식품용기, 음료수병 등의 포장재의 경우 25% 사용 감축 의무 적용
 - 관련 제조업체는 해당 제품의 수거와 폐기 비용 부담 의무
 - EU 차원의 플라스틱 봉투 사용 감축 목표는 2025년까지 1인당 연 최대 40개
 - * 독일은 2016.7.1. 이래 플라스틱 봉투 유상 지급 조치 시행
- **(플라스틱 봉투 사용 규제)** 2019년 9월 6일 독일 환경부, 플라스틱 봉투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2020년 상정 예정 발표
 - * 독일의 1인당 연간 플라스틱 봉투 사용개수는 2017년 29개, 2018년 24개로 이미 목표 이하 수치
 - 위반 시 10만 유로의 벌금 부과 예정
 - 동 법안은 2020년 상반기 발효 예정이며, 발효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 하반기 시행 예정
- **(대체용품 사용 확산 전망)** 일회용 플라스틱용품 퇴출을 위해 단계적으로 재활용 종이나 생분해 가능한 봉투, 세탁 가능한 망사 백, 천 가방, 바이오 플라스틱 제품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에 대한 관심 증가
 - * 일례로 독일 대형 슈퍼마켓체인 Real은 2020년까지 과일·야채코너의 플라스틱 봉지 추방 예정, 이를 통해 약 7,000만 개 사용 절감 효과

- (신시장 개척) 우리 수출 기업 역시 생분해성 제품으로의 생산 방식 변경 및 친환경 대체 제품 개발 등 적극적인 대응 방안 강구 필요
 - * 대체재로 주목 받는 바이오 플라스틱과 생분해 플라스틱은 잠재수요가 매우 큰 시장으로 아직 생산 및 가공기술 개발이나 가격경쟁력, 표준화 등의 도전 과제 有
 - 이는 미래 친환경 플라스틱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으며, 시장 수요 확산에 발맞춰 합리적인 가격의 친환경 대체재 개발 및 새로운 시장 선점의 기회로 활용 필요

EU, 2022년 5월 이후 신규 출시 차량모델에 각종 안전장치 의무화 예정

- (도입 배경) 2050년까지 ‘Vision Zero(교통사고율 0%)’를 목표로 도로상 안전 확대를 위해 안전 운행 보조 신기술 설치 의무화
 - 일부 자동차기업에서 고급 승용차 옵션으로 제공하던 30여 개의 안전 운행 보조 기술을 2022년 5월부터 모든 신차 모델에 기본 사양으로 설치 의무화, 2024년까지 모든 신차에 적용 예정
 - * 2018년 EU 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약 2만 5,000명, 부상자수는 13만 5,000명으로 지속 증가 추세
- (주요 내용) 승용차, 승합차, 대형 화물차 및 버스 등 모든 신차 모델에 적용
 - 2022년 5월부터 음주 운전 방지장치(alcolock), 졸음 및 과속 방지 경고 장치, 비상 제동시스템, 후방 카메라와 센서(레이더, 라이다 포함), 사고 데이터 기록기, 정속 주행 장치(cruise control), 스마트 제한속도 감응시스템(ISA : Intelligent Speed Adaption), 차선 이탈 경보장치 등을 비롯한 안전 운전 기능 설치 의무화
 - 특히 승용차와 승합차의 경우 차선 유지 기능, 비상 자동 브레이크 의무, 화물차의 경우 좌·우회전 보조어시스턴트, 센서 시스템 의무
 - * EU 집행위, 등 의무화 시행으로 2038년까지 EU 내 2만 5,000명의 사상자 및 최소 14만 명의 중상자 방지 효과 기대
- (자율주행 시장 확대 전망) 향후 교통안전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 보급 확대 기반으로 작용할 전망

2 시장 분석

- 독일은 유럽 최대의 시장이자 한국의 대(對)EU의 1위 시장이며, 국내 주재상사의 유럽 영업 거점으로 한-독 교역의 중심적 역할
- 영국의 브렉시트와 미·중 및 미·EU 분쟁 장기화에 따른 영향 하에 자동차, 기계, 화학 등의 주력 산업군 시장 경기가 둔화되고 있어 2020년 독일 경제 성장은 완만한 증가세에 그칠 전망
- E-모빌리티 및 자율주행 기술 제품 및 부품을 위시한 고효율·고성능 소재 및 부품과 소비자 중심의 수출 판로 확대 기대

가. 시장 특성

(시장) 세계 4위의 경제 대국으로 유럽 최대 시장

- 2018년 기준 독일의 연간 GDP는 약 3조 3,860억 유로로 세계 경제의 약 4%를 점유, 미국·중국·일본에 이은 세계 4위 경제
- * EU 전체 GDP의 약 19%, 인구의 약 16%를 차지

(수출 경제) 무역의존도가 70% 이상인 대외 개방형 경제 구조

- 2018년 독일 수출규모는 1조 3,175억 유로로 전년 대비 약 3% 상승, 중국·미국에 이어 전 세계 수출규모 3위 국가
- * 자동차·기계·화학·전자 등 4개 산업이 전체 수출의 약 50% 차지
- ** 2018년 독일 EU 내 수출규모 점유율은 59.1%, 수입규모 점유율은 57.2% 기록

(제조 강국)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제조기업 다수 소재

- Volkswagen·Daimler·BMW(자동차), Bosch·Continental·ZF(자동차부품), BASF·Bayer(화학), Siemens(의료기), ThyssenKrupp(철강) 등 글로벌 제조기업 소재
- 중소기업이 독일 전체 기업의 99.6%, 독일 수출규모 25%를 차지
 - 독일 중소기업에는 독일 내 근로자의 60% 이상, 직업훈련생의 80% 이상이 근무 중
 - 독일 내 중소기업 최대 밀집지역은 독일 북서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Nordrhein-Westfalen, NRW) 2,200여 개 중소기업 소재
 - 전 세계 히든챔피언* 2,700여 개사 중 1,300여 개사가 독일에 소재
 - * 히든챔피언 정의 : 독일 경영학자 헤르만 지몬(Hermann Simon)에 따르면 ①시장점유율 세계 1~3위 또는 유럽 1위로 ②매출 50억 유로 미만이며 ③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기업을 뜻함

R&D를 토대로 하는 기술경쟁력

- GDP의 3.03%(총 1,188억 달러)를 R&D에 투자, R&D 부문 지출 비중이 OECD 국가 중 4위를 차지

- * R&D 투자 1위 미국(5,810억 달러), 2위 중국(5,190억 달러), 3위 일본(1,930억 달러) 순
- 기업 투자는 총 688억 유로, 전년 대비 10% 증가
- 2025년까지 R&D 투자는 GDP 3%에서 3.5%로 증가할 계획*이며, 이는 중소기업의 R&D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특별 재정지원 정책, 세금면제 혜택을 부여함
 - * 전 독일 연구혁신전문가위원회(Expertenkommission Forschung und Innovation, EFI) 회장 디트마 하르호프(Dietmar Harhoff)의 제안으로 추진된 계획, 연 최대 200만 유로 규모의 R&D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연 최대 25%에 해당하는 50만 유로 지원
- 히든챔피언의 경우,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이 약 6%, 글로벌 대기업보다 약 2배 높은 수준
 - * 히든챔피언 중 20% 이상은 매출액의 9% 이상을 R&D에 투자
- 독일의 유럽특허청 특허출원 수 20,804건(2018년 기준)으로 전년 대비 약 10.5% 증가(세계 3위, EU 1위)
 - * 세계 1위 미국(31,136건), 2위 일본(21,343건), 4위 프랑스(8,610건)(자료 : 유럽특허청, EPO)
 - 2018년 독일특허청을 통한 독일의 특허출원 건수는 46,609건, 전년 대비 2.5% 감소
 - * 2018년 독일특허청 특허출원 건수 2위 일본(8,013건), 미국(6,669건), 한국(1,313건), 스위스(813건) 순, 일본·미국·한국은 전년 대비 약 10~12% 증가
 - 주요 출원 분야는 자동차(12,272건, 5.8% 증가), 전기·에너지 장치(7,429건, 2.3% 증가), 엔진 동력기계(5,871건, 6.3% 감소), 의료기기(4,979건, 1.1% 증가) 순

합리적인 소비 특성

- 독일 소비자는 IT, 전기·전자, 건강, 의료, 합성소재, 자동화 기술 등 기술 혁신 제품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편
- 선진국 제품보다 인지도가 낮은 비유명상표 제품이라 할지라도 품질과 가격 경쟁에서 앞선다면 시장 진입의 가능성 有
 - 독일 시장 진출 시 기술혁신과 디자인에 초점을 맞춘 고품질 제품으로 공략 필요

나. 교역

최근 수출입 동향

- (경기침체 우려) 2019년 상반기 독일 수출이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여파로 감소
 - 특히 6월 당월 수출입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 -4.4%로 큰 폭으로 감소한 1,061억, 893억 유로 기록
 - * 대(對)EU 수출 -6.2%, 대(對)유로존 수출 -5.6%, 대(對)비유로존 유럽국가 수출 -7.2%, 대(對)기타 제3국가 -10.7%
 - 2019년 6월 기준 무역수지는 168억 유로를 기록, EU 회원국으로의 수출규모는 635억 유로, 수입규모 533억 유로, 전년 대비 각 6.2%, 1.1% 하락

독일 수출입 동향

(단위 : 억 유로)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6월 누계/당월
수 출	11,958	12,075	12,794	13,179	6,661/1,061
수 입	9,480	9,546	10,346	10,900	5,562/893
수 지	2,478	2,529	2,449	2,278	1,099/168

자료 : 독일연방통계청(2019년 10월)

- **(리스크 1 - 미·중 분쟁)**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되며 경기에 부정적 영향
 - 미·중 간 징벌적 관세는 독일 기업의 글로벌 생산 및 밸류체인에 타격, 특히 자동차부품 제조사, 전자제품 및 기계 제조사에 타격 가능
 - 특히 독일은 제조업(건설업 제외) 비중이 26%로 유럽 타 국가에 비해 높으므로 경기둔화가 독일 제조업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
 - * EU 대표국 GDP의 제조업 비중은 스페인 21.6%, 이탈리아 21.4%, 영국 18.6%, 프랑스 17.4%
 - 특히 중국과 미국의 거의 모든 수출품에 독일 기업의 선 제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독일 경제에도 큰 타격
- **(리스크 2 - 브렉시트)** 브렉시트로 인한 불확실성이 2019년 내내 악재로 작용
 - 브렉시트 관련 EU와 영국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도중 영국의 탈퇴 기일만 연장되는 상황(현재 : 2020년 1월 31일)이 EU 경제 및 투자심리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침
 - 독일 수출산업 전반에 타격, 브렉시트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 분야는 자동차, 에너지, 통신 및 기계 제조, 철강 생산 분야

우리나라의 위치

- 최근 5년간(2014~2018년) 한국 상품 점유율을 살펴보면 2017년 완전한 증가세를 보인 후 2018년에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독일의 대(對)한국 수입액 자체는 소폭 증가함(2017년 : 108.14억 달러 → 2018년 : 108.38억 달러)
 - 2018년 독일 수입 시장 내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0.84%로 2017년 대비 다소 감소(-0.09%), 총 수입국 중 24위로 전년도 수준 유지
 - 그러나 최근 5년간 독일의 총 수입액 증가율이 연평균 1.6%에 불과했음에도, 독일의 대(對)한국 수입액은 2017~2018년의 성장세에 힘입어 연평균 약 5% 증가

독일 수입 시장에서의 한국 상품 점유율

(단위 : 억 달러, %)

분류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연평균성장률 (2014~2018년)
현지국의 총 수입액	12,072	10,515	10,554	11,672	12,856	+1.6
한국 상품 수입액	89.78	72.71	70.74	108.14	108.38	+4.8
*한국 상품 점유율(%)	0.74	0.69	0.67	0.93	0.84	-
한국 상품 점유율 순위	26	27	27	23	24	-

주 : 한국 상품 점유율은 현지국 전체 수입액에서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함
자료 : GTA(2019년 10월)

지난 5년간 독일 수입 시장 점유율 상위 10개국* 현황

(단위 : %)

국가명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점유율(%)	순위								
네덜란드	12.98	1	12.71	1	12.74	1	13.06	1	13.26	1
중국	6.68	3	7.29	3	7.33	2	7.01	2	6.93	2
프랑스	7.85	2	7.56	2	7.31	3	6.62	3	6.36	3
벨기에	6.04	4	5.83	4	5.91	4	5.79	4	6.03	4
이탈리아	5.41	5	5.19	5	5.46	5	5.42	5	5.55	5
폴란드	4.59	6	5.00	6	5.19	6	5.36	6	5.51	6
체코	4.35	7	4.44	8	4.72	7	4.81	7	4.80	7
오스트리아	4.22	9	4.18	11	4.32	10	4.26	9	4.22	9
미국	4.07	10	4.76	7	4.56	8	4.45	8	4.46	8
스위스	4.04	11	4.19	10	4.39	9	4.15	10	3.94	10
일본	1.60	16	1.47	18	1.63	15	1.55	16	1.52	16
대만	0.61	29	0.70	26	0.72	26	0.75	26	0.76	26
한국	0.74	26	0.69	27	0.67	27	0.93	23	0.84	24
전체	100	-	100	-	100	-	100	-	100	-

자료 : GTA(2019년 10월)

- 2019년 5월 기준 독일의 대(對)한국 수입 10대 품목 중 상위 5위 품목은 자동차(점유율 13.09%), 전자집적회로(11.49%), 축전기(10.24%), 타자기 및 기타 사무용품 부품(6.61%), 자동차부품(4.28%)임
 - (자동차) 국내 생산모델의 신차 출시 효과 및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구매 시 정부 보조금 지원 등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환경 정책의 영향으로 친환경차 수요 증가로 수입 증가
 - * 2019년 1~8월 기준 독일 신규 등록 자동차 중 한국차(승용차)의 비율은 5.4%로 전년 동기 대비 14.1% 증가
 - ** 현대자동차 3.5%(전년 동기 대비 +9.5%), 기아자동차 1.9%(+3%)
 - (전자집적회로) 전자집적회로는 RFID의 핵심부품 중 하나로, 미·중 무역갈등 및 브렉시트 등 대외경제 악재로 인한 반도체 시장 하락세의 영향을 받아 전년 동기 대비 수입 약 22% 감소
 - (축전기) 전기자동차 확산에 따른 구조변화에 직면한 독일 자동차산업계는 2022년 전기자동차 100만 대 달성 등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며 전기자동차 생산 및 공급을 확대하는 중, 이에 따라 전기자동차 리튬이온 배터리 수요도 동반 증가

- (반도체) 미·중 무역갈등, 브렉시트 등 대외경제 악재가 해소되지 않아 독일 및 유럽 내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가운데 2019년 반도체 시장 업황은 전년 대비 하락 추세

독일의 대(對)한국 상위 10대 수입품목의 수입규모 및 점유율* 순위

(단위 : 백만 달러, %)

수입규모 순위	상품 코드 (4단위)	2017년		2018년		2019년 5월		
		수입 규모	점유율*	수입 규모	점유율*	수입 규모	점유율*	증감률
1	자동차(8703)	996	9.21	1,166	10.76	571	13.09	25.23
2	전자집적회로(8542)	1,379	12.76	1,340	12.37	501	11.49	-21.75
3	축전지(8507)	799	7.39	831	7.68	447	10.24	29.57
4	타자기 및 기타사무용품 부품(8473)	558	5.16	942	8.69	288	6.61	-8.11
5	자동차부품(8708)	340	3.15	375	3.46	187	4.28	13.74
6	반품, 교체품 등(99RR**)	176	1.63	364	3.36	142	3.25	5.69
7	컴퓨터 등(8471)	302	2.79	332	3.07	101	2.33	-32.56
8	반도체(8541)	153	1.41	263	2.43	101	2.32	-19.90
9	타이어(4011)	72	1.67	102	2.36	94	2.17	-7.51
10	축전기(8532)	28	0.67	36	0.84	71	1.64	95.41
전체	-	10,814	0.93	10,838	0.84	4,368	0.83	0.34

주1 : 2019년 5월 수입액 순위 기준 상위 10대 품목, 점유율은 각 품목별 전체 수입액 중 각 품목별 한국 제품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

주2 : 99RR : 특수 품목군으로 '반품, 교체품, 독일 정부의 소요품으로 등록된 제품, 불완전 등록 제품'이 포함되며, 별도 관리됨

자료 : GTA(2019년 10월)

주요 경쟁국

○ 중국

- (경쟁품목) 휴대폰 및 정보통신, 철강(특히 냉연 코일류, 평판압연, 저가 강종), 디스플레이, 축전지, 센서, 아웃도어 제품 등
- (주요 경쟁기업)
 - ▷ 휴대폰 : 화웨이(Huawei), 샤오미(Xiaomi)
 - ▷ 철강 : Hebei Group, Baosteel Group
 - ▷ 디스플레이 : Shenzhen Jinghua Displays Co.,Ltd.
 - ▷ 축전지 : Contemporary Amperex Technology Co. Limited(CATL)
 - ▷ 아웃도어 : Mobi Garden, Tread, Scaler
- (경쟁 동향) 2018년도 네덜란드에 이어 750억 유로로 수입국 2위를 차지한 중국은 독일 내 가장 중요한 교역 파트너
- 기존에 갖고 있던 가격경쟁력에 더해 계속되는 중국 제품의 기술 및 품질 개선으로 한국 제품과의 격차 축소, 경쟁 확대 양상으로 특히 선박, 휴대폰 등 일부 분야에서는 한국 제품의 기술력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성장

- (경쟁 이점) 한-EU FTA 체결, 아직까지 품질경쟁력이 중국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 미·중 무역전쟁으로 중국 경제 주춤 및 고객신뢰도에서 한국이 중국에 앞섬

수입규제, 비관세장벽

- 2019년 2월 EU 집행위, 철강제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최종 결정
 - 조치 대상 : 조사 대상 품목 28개 중 26개 품목
 - 조치 기간 : 잠정조치 포함 3년(최종조치 시행은 2019년 2월 2일~2021년 6월 30일)
 - 조치 내용 : 할당량(쿼터) 내 수입 물량은 무관세, 이를 초과하는 물량은 25% 관세 부과
 - 쿼터 물량
 - 2019년 7월 1일~2020년 6월 30일 : 2015~2017년 평균 수입 물량의 110.25%(일할 계산)
 - 2020년 7월 1일~2021년 6월 30일 : 2015~2017년 평균 수입 물량의 115.7625%
 - 쿼터 운영 : 각 품목의 주요 수입대상국(수입 점유율 5% 이상)은 국별 쿼터, 기타국은 일괄(글로벌) 쿼터(분기별로 운영)
- 한국은 냉연, 도금, 전기강판 등 11개 품목에서 국별 쿼터 적용
 - 잠정조치보다 쿼터총량이 증량(100 → 105%)되었고, 매년 5%씩 쿼터가 증가함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약 110%, 2020년 7월부터 약 116% 물량을 확보
 - 주요 품목에 우리나라 전용 쿼터가 설정돼 기존 수출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 가능해 대(對)EU 수출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

EU의 대(對)한국 수입규제 현황

품목	품목 분류	HS 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적용관세
실리콘메탈 (Silicon metal)	화학	280469	우회덤핑 (중국)	2006.4.20.	2010.5.20.	반덤핑 관세 49%
철강로프 및 케이블 (Steel ropes & cables)	철강 및 금속	731210	우회덤핑 (중국)	2009.8.12.	2018.4.20.	반덤핑 관세 60.4%
규소 방향성 전기강판 (GOES)	철강 및 금속	722511 722611	반덤핑	2014.8.14.	2015.10.30.	반덤핑 관세 22.5%
철강제 관연결구류 (Tube & pipe fitting of iron or steel)	철강 및 금속	730793 730799	반덤핑	2001.6.1.	진행 중 2018.1.27.~	반덤핑 관세 44%

경량 감열지 (Lightweight thermal paper)	기타	48119000 48169000 48099000 48239085	반덤핑	2016.2.18.	2017.5.3.	반덤핑 관세 : 104.46유로/t *덤핑마진 : 10.3%
철강제품 (Steel Products)	철강 및 금속	72-73류	세이프가드 (잠정조치)	2018.3.26.	진행 중 2018.7.19.~	잠정 관세 25%

자료 : EU 집행위원회(2019년 10월)

○ 비관세장벽

- 해외 수출을 위한 기본 인증 : CE, ISO/TS 16949(자동차부품), LFGB(독일 식품·생활용품·사료법, German Food commodity and Feed Law) 인증
- 기타 인증 : RoHS(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 WEEE(폐전기·전자제품 처리지침), TUEV, VDE(독일전자·전기·정보기술협회) 인증, CPNP(유럽 화장품 등록포털) 등록
- EU 신화학물질 관리제도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
- * EU, REACH 등록과 연계 하에 대응해야 하는 CLP(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화학제품 혼합물(톤수 무관)의 분류·표지·포장 규정) 규제(2010.12.1.부터)가 2015.6.1.부터 혼합물에 확대 적용 (2009년(EC) Nr. 1272/2008)
- (최근 규제 강화) 2019년 5월 EU는 화장품 원료 규제 강화 : 마스크라, 아이브로우 및 헤어 염색약 내 사용되는 몇몇 화장품 원료 중 일부*를 2019년 11월부터 역내 반입 제한 또는 금지, 역내 판매는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 2월 22일부로 금지 예정
- * 사용금지 물질 : 2-클로로-p-페닐레디아민, 황산염 및 염산염(2-Chloro-p-Phenylenediamine, its sulfate and dihydrochloride salts)

우리 기업 수출 성공사례

수출 성공사례 : 중장비 유압 어태치먼트(Beaker, Shear, Crusher etc.)(독일 수출)-S사

- 동 제품은 중장비 앞부분에 교체 부착되는 유압 어태치먼트

HS코드(6단위)	세부품목	대한(對韓) 수입 증가율(2018년)	대한(對韓) 수입 증가율(2017년)
843149	기타-유압브레이커	16.5%	12.9%

- 제품의 비교우위 : 각종 건설 용도에 따른 다양한 어태치먼트 제품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고, 고객 맞춤형 제품도 제공이 가능함. 제품 품질·가격 경쟁력 또한 보유하고 인정받고 있음

- 마케팅 Tool

필수 인증	CE, EN ISO12100-1/A1 : 2009, EN ISO12100-2/A1 : 2009, EN ISO 14121-1 : 2007, EN982/A1 : 2008, CEN/TS 13778 : 2004
성약 소요기간	4년
바이어 발굴경로	<input type="checkbox"/> Telemarketing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시회 <input type="checkbox"/> Sales Rep. <input type="checkbox"/> PR agent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
바이어 D/B	무역관 네트워크
유망전시회	BAUMA Muenchen, INTERMAT Paris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유의사항 : 동 제품의 경우 이미 단기간에는 성과를 내기 어려운 제품으로 성과가 없더라도 접촉이 있던 바이어라면 꾸준히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며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함. 전시회 부스 미팅, 방문 미팅 등 다양한 경로로 지속적인 만남은 필수. 또한, A/S나 부품 조달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유럽 내에 지사를 두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 포인트가 됨

수출 성공사례 : 친환경 건축자재(독일 수출)-사

HS코드(6단위)	세부품목	대한(對韓) 수입 증가율 (2018년)	대한(對韓) 수입 증가율 (2017년)
6809.19	Panels, Sheets, Tiles And Similar Articles, Not Ornamented, Of Plaster Or Compositions Based On Plaster, Others	9.1	-19.0

- **제품의 비교우위** : 건축자재로도 선정되었으며, 관련 인증 및 실험 성적표를 모두 취득하고 있음. 최근 친환경 건축 관련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제품이 많지 않음

• 마케팅 Tool

필수 인증	CE, 각종 시험 성적서(유해 물질 방출 자료 등)
성약 소요기간	2년
바이어 발굴경로	■ Telemarketing □ 전시회 □ Sales Rep. □ PR agent □ 기타
바이어 D/B	무역관 네트워크
유망전시회	Baumesse Muenchen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유의사항** : 유럽 특히 독일에서는 방염이 되는 건축자재를 선호함
CE 인증이 가장 기본적이고, 실내 공기 등의 이유로 다양한 시험 성적서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함

수출 성공사례 : 컴퓨터용 보안잠금장치(독일 수출)-A사

- 동 사는 바이어 B사의 관심품목 중 하나였던 컴퓨터용 보안 잠금장치를 생산하는 기업임

HS코드(6단위)	세부품목	대한(對韓) 수입 증가율 (2017년)	대한(對韓) 수입 증가율 (2018년 12월)
8301.10	컴퓨터용 보안잠금장치	218.27%	-56.64%

- **제품의 비교우위** : 바이어 관심품목과 일치했으며, 컴퓨터용 보안 잠금장치 제품의 기술력, 품질에서 우위에 있었고, 가격도 합리적이었음

• 마케팅 Tool

필수 인증	CE
성약 소요기간	1년/2017.6.(한국 소비자 수출대전 참가)~2018.(성약 달성)
바이어 발굴경로	□ Telemarketing □ 전시회 □ Sales Rep. □ PR agent ■ 기타(소비재 수출대전)
바이어 D/B	무역관 네트워크
유망전시회	없음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유의사항** : 독일 IT 관련 바이어 들은 아시아(한·중·일) IT 제품에 항상 관심을 갖고 있으며, 매년 새로운 제품을 찾고 있음. 독일 및 유럽 시장에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인증 등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가격대비 성능이 좋아야 경쟁국(중국, 일본) 제품보다 우위를 선점할 수 있음. 무역관은 해외바이어의 수요에 무역관이 관심품목과 아시아 구매담당 등을 알아내는 등 적극 대응하였고, 기업은 무역관과 협력하여 마케팅을 진행해야 독일 시장을 잘 개척할 수 있음

수출 성공사례 : 자동차부품(독일 수출)-B사

- 자동차부품(카본 세라믹 소재)

HS코드(6단위)	세부품목	대한(對韓) 수입 증가율 (2017년)	대한(對韓) 수입 증가율 (2018년 12월)
8708.30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11.7%	-6.08%

- **제품의 비교우위** : 기존 제조공정 대비 공정이 단순하고 제조비용이 낮을 뿐 아니라 초고온 환경에서 우수한 특성을 가지는 공정기법을 바탕으로 함

마케팅 Tool

필수 인증	IATF 16949
성약 소요기간	1년/2016.2.(무역관 주선)~2019.2.(성약)
바이어 발굴경로	<input type="checkbox"/> Telemarketing <input type="checkbox"/> 전시회 <input type="checkbox"/> Sales Rep. <input type="checkbox"/> PR agent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GP)
바이어 D/B	무역관 네트워크
유망전시회	없음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유의사항** : 무역관에서 독일 3대 자동차 Tier1 기업의 아시아 소싱 확대 계획을 선 입수 후 기업에게 제품을 안내하여 결과가 나온 경우로, GP를 통한 독일 메인 자동차 시장 진입에는 프로젝트 R&D 개발사항 협의, 비용문제, 샘플 오더 등 제품을 최종적으로 공급하는데 상당한 시일과 노력이 소요되므로 장기적인 접근을 통해 무역관과 협력하여 차분하게 바이어의 요구에 대응하여 시장 진출을 시도해야 함

수출 성공사례 : 금속 절삭 가공 기계(CNC선반)(독일 수출)-S사

- 동 제품은 컴퓨터 수치제어 CNC(Computer Numerical Control) 시스템을 탑재한 금속 절삭 가공 선반

HS코드(6단위)	세부품목	대한(對韓) 수입 증가율 (2018년)	대한(對韓) 수입 증가율 (2017년)
8458.11	금속 절삭 가공용 - 수치제어식의 것	42.95%	19.33%

- **제품의 비교우위** : 제품의 가성비가 높고 독일에서 인기가 높은 지멘스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독일 딜러들의 기술 대응력이 높음

마케팅 Tool

필수 인증	CE 인증, ISO 14001 : 2004, ISO 9001 : 2008
성약 소요기간	2년
바이어 발굴경로	<input type="checkbox"/> Telemarketing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시회 <input type="checkbox"/> Sales Rep. <input type="checkbox"/> PR agent <input type="checkbox"/> 기타
바이어 D/B	무역관 네트워크
유망전시회	Automechanika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유의사항** : 자동차부품 분야는 기술부분을 위해 투자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며, 현지 신속 A/S 대응이 가능한 엔지니어 배치가 시장 진출 및 점유를 위한 필수조건, 또한 현지 실정에 맞는 프로그래밍 및 솔루션 마련이 필수, 역량이 높은 딜러 발굴이 과제임

수출 성공사례 : 금전 등록기(독일 수출)-S사

- 금전 등록기(Electric Cash Register, ECR)

HS코드(6단위)	세부품목	대한(對韓) 수입 증감율 (2018년)	대한(對韓) 수입 증감율 (2017년)
8471.60	(동일 하우징 속에 기억장치를 내장하였는지에 상관없음)	55%	-3.7%

- **제품의 비교우위** : 가격은 주요 경쟁사 대비 80~90%로서 가격 경쟁력이 우수하며, 안정적인 성능과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품질 경쟁력도 보유함. 기술지원 A/S 능력도 보유하여 전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편, 현재 풀 라인업 제품 구성을 갖추고 있음

마케팅 Tool

필수 인증	CE(ErP), CE(R&TTE)
성약 소요기간	2년
바이어 발굴경로	<input type="checkbox"/> Telemarketing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시회 <input type="checkbox"/> Sales Rep. <input type="checkbox"/> PR agent <input type="checkbox"/> 기타
바이어 D/B	무역관 네트워크
유망전시회	EuroCIS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유의사항** : 금전 등록기 관련 제품의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CE 필수인증 획득이 독일 시장 진출에 필수요소로 S사는 시장진출 전에 관련 인증으로 모두 획득함. 적극적인 기술지원 능력 보유 및 현지 실정에 맞는 프로그래밍·솔루션 제공이 관건임. S사는 판매와 더불어 서비스도 제공되는 역량 있는 딜러 발굴을 통해 기술지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함

다. 투자진출

우리 기업 투자진출 동향

-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2019년 3월까지 한국의 대(對)독일 투자금액은 총 54.9억 달러 규모로 총 709개의 법인이 설립됨
 - 2018년 총 2.3억 달러로 42개사 진출에 이어, 2019년 상반기에 이미 총 4.9억 달러, 18개의 신규법인 설립, 2019년은 일부 대형 투자에 따라 크게 금액이 증가
 - 한국 기업의 대(對)독일 투자는 유럽 경제의 중심지인 독일에서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한 영업거점을 구축하고자 판매법인(GmbH) 또는 지사 및 연락사무소의 형태로 진출
 - 최근 고급인력 수급과 현지 고객지원을 위한 연구소 및 서비스센터 형태로 다양화, 또한 독일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 사례*도 증가
- * 2012년 한화의 태양에너지기업 Q-Cells 인수, 2013년 SK-Continental 합작법인 설립, 2013년 삼성의 조명기업 Novalled 인수, 2015년 나이스홀딩스의 자동차 휠 제조기업 BBS 인수 등

주요 경쟁국 투자진출 동향

- (중국 기업) 독일 기업 투자 및 M&A 동향
 - 2018년 중국은 전년 대비 14% 감소한 188건의 대(對)독일 투자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독일 투자에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미국(345건) 및 스위스(229건)를 이어 3위를 기록
- * 자료 : 독일 무역투자진흥기관 GTAI, 'FDI Reporting 2018'

- 중국 기업의 인수합병 프로젝트도 중국 정부의 해외투자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2018년 35건으로 전년 대비(총 54건) 35% 감소

* 자료 : EY, 'Chinesische Unternehmenskäufe in Europa Februar 2019'[중국의 유럽 기업인수 2019년 2월 보고서]

- 中 배터리 제조업체 CATL '2025년 年 100GWh 생산'을 목표로 내걸고 테슬라 공장의 3배 규모로 독일 튀링엔 지역에 확대 투자, 이는 독일 폴크스바겐 등 유명 OEM에서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늘어날 전망을 대비한 투자사례

○ (일본 기업) 독일 기업 투자 및 M&A 동향

- 2018년도 일본은 80건의 대(對)독일 투자 프로젝트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대(對)독일 8위 투자국가

* 자료 : 독일 무역투자진흥기관 GTAI, 'FDI Reporting 2018'

- 일본 기업의 독일 기업 인수도 2018년 29건 및 59억 유로의 투자금액으로 전년 대비(20건, 3억 유로) 각각 45%, 196% 증가

* 자료 : PWC, 'M&A-Aktivitäten ausländischer Investoren 2018'[외국인투자자의 대(對)독일 M&A 활동 2018]

- 日 전자부품 대기업 일본전산(Nidec), 2018년 독일 공작기계 및 로봇 부품 제조사인 MS-Graessner 인수를 시작으로 2019년에 Desch Antriebstechnik, Systeme+ Steuerungen 등의 공작기계 및 로봇 부품 생산 독일 기업 총 5개사 인수 계획, 인수 총액은 약 4억 유로에 달할 전망

3 한국과의 경제 교류 및 주요 경험 의제

가. 교역

한-독 교역 동향

- 2018년 기준 한국의 대(對)독일 수출은 93.73억 달러(+10.5%), 수입은 208.54억 달러(+5.6%) 기록
 - 수입이 수출을 상회하는 적자 무역이 2011년 이래 지속, 2018년 114.81억 달러
- 2019년 9월 누계 한국의 대(對)독일 수출은 총 64.64억 달러(-9.1%), 수입은 145.47억 달러(-6.4%) 기록
 - **(수출 감소)** 2019년 9월 누계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독일 경기 둔화 움직임과 더불어 일부 수요 성장 품목을 제외하고 전반적 감소세 시현
 - 신규 수요에 따른 성장세를 나타낸 자동차(+5.4%), 건전지 및 축전지(+13.3%), 자동차부품(+30.6%), 합성수지(+1.9%)를 제외한 기타 수출품목이 감소세 시현
 - 특히 수요 대비 생산 및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인하로 반도체가 -50.5% 기록, 무선통신 기기 역시 -32.5%로 큰 폭으로 감소, 이 외, 산업 경기 둔화에 따른 요인으로 기계요소 역시 -30.3%, 농약 및 의약품도 -12.4% 감소
 - **(수입 감소)** 경기둔화세가 산업 및 소비자 수요 감소요인으로 작용하며 2019년 9월 누계 수입 1위 품목인 자동차(-7.2%)를 비롯해 자동차부품(-9.1%), 측정제어분석기(-12.2%) 등 10대 주요 수입품목에서 감소세 시현
 - 한국 반도체 수출 감소세에 따른 반도체 제조용 장비 역시 10위권 밖으로 밀려나며 -24.8% (13위) 기록
 - 반면, 농약 및 의약품(+11.3%), 전자응용기기(+22.2%), 반도체(+4.7%) 등의 품목은 상승세를 이어나감

대(對)독일 교역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

분류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9월	
		증감		증감		증감		증감
수출	6,443	3.6	8,484	31.7	9,373	10.5	6,464	-9.1
수입	18,917	-9.7	19,749	4.4	20,854		14,548	-6.4
수지	-12,474	-	-11,265	-	-11,481		-8,084	

자료 : 무역협회(2019년 10월)

우리 기업을 위한 시사점

- 미·중 통상 분쟁, 브렉시트 등으로 독일 경제가 둔화되고 있으나, 독일 완성차 기업이 수백 억 유로를 투자하는 미래 자동차 산업에서 수출 기회가 지속적으로 발생
- 아울러 독일은 5G 보급을 통한 IT 인프라 선진화, CO₂ 감소를 위한 친환경·신재생산업 개발에 총력을 다하고 있어 관련 상품이 유망할 것으로 전망
- 독일에서 K-뷰티(화장품) 수출이 5년 만에 11.5배 증가했으나 시장점유율 1% 미만, 성장 잠재력 높음

나. 투자

우리 기업 투자진출 동향

- 한국 기업의 대(對)독일 투자는 2019년 6월까지 투자금액 총 54.9억 달러 규모이며, 총 709개의 법인·지사가 설립되어 있으며, 최근 투자규모는 증가세
 - 한국 기업의 독일 직접투자금액은 2019년 상반기에 4억 9,4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총 8,600백만 달러) 474% 증가
 - 신규 독일 법인 수는 2019년 상반기 기준 18개로 전년 동기 기록인 25개 대비 7개가 감소 하였으나, BREXIT 영향 및 지속되고 있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에 따라 한국 기업의 대(對)독일 직접투자 증가세 유지 전망

한국의 대(對)독일 투자 추이(신고 기준)

(단위 : 억 달러)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6월	누계 (1980~2019년 6월)
금액	2.8	1.5	2.7	0.9	2.2	1.4	2.1	2.3	4.9	54.9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2019년 10월)

- 투자자 규모별 독일내 진출기업 동향
 - 대(對)독일 직접투자 신고건수에서 중소기업이 2019년 상반기 총 40건으로 총 신고건의 51.9%를 차지하여 대기업(총 33건) 비중을 상회
 - 중소기업의 대(對)독일 투자금액도 2019년 상반기 3억 6,500만 달러에 달하여, 총 투자금액의 73.9%로 투자규모 면에서 상당한 우위를 차지
- 업종별 대(對)독일 직접투자 동향
 - 업종별 투자규모 관련, 제조업 비중이 2019년 1분기에 총 투자액의 85.2%를 차지하여 가장 높았으며, 그 중 유압기기 관련 총 3억 4,700만 달러 규모의 투자 성약
 - 이어 금융 및 보험업은 전년 동기 대비 940% 증가했으며(500만 달러→ 5,200만 달러),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투자도 전년 동기 대비 400%(100만 달러→ 500만 달러)로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대(對)독일 투자가 크게 증가

우리 기업 투자진출 성공사례 및 시사점

- **(바이오) 셀트리온헬스케어, 독일에 바이오의약품 본격 유럽 시장 공략 돌입**
 - 바이오의약품 분야의 선두기업인 셀트리온 그룹, 유럽 시장 점유율 및 매출액 증가
 - 양호한 임상데이터로 증명한 약품의 효능과 유럽 입찰 시장에 필요한 가격경쟁력 및 브랜드 가치로 혈액암 치료제 ‘트룩시마’(2017년 2분기)와 유방암·위암 치료제 ‘허쥬마’(2018년 2분기)를 유럽 항암제 시장에 출시
 - * 2019년 1분기 말 트룩시마 시장점유율은 37%, 허쥬마 13%로 증가
 - 기존에는 셀트리온 경영진이 주요 유럽국가(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의 파트너 기업을 직접 방문하며 마케팅 경쟁력 제고에 주력하였으나, 최근 수익성 개선을 위해 램시마 SC에 대한 직접 판매 체제 구축 진행 중
 - 특히, 총매출의 84%를 차지하는 유럽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19년 1월 셀트리온헬스케어의 단독 독일 법인을 프랑크푸르트 인근에 설립
 - **(시사점)** 유럽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기존 파트너사를 통한 유통구조에서 램시마SC 등의 유럽 내 승인이 가까워지면서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적극적인 직접 판매 마케팅 전략에 따라 판매법인을 확대하여 한국 바이오기업의 성공적인 진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
- **(스타트업) 축구데이터분석 스타트업 B사, 독일 진출 1년 반 만에 직원 수 2배 성장 및 투자유치 성공**
 - B사는 축구 경기 및 훈련 영상을 고화질 카메라로 자동 촬영하여 축적한 데이터로 AI 분석, 영상편집 툴을 제공하는 스타트업
 - 유사한 업체도 있으나, 동사의 특징은 기존에 별개로 제공되었던 영상촬영, 영상편집 및 데이터 분석을 하나의 솔루션으로 통합한 점
 - 2017년 독일 함부르크에 진출한 후 1년 반 만에 직원 수는 2배 이상 증가했으며, 현재 독일 분데스리가 유수의 축구클럽에서도 동사의 서비스를 사용 중임
 - 동사는 독일에서의 경험을 발판으로 오스트리아, 스페인, 노르웨이는 물론 미국, 태국까지 사업 확장 중
 - 투자유치를 발판으로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주요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도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확장할 계획이 있음
 - **(시사점)** 독일 및 유럽 시장의 잠재성에 대한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현지 진출-프로부터 아마추어까지 축구 저변이 넓은 독일 등 유럽지역은 B사에게 있어 주요 타깃 시장이었으며, 동사는 독일 진출 후 시장성을 증명하여 100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에 성공할 수 있었음

다. 주요 경제협력 의제

수소경제 로드맵 협업 네트워크 구축

- (수소경제 실현의 공동 이슈) 2019년 1월 우리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와 더불어 이에 편승한 다양한 활성화 정책 추진 예정, 수소에너지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며 전후방 경제적 산업적 파급효과 기대
 - 독일 정부 역시 수소를 에너지전환과 기후보호를 위한 핵심 역량 집중 분야로 육성 계획 추진, 2019년 말 세부 계획을 포함한 '수소전략' 발표 예정
 - 교통, 산업, 건물, 전력 공급 분야에 적용 예상
- (수소연구 선도) 수소 시대를 맞아 독일 기업은 선도적 역할 목표, 중요한 성장 시장에 역량 집중
 - 선도기업인 지멘스와 프라운호퍼 연구소(IWU, 공작기계 및 성형기술 연구소)와 수소 연합 결성
 - 독일 괴를리츠(Goerlitz)에 향후 수소연구를 위한 실험실을 중심으로 한 혁신 캠퍼스 조성, 전해질 기술 개발 연구(일레로 잉여 풍력발전에너지를 그린 수소로 전환), 이 외에도 자동화와 혁신 소재, 공정 기술 개발에도 활용 예정
 - * 지멘스 에너지연구팀장 슈넬러(Armin Schnettler), 수소경제는 차후 수십 년 내 글로벌 성장 테마일 것, 지멘스는 이러한 성장 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입지 구축에 총 3억 유로 투자, 향후 5년간 100개의 고급 일자리 창출 전망
- (수소차 기술협업) 재편성되는 글로벌 미래형 자동차 시장 내 판도 변화에 대응 및 수소차 경쟁 대열 진입, 현재 글로벌 완성차 기업 간 합종연횡 활발*
 - * BMW-도요타, GM-혼다, 현대·기아-에어리퀴드, 닐, 니콜라, 쉘, 아우디 등
 - ** 하이브리드 → 전기차 → 수소연료전지차로 수소차가 친환경차의 최종 종착지가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이견이 많지 않은 상황, 특히 한국은 수소차 보급을 2018년 1,800대 → 2040년 약 620만 대로 확대 예정
 - 이미 글로벌 완성차 기업은 글로벌 컨소시엄*을 통해 상용 수소전기차 확산 가속화 및 대용량 수소충전 기술 협업 진행
 - * 지난 2017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출범한 현대차, 도요타, 혼다, BMW, 벤츠 등 13개 글로벌 완성차 기업 간 연합인 수소위원회는 2018년 9월 3차 총회에서 수소가 디지털 혁명을 이끌 핵심 에너지로 급부상할 것이라는 비전 제시, 맥킨지 연구 분석 결과 2030년까지 전 세계 수소연료전지가 550만 개에서 최대 650만 개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
- (국제 표준화 협업) 수소경제 산업생태계 조성과 글로벌 시장을 장기적으로 선도하기 위해서는 안전기준을 위시해 시장 표준화 공동 협업이 매우 중요, 한국은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4대 수소기술 국제표준 선도국가로 도약 목표
 - * 2016년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 제안한 한국의 수소 분야 국제표준(마이크로 연료전지)이 2019년 6월 정식 채택, 국내 1회 수소 국제 표준 획득, 2030년까지 15건 이상 국제표준 제안 예정
 - * 수소기술 연구개발(R&D)을 다각도로 지원하는 한편 수소국제표준포럼(2019년 6월)·수소기술총회(2020년 12월) 등 대규모 행사 서울 개최 예정, 국제표준화 강화 분위기 조성

- (공동 R&D 협업) 전자용 금속자원 대체재* 개발을 위한 수소기술 연구개발 및 시험·인증 기반 마련
 - * 주요 핵심 소재인 코발트, 리튬 등은 한정된 자원으로 공급이 제한적
 - 기관 또는 기업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모색(신소재 테스트, 공동프로젝트 및 사업화 등)
- (소재·부품 공급네트워크 다변화) 특히 수소차 및 전기차 일부 핵심소재의 대일(對日) 수입 의존도가 높은 편으로 기술 자립과 함께 국제 공급네트워크 다변화를 위한 국가 간 공조 하 리스크 감소 노력 중요

한-독 R&D 기관의 국제공동연구개발 프로젝트 추진·지속

- (R&D 협력) 한-독 정부 간 합의 혹은 유럽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컨소시엄을 구성, 한-독 R&D 협업 기회 모색
 - * 유레카(45개국), 유로스타2(36개국), Horizon2020(28개국)의 회원국이 있으며, 2019년에는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등이 참여, 매년 변동 가능
 - (중점 협력 분야) 독일은 로봇 개발*에 양자협력 R&D를 추진 노력
 - * 노인 요양용(Nursing robot, Elderly care robot), 테라피(Robot therapist), 사회성(Social robot with artificial emotion and intelligence), 협력형-재난 서비스(Collaborative robot) 등 로봇 개발
- (중소기업 R&D) 기술 혁신위해 2019년 1월 제6차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한-독 R&D 협업 기회 제공
 -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BMWi), 중소기업의 R&D 지원을 위해 중앙혁신프로그램-중소기업(Zentral Innovation Mittelstand, ZIM) 설립, 경쟁력 강화 및 중소기업 간의 협력 확산

국내 스타트업의 독일 진출지원

- (배경) 2018년도 독일 스타트업의 투자유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였고, 모든 연방주가 스타트업 생태계 육성 정책에 적극적
 - 독일의 스타트업 기업들은 2018년 전년도보다 7% 성장한 약 45억 9,200만 유로의 투자유치를 기록하였고, 특히 전자상거래(E-Commerce), 핀테크, 소프트웨어, 모빌리티(Mobility) 등 분야에서 강세를 보임
 - 현재 VC들의 활동이 왕성하며, Project A, Acton Capital Partners 등과 같이 이미 국제적인 VC로 성장한 경우도 많음
 - 베를린은 2018년 네스트픽 조사에서 밀레니얼 세대의 창업자들 사이에서 가장 매력적인 도시로 꼽혔고, 2019년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계층 보고서에 따르면, 베를린, 뮌헨 등 독일 2개 도시가 30위권에 진입함
 - 독일은 스타트업 지원을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약 309개의 기술 및 창립센터, 121개의 액셀러레이터, 132개의 코워킹스페이스, 57개의 인큐베이터, 141개의 창업·사업계획 경시대회 운영

- 바이에른 주에서는 Gruenderland Bayern이라는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각 지방 정부 별로 스타트업 산업 조성에 적극적인 추세임
- (자금조달) 창업에 필요한 자금조달 방법이 다양
 - 대기업들도 투자 관심 분야 관련 차세대 신기술 확보를 위한 자체 CVC 설립이 활발하고 자금 지원을 위한 액셀러레이터(VW Data : Lab-Volkswagen, Freiraum-EOS 등) 프로그램 이용 또는 창업보육센터 운영으로 사무 공간·멘토링 지원
 - 독일 정부는 연방경제기술부와 정책금융기관인 KfW를 통해 ERP Gruender kredit-StartGeld 등 창업기업을 위한 다양한 대출 지원 프로그램 운영
 - 또한 High-Tech Gruenderfonds는 독일 연방 기금 운영을 통해, 고도기술을 보유한 신규기업의 제품 프로토타입(Prototype) 개발을 위한 자금 지원
 - 독일 연방 정부는 ‘기업가 노하우 촉진(Foerderung unternehmerischen Know-hows)’ 프로그램을 통해 특히 신설기업,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자문 비용 지원
 - 기술투자가 중요한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독일은 2025년까지 GDP의 3.5%인 1,740억 유로를 AI 등 주요 R&D 프로젝트에 투자할 계획
- (공동협업 기회) 투자유치, 성공전략 공유, 해외진출 멘토링 등 다각화 진출전략 마련하여 양국 간 원-원 기회 창조 필요
 - 글로벌 기업의 스타트업 발굴·투자결정 전략 제공, 스타트업의 피칭기회 등을 제공하여 우리 기업의 투자유치 가능성 증가
 - 국내 유망 스타트업 초빙 및 성공사례 공유를 통해 최신 스타트업 발전방향 제공 및 글로벌 기업 수요 연계, 상호협력을 통한 현지 진출전략 수립
 - 독일에서의 스타트업 지원사업 및 시장진출 설명 등을 포함한 멘토링 지원



Ⅲ. 진출전략

독일 인더스트리 4.0과 한국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의 정책적 이슈에 편승해 차세대 기술 핵심 부품 중심의 신성장 시장과 실수요 공략 등 다양한 시장 수요 발굴 및 소비재 수출품목 다변화 노력 필요

1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독일 시장 SWOT 분석>

<div style="border: 1px solid #0070C0; border-radius: 10px; padding: 10px; background-color: #0070C0; color: white;"> <p>S</p> <p>강점 (Strength)</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선도 기업 포진 및 높은 수출 경쟁력 • 제조업의 사회적 위상이 높고, 직업교육, 시스템, 핵심부품 분야 국제 비교 우위 • 고용안정을 토대로 한 유럽 내 최대의 소비 시장 • 디지털화로 온라인 유통 시장 지속 발전 추세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709238; border-radius: 10px; padding: 10px; background-color: #709238; color: white;"> <p>W</p> <p>약점 (Weaknes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인프라 및 기술 부족, 일부 SW 기업 제외, IT 산업 역량 부족, 특히 전문인력 부족 심화 • 독일 디젤 스캔들 및 EU 배기가스 규제 강화 등으로 자동차 관련 기업의 추가 부담 가중 • 보수적 성향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신성장기술 투자 지연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4CAF50; border-radius: 10px; padding: 10px; background-color: #4CAF50; color: white;"> <p>O</p> <p>기회 (Opportuni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은 R&D 투자 비중 • 전방위적 산업계 디지털화 진행으로 다양한 신수요 창출 • 민·관 주도의 성장동력 강화 노력 하에 다양한 연관산업 발전 기대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9575CD; border-radius: 10px; padding: 10px; background-color: #9575CD; color: white;"> <p>T</p> <p>위협 (Threa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중, 미·EU 무역 분쟁 장기화에 따른 주요 기간산업 경기 및 투자둔화 •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 고수, 디지털시대 도입 느림 • 데이터 보호 및 안전 의식이 높아 빅데이터, 스마트 기술 등 신성장 산업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div>

전략방향	세부전략	진출전략
SO 전략 (역량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부품 및 차세대 기술 핵심 산업 부품을 위시한 신성장 수요에 부응하는 제품 개발 및 신수요 발굴 • 독일 기업의 역외 아웃소싱 확대 기회 활용 	신성장 시장 선제적 진출 기반 구축
ST 전략 (강점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eauty 등 트렌드에 편승해 유통 확대 및 공략 품목 다변화 	품목 다변화 및 K-Beauty 붐 유지
WO 전략 (기회 포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성장 및 고부가가치 시장 개척 및 표준화 및 R&D 협업 강화 • 주요 산업별 실수요에도 적극 대처 	시장 선점 공략 및 표준화 선도
WT 전략 (위협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요인에 따른 경기부진 요인 극복 • EU 환경규제 지속 대응 	리스크 모니터링 및 규제대응 강화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2-1. 미래 자동차 신성장 시장 조기선점 기회 노려야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경기둔화 움직임에도 미래자동차 시장 투자 및 시장 내 대대적 변화 지속
- 전기차 중심의 친환경자동차 시장과 자율주행 기술 적용 의무화 시행 압박 등으로 시장 재편 예고
 - * 2022년 5월 이후 신규 출시 차량모델에 자율주행 기술 보급 의무화 전망
 - 관련 신소재 부품, 경량화 엔지니어링 부품, 수소차와 전기차 및 무인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부품 시장 공략을 위한 부품 개발 및 시장 판로 개척에 역량 집중 필요
- 특히 부품업체 제품 포트폴리오 조정 및 유연 대응 중요
 - 부품업체 내에도 판도 변화가 예상되며, 시장의 트렌드에 편승한 구조 및 생산 포트폴리오 조정 필요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친환경차 및 자율주행 기술 확대 보급에 편승해 새로운 진입기회 창출

- **(밸류체인 변화)** 2019년 이래 주요 완성차기업은 E-모빌리티 자동차 개발 및 출시에 역량 집중으로 신규 부품 수요를 중심으로 밸류체인 변화 가시화

주요 완성차 기업의 친환경차 출시 계획

기업명	생산계획	기타
폴크스바겐(V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까지 총 2,200만 대 생산 계획 · 2028년까지 70개 전기차, 30개 하이브리드 모델 공급 계획 	2040년 이후 모든 내연기관차 생산 중단 예정
Mercedes-Benz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까지 총 10개의 순수 전기차 모델 출시 	E-클래스, C 클래스 등 중형급 전기자동차 개발 프로젝트 수행 중
BM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25개의 전기자동차 공급 예정 	CEO가 전기자동차 판매 비중을 매년 최소 30% 확대 촉구
Aud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까지 30개의 전기자동차 모델 출시 계획 · 20개가 순수 전기자동차, 나머지는 하이브리드 	-

자료 : 기업 홈페이지 및 주요 언론(Handelsblatt, Automobilwoche 등)

- **(수소차)** 차세대 친환경차 시장에서는 전기차와 수소연료전지차가 서로 보완적인 역할 기대, 시장선도를 위한 기업의 물밑 작업 개시 양상
 - * Audi, Bosch, ElingKlinger, Mahle, 콘티넨탈 등 수소연료전지차 관련 기술 개발에 역량 집중, 독일정부 차원에서도 수소전략 추진 결정, 2019년 말 최종 전략콘셉트 발표 예정
 - * 독일 정부는 2020년까지 수소충전소 100개 준공 목표(2019년 6월 기준 총 71개 완공)
- **(자율주행 기술 보급 의무화 전망)** 2022년 5월 이후 신규 출시 차량모델에 자율주행 상용화 기술을 중심으로 한 각종 안전장치 의무화 시행 예정에 따른 새로운 진입 기회 발생
 - 관련 신소재 부품, 경량부품, 수소차와 전기차 및 무인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부품 시장 공략을 위한 부품 개발 및 시장 판로 개척에 역량 집중 필요
 - * 2019년 11월 KOTRA 프랑크푸르트 GP 행사 개최 예정, 벤츠(Mercedes-Benz), 오펠(Opel), BMW, 엘링클링어(ElingKlinger), PSA, E.GO 등 글로벌 자동차 및 부품기업 참가 예정(50개사 규모)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EU의 환경 규제 대비 필요) EU의 CO₂ 배출 기준 강화에 따른 대응 강화
 - EU 형식규격 Euro 6의 전 차종 확대 전망에 따른 국내 기업의 적절한 사전 대응 중요
- (전략적 대응) 시장의 재편 기회 적극 활용해 자체 공급사슬의 유연성과 역량 개선 필요, 전기차 및 자율주행차로의 기술 전환은 부품업체에도 대대적인 변화 초래
 - (기술력으로 시장 진입 가능) 기존의 내연기관 부품 공급은 완성차, 부품 제조 계열사 및 T1, T2 등 협업이 매우 중요해 신규 기업의 시장 진입에 큰 장벽으로 작용했으나, 전기차 내부 구조는 간단하고, 사용 부품 수가 적어 진입 장벽이 낮은 관계로 기술력으로 신규 시장 진입에 상대적으로 용이
 - (친환경 전기차 또는 수소차 등 미래형 자동차부품) 배터리(특히 2차 전지), 연료 탱크, 충전센서 및 충전인프라 제품, 케이블, 인버터·컨버터, 전기차용 공조부품, 수소차 핵심부품(막전극접합체(MEA) 및 스택) 등
- (시장 공략 적기) 자율주행 기술 보급 확대를 앞두고 신시장 개척 적기
 - 유관 품목의 경우 독일, 미국 기업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나, 수요 확산 전망에 따라 국내 기업의 시장 공략 적기
 - 국내 기업 역시 관련 기능 제품 및 부품 시장을 타깃으로 시장 확대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이와 연관된 센서 및 SW 분야의 기술 개발이 중요한 만큼, 향후 자율주행차량 관련 유관 기술 시장 보급 확대에 긍정적 영향 기대
 - (무인 자율주행차 관련 제품) 각종 센서, 무인 차량용 자동 운전시스템, 차량보조 콘셉트(차선 이탈경보장치(ADAS) 등), 안전모니터링 시스템, 차세대 지능형 카메라 시스템, 차량 간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및 차량과 도로 인프라 사이의 정보 교환 시스템 관련 솔루션, 고효율 마이크로 컨트롤러, 첨단 모바일 부품 등
- (기술 국산화) 대(對)일본 수입 의존도가 높은 전기차 및 수소차 부품의 국산화를 통해 기술 자급화 및 대체 공급선 마련 노력 병행 필요

바이어가 알려주는 업계 트렌드

다임러(Daimler) 개발부 총괄 Mr.S는 2019년 9월 프랑크푸르트 국제모터쇼 시 새로운 플랫폼 전략을 발표하고 다임러의 전기차 기업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며, 2030년 다임러에서는 순수 전기차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5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

2-2. 공급 품목 다변화와 'K-Beauty' 브랜드화로 K-Beauty 붐 지속 유지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유럽 최대의 화장품 시장인 독일의 입지를 최대한 활용
 - * 2018년 독일 화장품 시장 138억 유로, 총 EU 시장의 17.8% 차지
- 독일 내 K-Beauty 붐에 편승한 대형 유통망 내 입지 구축 및 공급 품목 다변화가 중요
 - * 마스크팩이나 자연성 기초 화장품 외, 모발케어, 스파용품 및 미용용품 등으로 진입 기회 확대 모색
- 차후 K-뷰티 붐에 편승해 식품류나 소형 가전을 위시한 기타 소비재 시장 수요 공략 확대
 - * 국내 식품류나 소형 가전에 대한 선호도 증가 양상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Green&Clean) 독일 국제 천연화장품 전시회(Vivaness)에 따르면, 독일 천연화장품 시장은 유럽 내 최대, 전 세계 미국에 이은 2위 시장, 2018년 총 매출은 13억 유로로 증가(전년비 +5.5%), 화장품 시장의 신성장 동력 역할(총 시장의 9.2%)
 - * 시장의 70%이상은 Dr. Hauschka, Weleda, Lavera, Logona가 점유하고 있으나, 미즈온, 화미사, Dr. Jart+, Benton 등 한국 브랜드도 시장 진입에 성공
 - 글로벌 트렌드 'Green&Clean'에 편승한 'Natural Beauty' 트렌드 확산, 관련 제품은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중심으로 인기리에 판매, 특히 천연성분의 화장품을 찾는 젊은 세대가 주 고객군으로 주요 화장품 업계 내 2025년까지 현 시장 규모의 두 배 성장 전망
- (K-Beauty 브랜드화) 독일은 EU 최대의 화장품 시장으로 글로벌 화장품 제조사의 경쟁이 매우 치열한 시장이나, 한국 화장품의 브랜드화 본격화
 - 한국 BB크림이나 마스크팩 열풍에 이어 클렌징 제품 및 기초 화장품 수요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K-Beauty' 또는 'Korean Beauty' 자체가 브랜드화되어 국내 노네임 중소기업의 해외진출도 눈에 띄게 확대*
 - * 독일 온라인 전문 유통기업 Z사에서는 'Korean Beauty' 라는 별도의 상품 카테고리 하에 총 15개의 한국 화장품 브랜드의 188개 제품 판매 중
 - * 2018년 11월 이래 독일 L사는 잉골슈타트(Ingolstadt)에 K-Beauty-House 개점, 한국 화장품의 브랜드화 본격화, 2019년 뮌헨 2호점에 이어 10월경 프랑크푸르트, 베를린, 만하임, 뒤셀도르프 등에 총 7개의 K-Beauty-House 개점 예정, KOTRA가 국내 화장품 브랜드 연결 지원
 - 시장 진입 전 CPNP 인증 취득 등 진입 장벽에 따른 부담이 큰 편인 관계로 국내 중소·중견기업에게는 시장 문턱이 매우 높은 편이나, 국내 대형기업 보급 확대 및 정부의 CPNP 인증 지원 사업 시행으로 예전 대비 진출 시 큰 도움
- (첫 한국관 전시) 2019년 3월 독일 '뷰티 뒤셀도르프(Beauty Duesseldorf)' 전시회 내 'K-뷰티' 트렌드 확산으로 한국관 첫 신설
 - 스킨케어, 헤어, 네일, 미용용품 등 다양한 분야의 총 15개사 참가

- 동 전시회 참가를 통해 독일에서의 K-Beauty 트렌드에 편승하여 국내 화장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국내 브랜드의 인지도 제고 기회 마련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유망) 독일 화장품 업계 내 트렌드에 힘입어 마스크팩이나 천연화장품 외에도 피부 리프팅, 주름 또는 지방제거 관련 미용기기 및 제품*, 고기능성 앰플, 다양한 하이알루론산 제품, 탈모 방지용 샴푸 또는 탈모 케어 제품, 미용소품, 화장품 용기 등에 높은 관심도 확인

* 독일 성형 및 시술 시장은 연 25억 유로로 추정되며, 2017년 독일 내 성형시술 건수 총 70만 건

바이어가 알려주는 유망상품

독일 주요 면세점인 Heinemann의 구매담당 Ms.F는 2017년 초부터 한국산 얼굴 마스크 및 토니모리의 판다 제품을 판매하며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고 전함. 한국 화장품은 스킨케어 제품이 다양하고 피부톤이 맞지 않는 색조보다는 기초 화장품 수입을 더 선호하는 편이라고 추가 설명

- (공급선 다변화) 대형 온라인 공급선(Amazon)이나 TV 홈쇼핑, 점진적으로 코스메틱 스튜디오나 호텔, 미용실, 네일 스튜디오, 약국 등 미개척 유통 분야 내 수요 지속 발굴 중요
- (브랜드 포지셔닝) 한국 제품이 대거 공급되면서 브랜드 포지셔닝의 중요성 증대
 - 'K-Beauty'는 많이 알려져 있으나 개별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는 부족한 편, 매력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홍보하며 타제품 대비 차별화도 중요
 - * 특히 유관 전시회나 다양한 기획 이벤트, 인플루언서 등 다양한 통로를 이용한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통합 마케팅 추진 필요
- (법령 개정) EU의 화장품 원료 개정안 준수 및 우리 기업의 면밀한 모니터링 필요
 - * 마스크라, 아이브로우 및 헤어 염색약의 원료 중 2-클로로-p-페닐레디아민, 황산염 및 염산염의 시장 반입을 2019년 11월 22일부로, 역내판매를 2020년 2월 22일부로 금지, 비등방지제에 사용되는 크림바졸의 사용을 0.2~0.5%로 제한(2019년 11월 27일 적용) 및 자외선 차단제에 사용되는 디페닐트라진 5%까지 허용(2019년 5월 22일 적용)
- (소비재 연계) K-Beauty에 대한 관심도 및 선호도 증가세에 편승한 식품류나 기타 소비재 시장 진출 확대 기대
 - * 독일 내 한국 셰프의 창업 사례 : M 레스토랑, 프랑스에서 가장 권위 있는 레스토랑 가이드 '고미요'에서도 높은 평가 및 2018년 'Gourmet Award'(독일 일간지 Sueddeutsche Zeitung이 격년으로 뮌헨 소재 혁신 콘셉트를 가진 레스토랑에 수여) 수상 등 한식의 보급 및 고급화에 기여

2-3. (조선기자재) 친환경 기술과 친환경 기자재 시장 집중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환경규제 강화로 조선업계 新투자·수요 예상
 - * 독일 선사 및 조선업체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친환경 선박에 투자할 전망
 - * 친환경 조선기자재 수요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으로 시장 선점 필요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조선업계의 친환경·스마트화 가속

- (친환경) 환경규제 강화로 선박의 친환경·대형 선박 시대 도래
 -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양연료 황함유량 규제 강화* 및 미국해안경비대(USCG)의 평형수 처리 설비 설치 의무화 규정 마련으로 친환경 선박 전환 시급
 - * 모든 선박의 황함유량(SOx) 0.5% 이하 선박연료유 사용 의무화(2020.1.1. 시행),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 : 5천 톤 이상 선박, 연료유 사용량 보고 의무화(2019.1.1. 시행)
 - (대형화) 환경규제로 탈황장치(스크러버) 장착과 LNG 연료 추진선 사용 불가피, 대형선에게 유리
 - * 대형 선박일수록 연비효율이 높고 스크러버 설치와 LNG 연료 추진선을 위한 설비장착 공간 확보, 규모의 경제성과 연비 효율성 측면에서 선박의 대형화 전망
- (스마트화) 선박의 IT 기술 도입, 조선기자재 자동생산체계 구축을 통한 공정 최적화 기술 개발 집중으로 조선업계의 디지털화
 - 최근 전시회에서 조선기자재의 디지털화 및 항만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물인터넷 기술 도입 등이 집중 논의됨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친환경) 환경규제 강화로 관련 신규 비즈니스 창출 기회 마련 가능
 - 엔진 배기가스 배출 저감장치, 평형수 처리장치 등 단기적으로 디젤엔진 선박에 추가되는 오염방지 장치의 수요 증가 예상, 선제적 시장 선점 필요
 -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전 세계 최다 미국 형식승인 획득, 세계 시장에서 국내 제품의 국제경쟁력 우위 강화
 - * 우리나라는 10개 업체의 17개 선박평형수 처리설비가 IMO의 승인을 획득(전 세계 최다)
- (스마트화) IT 기술을 융합한 스마트 선박 시장 선점
 - 독일 조선소의 건조 비중은 여객선이 57%로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
 - 크루즈선은 선가가 동급 일반화물선의 5.2~19.6배에 이르는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선종인바 인공지능 및 IoT 기술의 크루즈 산업 도입*으로 관련 기술을 보유한 한국 기업 진출 노력 필요
 - * 센서, 연결 장치, 인공지능 및 클라우드 컴퓨팅 등 첨단 기술을 이용하여 크루즈선에 테마파크 이용, 객실 열쇠, 비용 지불, 기타 서비스를 연결하여 작은 스마트시티를 구현

2-4. (항공산업) 차세대 기술 트렌드 수요를 반영하여 절충교역 제도를 활용한 독일 항공산업 시장 진출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세계적으로 민항항공기 수요증가에 따른 유럽지역 생산 항공기 판매실적 증가 예상
- * 2035년까지 유럽 내 예상 항공기 생산대수는 7,570기로 북미, 아시아지역 다음으로 항공기 생산 활발
- * 항공 부품 시장에서도 기존 항공산업이 발달한 미주와 유럽을 벗어나 아시아권과 같은 신규 지역으로부터의 글로벌 아웃소싱 비율 확대 예상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주요 산업 기술 집약) 독일 항공산업에 전자전기, 로봇, 전자제어 등 주요 산업들의 기술 집약화
 - 항공기 생산 및 운영부터 항공기 유지보수(MRO)까지 전 분야에 전자전기, 로봇 등 주요 분야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
 - 특히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상조건과 같은 항공기 운영환경 변화에 따른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이나 공항 내 정체 상황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기내 탑승 시간을 줄이는 등의 효과적인 공항 내 지상운영 서비스 가능
- (RSP* 파트너십 확대) 공정 초기단계부터 글로벌 항공기 제조사와 항공기 부품 제조사 간 공동 개발 방식의 RSP 파트너십 체제 지속 확대
 - * Risk Sharing Partner
 - 글로벌 항공업체의 경우 이런 RSP 파트너십을 통해 제품 초기 생산 비용을 절감 및 파트너사와의 공동개발을 통해 제조에 필요한 Lead-Time 단축 효과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절충교역* 제도) 전 세계 항공기 수요의 증가에 따른 항공정비 MRO 시장 동반 성장 예상에 대해 절충교역 제도를 활용한 진출전략 수립 필요
 - * 무기 또는 장비 등을 구매할 때 국외의 계약으로 상대방으로부터 관련 지식 또는 기술 등을 이전받거나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역
 - 항공기의 경우 지속적인 유지 보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안정적 이윤 창출이 가능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로의 MRO 시장은 향후 지속 성장 예상
 - 절충교역 제도를 잘 활용할 경우, 글로벌 기업과의 직접 거래가 가능하여 향후 자사 신뢰도 구축 및 시장 진출 확대에 용이
- (차세대 기술 트렌드) 항공기 환경규제 영향에 따라 연료절감, 복합소재, 고효율 엔진 기술 개발 등 친환경 기술 분야에 수요 확대 예상

- 특히 RSP(Risk Sharing Partner)방식의 제조체제 확대에 따른 글로벌 항공기 제조사들의 친환경 기술 기반 제품 수요 파악이 중요
- 기체 경량화를 위한 탄소 복합재, 티타늄 등 경량 신소재 분야에서의 수요 확대가 예상되며, 3D 프린팅 기술 활용을 통한 항공부품 제작을 통한 제품 생산 확대 예상

3 한-독일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3-1. 5G 및 스마트·융복합 산업 등 신사업 협력 기반 구축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한국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 성공 후 시장 선점 기회 모색 중
- 독일은 5G 관련 후발주자로 '5G 이니셔티브(5G Initiative for Germany)' 전략 하 선도 경쟁에 참여하기 위한 노력 박차
 - 독일은 2019년 6월 5G 주파수 경매 완료 후 5G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협업 및 제품·서비스 수요 확대 앙상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차세대 5G 선도 경쟁 본격화

- (5G 상용화 선도 경쟁 가시화) 한국은 세계 첫 5세대(5G) 네트워크 상용화에 성공, 도입 2달 만에 5G 가입자 100만 명 돌파 및 5G 기지국 확산 추세
 - * 미국, 영국, 스위스, 호주, 필리핀, 홍콩 등 글로벌 경쟁 가시화 전망, 2025년 상용화 국가가 24개로 증가 전망
 - 독일은 후발 주자*로 독일 정부는 2025년 독일 내 5G 네트워크 구축 및 서비스 활성화 노력, 5G는 스마트 모빌리티, 4차 산업혁명, 스마트 농업, 스마트 그리드, e-헬스, 미디어 등에 높은 활용도 전망
 - * 독일 가구 중 96%가 4G망에 연결 되었으나, 독일 무선통신 사용자 중 LTE(4G) 사용비율은 30~40%에 불과, 2019년 7월 독일의 무선통신 다운로드 속도는 33.32Mbit/s로 조사 50개국 중 42위에 불과, 한국은 1위(97.44Mbit/s)
 - 2019년 7월 도이치텔레콤, 보다폰이 5G 상용화를 시작하며 2020년 말까지 20개 이상의 대도시를 5G망에 연결하겠다고 선언
- 2016년 9월 독일정부는 '5G 이니셔티브(5G Initiative for Germany)' 전략 수립* 및 2019년 6월 11일 5G 주파수 경매입찰 마감(입찰가 65.5억 유로)**
 - * 2022년까지 독일 가구 중 98% 이상을 5G 사용 및 100Mbit/s 수준의 인터넷에 연결, 2025년까지 전국 가정·산업·교통 네트워크의 5G 연결 목표
 - ** 12주에 걸친 입찰 절차를 통해 도이치텔레콤(Deutsche Telekom), 보다폰(Vodafone), 텔레포니카(Telefonica/O2), 1&1 드릴리쉬(1&1 Drillisch) 등 4개사 입찰에 성공
 - (선도 협업) 5G를 비롯해 차세대 미디어 콘텐츠 융합 서비스 분야 기업 간 투자 협력 본격화 추세
 - * 일례로 2019년 2월 SK텔레콤은 독일 도이치텔레콤과 신사업 협력을 위한 MOU 체결, 차세대 5G 초저 지연 영상 전송기술(MMT : MPEG Media Transport), 5G 중계기 및 인빌딩솔루션, Multipath UDP 등의 공동 개발 계획
 - * 또한 양사는 각각 자회사에 상호 투자를 하여 5G, 차세대 미디어 등의 분야에서 협력기회를 공동으로 모색하며 SK텔레콤은 도이치텔레콤이 운영하는 VC에 투자하는 등 공동투자 진행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표준화 선도)** 5G 첫 상용화로 유리한 고지 확보*, 시장 선점을 위한 표준화가 최우선
 - 신산업에서 파생되는 기술 관련 표준화 작업은 시장 선점에 매우 중요한 의미
 - 5G를 위시한 스마트·융복합 첨단 기술 관련 시장 선도를 위해 중요한 표준화 및 인증 관련 협업 및 글로벌 표준화 공동 대응 필요
 - 국내 산업기술평가원(KEIT),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과 독일의 프라운호퍼, 인공지능연구소(DFKI) 등 전문 R&D 인력 상호 교류 또는 제품관련 표준화 및 공동 인증 마련을 위한 한-독 협업 유도
 - * 한국 KT와 LG유플러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이 제안 및 개발한 양자암호통신 네트워크 프레임워크 권고안이 국제 표준(ITU-T Y.3800)에 예비 승인, 향후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표준 개발 청신호
- **(신사업 협력)** 5G 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 서비스와 콘텐츠 협업** 증가 양상
 - 독일 선도 통신사 인터뷰 결과, 5G 장비 시장보다는 서비스 및 콘텐츠 시장 진출이 유리
 - * 장비 시장의 경우 장비의 특성상 설치 환경의 적합성 여부가 중요하며, 관련 분야 유통구조상 입찰 참가 등을 통한 시장 진입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대기업 입찰 수주 시 이에 편승한 시장 공략이 유리, 또한 재고관리, 점검·보수가 가능해야 하고 상주 기술 인력도 필요
 - 5G 관련 비용절감 기술 및 5G 세대 수익성 높은 5G 특화 앱 개발 관련 높은 수요 확인, 상호 윈-윈 효과를 도출할 수 있는 협업 네트워크 구축 적기
 - **(기술·투자협업)** 또한 유럽 통신사와 캠퍼스 네트워크 솔루션, 마이모, 스몰셀 기술 등 다양한 5G 관련 기술 협업 고려 가능, 상기 기술 개발 기업과의 공동 투자 및 자회사 Cross 투자, R&D 자회사 설립 등 다양한 협업
 - * 한국 SKT는 도이치텔레콤과 2019년 2월 5G 네트워크, 미디어, 보안 기술 공동 개발을 위한 MOU 체결에 이어 2019년 6월 5G 기술개발을 위한 합작회사 설립 및 5G 초저지연 영상 전송기술(MMT : MPEG Media Transport), 5G 중계기 및 인빌딩솔루션, Multipath UDP(유무선 인프라를 동시에 이용해 데이터 전송 속도를 높이는 통신 기술) 등 공동 개발 계획 발표
 - **(파생수요 전망)** 5G 기술은 현재는 걸음마 단계이나 차후 스마트 팩토리, 자율 주행 등 관련 높은 파생수요 발생 예상, 특히 기업이나 연구소 등이 독립된 5G망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능형 제어기능을 갖춘 'Campus Network Solution', 솔루션 관련 협업에 높은 관심도 확인

3-2. 산·학·연 협력 기반 양국 간 스타트업 지원 플랫폼 구축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투자유치 활발) 2018년 독일 스타트업 역대 최대 규모 투자유치 달성(45억 9,200만 유로)
 - * 2018년 독일 소재 스타트업은 전년 대비 7% 성장한 45억 유로의 투자유치
 - * 2018년 기준 전자상거래(E-Commerce)를 필두로 핀테크, 모빌리티 등 주요 업종 내 투자유치 증가세 뚜렷
- (현지 창업 지원) 국내 인재의 독일 현지 창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가능성 타진
 - * 연방정부 차원의 EXIT 창업 장학금, 사업 자금 대출 프로그램 등이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지원 제한은 없음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독일 스타트업 역대 최대 규모 투자유치 또 경신, 각 주별 스타트업 육성에 적극적
 - 2018년 독일 소재 스타트업은 최고 기록을 달성한 2017년 대비 7% 성장한 45억 유로의 투자를 유치함, 전자상거래(E-Commerce)를 필두로 핀테크, 모빌리티 등 주요 업종 내 투자유치 증가세 뚜렷
 - 2019년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개념 보고서에 따르면 베를린, 뮌헨 등 독일 2개 도시가 30위권에 진입하였고, 베를린의 경우 유럽 스타트업의 메카로서 2,000개 이상의 기술 스타트업이 베를린을 거점으로 활동 중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네트워크 강화)** 양국 간 스타트업 분야 협업을 위한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 독일 경제부 및 지방정부 스타트업 진흥기관 등 주요 독일 스타트업 이해 관계자와의 정부 차원 교류 강화
 - * 독일경제교통부 알트마이어 장관은 혁신, 일자리, 산업구조 변화 등의 측면에 있어 국가경제에 큰 의미를 갖는다며 스타트업 지원에 큰 관심
 - 한-독 정부 차원의 스타트업 공동 지원 펀드 조성을 통한 양국 스타트업 지원 확대
 - * 미국과 달리 독일은 상대적으로 투자에 보수적으로, 현지 법인 설립 없이는 국내 기업의 초기 투자유치가 어려우므로 정책적인 지원 필요
 - 독일 테크 스타트업과의 전략적 교류 확대 프로그램 운영 필요
 - * 독일 스타트업들은 핀테크, 사물인터넷, IoT, 헬스케어,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전반에서 선전 중임
- **(현지 창업 지원)** 국내 인재의 독일 현지 창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가능성 타진
 - 독일의 4세대 노동 시장(Arbeit 4.0) 정책에 발맞춰 국내 우수 인재의 현지 진출·창업 활성화 위해 독일 노동청 등과 협업 요망
 - * 독일은 인더스트리 4.0을 통해 국내 인재 Pool이 집중된 IT, 비즈니스서비스 분야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됨. 해당 진출·창업관련 현지 관청과의 전략적 협업 필요
 - 연방정부 차원의 EXIT 창업 장학금, 사업 자금 대출 프로그램 등이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지원 제한은 없으므로 활용 필요

3-3. 독일 이공계 전문인력 부족 심화와 국내 청년실업 문제 해결 가능한 윈-윈 협업 전략 구축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독일 수학, 정보통신, 자연과학, 엔지니어, 의료 등 이공계 인력 부족
 - * 독일 엔지니어 인력부족률 2020년 약 7.9%, 2040년 약 16.3% 예상
- 독일 부족인력과 국내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석이조 전략 개발 필요
 - * 인력교류 플랫폼 구축, 독일 직업교육 적극 참여, 멘토링·상담회 등 다양한 정보교류의 기회 제공 필요

독일, 엔지니어, 정보통신, 수학, 자연과학 등 이공계 전문 인력 부족 심화

- 독일 산업의 디지털화, 제조업의 혁신(인더스트리 4.0)에 따른 전문 고급인력 부족 현상 지속
 - 2019년 2분기 독일 내 신규 일자리 수요(Open Position)가 139만 개로 집계되어 사상 최대 기록을 갱신
 - (IT) IT 전문가의 수요가 가장 많은 도시는 뮌헨, 베를린, 함부르크, 슈투트가르트, 프랑크푸르트 순이며 전공 분야별로는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순으로 수요가 많음
 - (엔지니어) 쾰른 경제연구소(IW)는 2018년 상반기에 인력 확보가 가장 어려운 분야로 기계, 자동차기술, 공정 및 생산기술, 건축 전문가를 뽑음. 독일은 다리와 고속도로의 현대화 작업 추진으로 건축 전문가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임
 - 또한 대학 졸업장이 필요 없는 농업(367%), 건설(106%), 생산(90%), 교통·물류(84%) 분야 일자리도 크게 증가하며 고급인력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인력난이 심한 것으로 드러남

인력교류 플랫폼 구축, 독일 직업교육 참여 기회 확산

- 한-독 청년 인력교류 플랫폼 등을 구축
 - 양국의 구인·구직 및 직업교육·취업지원 프로그램 정보를 취합·보급 기능의 온라인 플랫폼 정비
 - 독일 직업훈련 교육(아우스빌둥, Ausbildung)을 통해 독일 기업이 요구하는 실무 기술지식 습득 및 현장 경험의 기회를 제공, 취업에 유리한 자격을 갖추어 수 있도록 양국 교육 협력 프로그램 개발 필요
- * 아우스빌둥(Ausbildung) : 독일 직업훈련 과정으로, 학교의 이론교육과 기업 현장실습이 동시에 이루어지며,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장점 보유, 보통 3년 과정임

4 진출 시 유의사항

지식재산권 분쟁	무역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 독일 A 전시회 지재권 분쟁(자동차부품 전시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 전시회에 참여한 B사, 고객사의 상표를 무단으로 제품에 사용하여 독일 세관으로부터 압수 조치 ▪ (대응전략) 독일 전시회에는 글로벌기업 지재권 위반을 적발하기 위해 고용된 인원이 있는 바, 지재권 위반 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재권 위반이 우려되는 경우 KOTRA IP Desk 상담 추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 A사, 독일기업 사칭 기업에 무역사기 피해(소비재 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기업의 좋은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악용하여 계약 체결 후 송금을 받아 잠적 ▪ (대응전략) 독일 상업등기소(Handelsregister)에서 등기 및 홈페이지 여부, 독일 주소·전화번호·계좌번호 사용 확인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 거래 시 기업 주요 정보 검증 필요
환율 변동	수출 대금 결제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 한국 K사 수출 계약건(자동차부품 수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2015년 ECB의 양적완화정책 시행 및 미 연준 금리 인상에 따른 유로화 약세, 원화 강세 영향으로 수출 채산성에 부담 ▪ (대응전략) 계약 시 환율 변동에 따른 가격 변동 조건 (+ 또는 - 5%) 등의 별도 조건 삽입 또는 수출 결제 통화 다변화, 환변동 보험 등 금융상품을 가입해 환차손 소실 방지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율 모니터링 강화, 환변동 및 환위험에 유연한 대응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 한국 중소기업 C사 수출 계약(소비재 수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사는 신규 수출 시 상대방의 신용도를 알지 못해 L/C(Letter of Credit) 방식으로 거래하기를 원하나 독일 바이어가 이를 거부 ▪ (대응전략) 독일 대금 결제 시 일반적인 거래는 T/T가 가장 보편화, 대금 규모가 큰 경우 대개 30% 선지급 후 차후 BL(선하증권)을 받고 잔금 70% 지급이 일반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에 현지 대금 결제 방식에 대한 정보 입수 및 이에 적절한 대응 필요
현지 인증	수출 계약 시 부가세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 한국 B사, 식품 포장재 수출 시 인증정보 부재 (식품포장재 수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사는 제품에 대한 상세 인증정보 부재 및 취득 지연으로 수출 애로 ▪ (대응전략) KOTRA를 비롯한 주요 인증기관의 해외 인증정보 확인 및 KOTRA 해외인증 전문가 상담 서비스 적극 활용 요망(KOTRA 홈페이지-무역 투자 상담-방문 상담-인증 전문가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 한국 D사, 독일 바이어가 수출 계약 시 invoice를 계약 대금+VAT로 요청(자동차부품 수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對)독일 수출 시 부가세 19%는 기본적으로 현지 소비자가 부담, 차후 부가세 환급 가능, 그러나 일부 바이어의 경우 이를 수출 기업에 전가하는 사례 발생 ▪ (대응전략)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계약 시 DDP 조건이라 할지라도 부가세 포함 여부(예 : VAT UNPAID) 명시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의 주요 인증은 국내 인증기관을 통해 취득 가능하므로, 전문가 상담을 통한 견적 요청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후 기본적으로 환급 신청은 가능하나, 미진출 기업의 경우 서류 절차가 까다롭고 추가 비용 및 시간 소요 - FOB, CIF 방식의 계약 체결 권장 ☞ 애로 발생 시 독일 교포 회계 기업을 통한 환급 애로 자문 및 환급절차 대리 위탁 필요(KOTRA 해외시장뉴스-독일 국가 정보에서 현지 법률 회계법인 정보 제공)
---	---

시장 진입을 위한 인증 취득 필요	영문·독문 제품 카탈로그, 영문 홈페이지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 분야에 따라 해당되는 인증 취득은 모든 거래의 기본사항 - CE, RoHS, Tuv, REACH, ISO, CPNP 등 독일 시장 진출을 위한 기본 인증 취득 필요 ☞ 국내 여러 인증기관을 통해 꼭 필요한 인증정보 획득 및 인증 취득 절차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 바이어 최초 접촉 시 영문 또는 독일어로 된 제품 카탈로그와 홈페이지 정보제공은 필수이며,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 독일 바이어의 관심 유발 어려움

무역사기

- **(현황)**
 - 연 최소 2건 정도의 무역사기가 보고되고 있으며, 제품 운송, 보험 및 관련 문서 위조 등 발생
- **(대응전략)**
 - ☞ (무역사기 정보 공유) 무역사기 관련 참고 링크 공유를 통해 다양한 사례 숙지
 - (기업 정보 대조) 문서에 기재된 기업명, 기업 대표자명, 담당자명, 업체 주소 및 연락처 등을 다른 공개 자료들과 대조하여 일치 여부 확인
 - (기업 대표번호 확인) 발생된 문서에 기업 대표번호가 핸드폰으로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 독일 업체들은 공식 문서에 개인 핸드폰 번호를 업체 대표 번호로 기재하지 않음. 확인을 위해서는 수출 대상 국가의 핸드폰 번호 시스템 파악 필요
 - (정보 일치 여부) 발생 문서들 간 정보들이 서로 일치하는지 대조, 일치 여부 파악
 - (예시) 등록된 기업명 및 정보를 도용 : 도용된 기업체의 실제 이메일은 info(at)save-hh.de, 사기 기업이 고객에게 발행한 문서에는 info@savde-h.de와 info@save-h.de로 기재. 발행 문서들 간에도 정보가 서로 일치하지 않으며, 기업 로고 하단에 핸드폰 번호 기재

첨부 1 수출유망품목(상품)

품목명 1	HS Code	300510	수입관세율(%)	0
	수입액('18/US\$백만)	416.6	대한수입액('18/US\$백만)	19.2
스포츠 테이프 또는 키네시올로지 테이프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동 전후 상해 예방 및 근육보호, 통증 완화 효능 등 제품에 대한 인지도 증가로 사용 증가 및 지속수요 발생 국내 선도기업의 거래선 확보로 장기적으로 일정의 물량 공급, 수입시장 내 10위(2018년 +4.3% 증가)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일공보보험협회(GKV)에 따르면, 2018년 독일 의약품 및 의료 보조기기 지출 비용은 총 159억 유로 규모*로 전년 대비 8.2% 증가, 이 중 의료 보조기기의 규모는 84억 유로로 전년 대비 3.7%의 안정적인 성장세 * 독일공보보험협회(GKV) 담당자에 따르면, 스포츠 테이프는 아직 의료 보조 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나, 유사한 정형외과용 의료보조대 등이 포함되어 있는 의료 보조기기 등에 독일 공보협이 지출한 비용을 통해 간접적으로 관련 시장 규모 유추 가능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일 의료용품 시장은 매우 보수적인 관계로 외국산 제품보다는 가능한 한 자국산 또는 유럽산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한 편 독일 스포츠 테이프 시장에서는 주로 독일과 네덜란드, 미국을 위시한 유럽 기업이 시장을 선도, PhysioTape(네), KT Tape@(미), Apaloo(독), PAUL HARTMANN(독) 등이 선두기업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 제품은 의료용품으로서 뿐만 아니라 스포츠용품으로도 공급되므로 타깃별 진출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최근 일반 소비자를 중심으로 크게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인터넷 약국을 통한 판로 개척도 중요 의료용품으로서는 Medica, 스포츠용품으로서는 FIBONA ISPO 등에 참가해 B2B 접촉 및 제품에 대한 인지도 및 효능에 대한 홍보를 위해 제품 시연과 구체적인 효능 입증 자료를 함께 전시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 		
품목명 2	HS Code	850940	수입관세율(%)	0
	수입액('18/US\$백만)	444.2	대한수입액('18/US\$백만)	4.6
과즙·채소즙 추출기 또는 착즙기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웰빙 및 디톡스 트렌드를 타고 소비자 구매 수요 확대 양상 최근 몇 년간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성과 호조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확한 시장 통계는 부재하나, 작은 소품을 구매하면서 라이프스타일에 변화를 주는 '소확행'을 즐기는 트렌드가 확산되며 업소용 외에도 건강에 관심이 많은 젊은 연령층의 선호도도 크게 증가 2018년 독일 내 가정용 기기 총 매출은 85억 1,000만 유로, 이 중 소형 가정용 기기의 매출은 26억 7,200만 유로로 2023년까지 지속 증가세 전망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 시장은 크게 상업용(업소용) 제품과 개인 소비자용 제품으로 양분 독일, 이탈리아 및 미국 제조사의 제품(SMEG/이, Bosch/독, KitchenAid/미 등)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나, 국내 기업의 제품(엔젤, 휴롬, NUC 전자 등) 역시 호평을 받고 있으며, 공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용이 보편화되어 있는 일반 믹서 대비 가격이 다소 고가이고 소비자의 내구성에 대한 기대감이 큰 편이므로, 브랜드 보다는 차별화된 기능성으로 고가 시장 공략 필요 제품 사양에 대한 홍보나 고객의 제품 이용을 돕기 위한 건강즙이나 스무디 레시피 등의 제공으로 고객의 구매 수요 제고 		

품목명 3	HS Code	850811	수입관세율(%)	0
	수입액('18/US\$백만)	1,191.2	대한수입액('18/US\$백만)	13.3
로봇청소기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 성능 향상과 일·가정 양립 가구 증가에 따른 가사 도우미 로봇 및 스마트홈 시장 확대 추세 · 주로 대기업의 고가 제품 중심으로 판매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나, 최근 들어 제품 성능 향상 및 가성비 좋은 제품이 잇따라 출시되며 소비자 접근성이 크게 개선, 특히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독일 시장 진출도 눈에 띄는 편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독일 내 가정용 기기 총 매출은 85억 1,000만 유로, 이 중 소형 가정용 기기의 매출은 26억 7,200만 유로로 2023년까지 지속 증가세 전망 · 독일정보기술미디어협회(Bitkom)의 2017.9. 설문조사 상, 설문 조사 대상자의 42%가 완전 자동 청소 도우미 구매 고려, 15%는 이미 로봇청소기 보유, 독일 내 진공청소기 시장의 높은 잠재력 확인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대기업과 중국 기업 제품 등을 중심으로 고가와 가성비가 좋은 제품 시장으로 양분 · 전반적으로 가능성이 우수한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및 선호도가 높은 편 · 독일, 네덜란드 및 미국 제조사의 제품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나, 국내 기업의 제품 역시 호평 · 최근 들어서는 가성비를 앞세운 다소 저렴한 제품이 잇따라 출시되며 선택의 폭 확대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AI 기능 등 기능성과 높은 가성비로 승부 · 가성비가 우수한 제품으로 타깃 고객군 확대 예상,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브랜드 인지도를 제품 기능성으로 승부한다면 시장 내 수요 증가 추세와 더불어 승산 · 다양한 사양의 제조사별 제품 중에서도 차별화되는 기능을 부각시키는 것도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는 데 일조 가능 		
품목명 4	HS Code	854370	수입관세율(%)	0
	수입액('18/US\$백만)	1,938	대한수입액('18/US\$백만)	268
미용기기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 미용 시장 규모는 2019.6. 현재 약 150억 900만 유로로 연평균 2%의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 · 독일에서 최근 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성형외과나 미용시술소를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되고 있으며, 전문시술소 및 가정용으로 제작된 간편한 미용기기가 인기임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대(對)한국 수입은 약 2억 6,86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8.21% 상승했으며, 수입 비중 역시 1.39%로 전년 대비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며 수입 시장 내 17위로 다섯 계단 상승 · 가장 인기 있는 보톡스, 필러 시술을 비롯해 피부재생, 문신, 여드름 제거, 셀룰라이트 관리 등 시술 다변화에 따라 관련 미용 장비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 미용기기 시장은 Braun, Beurer, Medisana 등 독일 글로벌 의료기기 업계에서 선점하고 있음 · 보수적인 소비자 구매성향으로 인해 자국산 또는 유럽산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함 · 독일 시장에서 주로 판매되는 가정용 미용기기로는 초음파 마사지기, 스팀기, 필링기 등이 주를 이루며 독일 1위 화장품 제조사인 Beiersdorf(니베아)는 전동 세안기를 출시해 미용기기 시장에 진입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 독일 포함 유럽 시장 진출에는 CE 인증 필수 · (유럽 의료기기 지침 준수) 일부 미용기기(필러, 콘택트렌즈 등)는 의료기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유럽데이터뱅크(EUDAMED) 이용 의무화, 고유식별코드(UDI) 사용 의무화 등 유럽 의료기기 지침(MDR)을 참고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시장조사 시행) 전문전시회(MEDICA), 학회 참가 등을 통해 현지 시장 조사 후, 제품의 가격 및 효과에 대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임상데이터나 시청 각자료 등으로 부각시켜 마케팅 진행 		
품목명 5	HS Code	610419	수입관세율(%)	0
	수입액('18/US\$백만)	16	대한수입액('18/US\$백만)	0
스포츠웨어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 스포츠웨어 시장은 연평균 4% 성장을 통해 2023년 약 120억 유로의 규모를 이룰 것으로 전망 · 서유럽 시장은 스포츠웨어 분야에서 북미, 아시아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시장으로 약 20%를 점유하고 있고, 생활스포츠 등 개인의 웰빙에 관심이 높음 · 스포츠웨어 시장은 Spa브랜드 등으로 현재 인기를 끌고 있는 FMCG 시장 (Fast Moving Consumer goods, 일용소비재)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스포츠웨어 수입액은 약 1,6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27.7% 상승함 · 유명 스포츠브랜드들은 인플루언서와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는 등 스포츠웨어는 기존 기능성, 실용성 뿐 아니라 디자인까지 가미되어 일상생활 라이프스타일로 자리 잡는 중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도 독일 스포츠웨어 시장은 상위 3대 제조사인 Nike, Adidas, Puma가 전체판매량의 약 1/3을 차지하고 있음 · 이러한 상위 3개 제조사들은 스포츠스타, 가수 등 셀러브리티와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디자인의 제품을 선보이며 소비자를 공략 중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포츠웨어에 있어 매장 기반형태가 70.2%로 가장 많은 점유를 차지하며 그 중 스포츠용품점이 가장 많기 때문에, 우리 기업에게는 현지 스포츠용품 판매점 접촉을 통한 유통 시장 진입이 바람직함 · 유명 전시회 이용을 통한 주요 기업들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 수요 발굴 		
품목명 6	HS Code	903180	수입관세율(%)	0
	수입액('18/US\$백만)	1,522	대한수입액('18/US\$백만)	16
웨어러블 기기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년부터 형성된 독일 웨어러블 기기 시장은 연평균 8%의 성장률로 2023년에는 약 620만 개가 팔릴 것으로 전망 · 2018년 독일 웨어러블 장비 판매대수는 전년 대비 12.5% 증가한 430만 대를 기록, 2019년 판매대수는 전년보다 12.2% 증가한 48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 · 독일에서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 증가 및 정보통신기술의 성장과 맞물려 웨어러블 기기 시장도 성장 추세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대(對)한국 수입은 약 1,6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3.6% 상승했으며, 수입 비중 역시 12.2%로 전년 대비 상당히 높은 성장세를 기록 · 젊은 계층을 타겟으로 하던 단순 기능의 피트니스 트래커에서, GPS, 응급버튼, 센서 등을 탑재하여 사용자의 생체신호를 수신, 노인이나 어린이들을 돌볼 수 있는 신제품이 출시되면서 전 연령층을 아우름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도 독일 웨어러블 시장은 상위 3대 제조사인 Apple Watch, Fitbit, Samsung이 전체 판매량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 · 특히 애플은 에르메스, 나이키 등과 협업을 통해 다양한 디자인의 제품을 선보이며 소비자를 공략 중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D 협업) 독일정부차원의 연구개발 지원이 활발하며, 이는 한국의 센서기술, 플렉시블 배터리, IT 기업이 활용 가능한 좋은 기회임 · (온라인 구매 선호) 독일 웨어러블 기기 유통채널은 간편한 가격비교와 다양한 제품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판매가 73.5%로 26.5%의 오프라인 판매보다 선호됨 · 웨어러블 산업은 의료, 정보통신, 금융, 보안, 사회학이 결합된 성장 잠재력이 무한한 시장으로 향후 다양하고 복잡한 기능을 가진 제품들이 속속 출시될 전망이므로 다양한 분야로 진출 가능 		

품목명 7	HS Code	550320	수입관세율(%)	0
	수입액('18/US\$백만)	314.63	대한수입액('18/US\$백만)	54.61
인조 스테이플섬유- 폴리에스테르의 것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자동차 완성차 산업 위축에도 불구하고 상기 난연 소재는 여전히 한국산이 독일 시장점유율 1위를 유지, 지속적인 수요가 예상되는 유망품목임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對)한국 수입액은 2018년 5천 4백만 달러로 독일 수입 시장 점유율 3년 연속 1위 기록(시장점유율 17.4%)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 완성차업체가 원가절약 압박을 받음에 따라, 비교적 저렴한 중국 수요 증가 추세 · 중국은 독일 수입 시장 3위국이며, 시장점유율 8%에 불과하지만 전년 대비 수입규모 증가율이 18.45%에 이름 · 루마니아는 수입 4위국, 시장점유율 8%로 전년 대비 수입규모 증가율 65% 수직 상승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연섬유 등 제품을 특화하고 주요 바이어와의 꾸준한 교류를 통해 인지도를 제고해야 함 · 환경인증(Öko-Test), ISO 등 필수 인증 획득 		
품목명 8	HS Code	842139	수입관세율(%)	0
	수입액('18/US\$백만)	3,303.17	대한수입액('18/US\$백만)	6.57
탈황장치 (Scrubber)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운업의 환경규제인 선박 배출가스 중 황함유량 규제가 2020.1.부터 황함유량 0.5% 미만으로 강화되어 대응책인 배출가스 정화시스템인 탈황장치(Scrubber) 장착을 서두름 · 해운업 분야 주요 글로벌 기관들이 스크러버 장착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는 등 탈황장치 수요 증가가 가시화됨에 따라 관련 기자재 업체의 수혜가 전망됨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대(對)한국 수입액은 전년 대비 25.54% 증가한 657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한국은 독일 시장점유율 0.23%로 25위 수입국에 해당 · 전 세계 스크러버 시장 규모는 2020년 누적기준 9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이는 국내 조선기자재 업체에 수혜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기준 독일 수입 시장 점유율 1위는 마케도니아와 남아프리카이며, 양국은 독일 전체 수입액의 각각 21%, 19.7%를 차지 · 전 세계 스크러버 시장점유율을 경쟁사별로 살펴보면, Wärtsilärk(핀란드) 37%로 1위, Alfa Laval(스웨덴) 21%, Yara Marine(노르웨이) 16% 등이 있음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 탈황장치 제조업체들과의 다양한 전략적 제휴 방안을 검토, 실행 가능한 단계부터 본격적인 추진 필요 · 스크러버의 안정적 설치 및 비용 최소화 노력 제고 차원에서 선사의 스크러버 설비·제조 분야 진출 시도 필요 		
품목명 9	HS Code	845811	수입관세율(%)	0
	수입액('18/US\$백만)	598.94	대한수입액('18/US\$백만)	129.25
금속 절삭 가공용 선반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 자동차부품 생산업체 뿐 아니라, 각종 기계부품 생산업체들이 절삭 가공에 있어 가성비가 우수한 한국산 선반 사용 증가 추세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對)한국 수입액은 2018년 129백만 달러 규모, 독일 수입 시장 점유율 21.58%를 차지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산 저가 공작기계가 독일로 대량 수입되어 독일 내수가격 하락을 야기함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저한 고객 관리 및 품질 관리로 저렴한 중국 수입산과의 차별화된 전략 마련 필요 · 현지 A/S 지원 체계를 구축, 신속한 기술지원을 위해 지역별로 역량있는 딜러 발굴이 중요 과제 · 수요 시장에 맞는 고성능 기종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 제고 		

첨부 2 수출유망품목(서비스)

품목명 1		
금융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 브렉시트 선언 이후 독일(프랑크푸르트)이 런던의 대체 가능한 주요 금융 중심지로 주목 · 국내 주요 금융기관의 현지 사무소 소재, 특히 국내 자동차 금융 서비스 제공 기업 및 손해보험사 진출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 내 신차 구매 고객의 80% 이상이 자동차 판매사의 전속 금융사 이용 · 독일 내 주요 완성차 기업은 자동차 관련 금융상품 판매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현지 기업이나 인근 유럽국가 금융기관이 진출해 있으나, 자동차 금융과 같은 특수 금융의 경우 현대 캐피탈이 진출하여 국내 완성차 브랜드의 할부와 리스, 딜러 금융, 보험 중개 등의 토털 서비스를 제공 중 · 이 외, 국내 금융기관의 현지 법인에서도 주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예금, 대출, 송금, 외환(수출입), 자금 등 은행 전반 서비스 제공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금융보다는 자동차 할부 금융과 같은 특화된 금융서비스 시장 진출이 보다 유리하나, 이 역시 대기업 계열사와의 협업 하에 이뤄지고 있는 상황 · 현지 은행 라이선스 취득을 위한 인허가 절차가 까다롭고 시일이 많이 소요되므로 사전에 충분한 준비 절차 소요
품목명 2		
물류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은 2018년 세계은행이 선정한 물류효율성에서 세계 1위(총 160개 국가 중) 선정, 유럽 제1의 물류국 · 독일은 세계 3위의 수출국이자 수입국으로 국제 물류 수요는 지속 증가 전망, 국내 주요 물류 기업의 진출도 활발한 편 · 독일은 유럽 중심부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우수한 교통 인프라, 최신 물류 기술 및 Amazon, Zalando 등을 주축으로 한 온라인 유통 증가로 시너지 효과 창출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 내 총 3천 개의 물류·운송기업 소재, 총 고용인원수 61만 명(2019.7. 기준) · 독일 연간 물동 분야 매출은 2019년 2,790억 유로로 전망되어 EU 매출의 25% 차지, 운송과 물류 창고업이 총 시장의 약 80% 차지 · 독일 창고 및 교통서비스 분야 매출 역시 2017년 기준 1,030억 유로, 지난 4년간 지속 성장 · 독일의 물류 창고·스토리지 사업은 2020년까지 연 133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4.2% 이상 성장 전망, 단, 화물하역(cargo) 분야 매출규모는 감소할 것으로 예측 · 2017년 독일 전체 물류 투자는 총 86.62억 유로로 전년 대비 89% 증가, 베를린·뒤셀도르프·프랑크푸르트·함부르크·켈른·뮌헨·슈투트가르트가 독일의 7대 물류 집적지 · 최근 독일은 물류운송 기술, 서비스 분야에서 4차 산업과 ICT 환경과의 결합을 통하여 자동 화물처리·배송 시스템, 지능화된 물류 창고 운영 등의 기술을 선보이며 부가가치 창출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 Deutsche Post(DHL), 도이체반(DB)(물류)이 연매출 각각 96억 유로, 75억 유로로 1, 2위. 이 외 Dachser, Kühne+Nagel, Rhenus 등이 높은 입지 보유, 또한 덴마크 Maersk, 프랑스 SNCF, 미국의 FedEx와 UPS, 네덜란드 TNT Express 등도 시장 내 높은 인지도, 국내 주요 물류기업 역시 독일 내 진출해 영업 활동 중 · 세계 제1의 물류업체 Deutsche Post는 전기운송차량 개발, 온실가스 배출량 조절 등 친환경 정책 수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자동화·ICT 기술 도입 시도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eMAT 등 주요 전시회 참가를 통한 거래선 접촉 · 유럽 제3의 항구이자 독일 최대 물류 집적지인 함부르크, 독일 내륙운송 중심지 프랑크푸르트 등을 거점으로 고려 가능 ·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협력 파트너사로 네트워크 구축 필요, 정부가 추진 중인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동반 진출도 적극 고려 필요 · 물류기업의 경우 현지 물류 전문인력 고용에 큰 애로를 겪고 있으므로 인력 채용 준비 역시 매우 중요
<p>품목명 3</p>		
<p>핀테크</p>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 해 최대 규모의 투자유치를 경신하는 독일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핀테크는 투자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분야 · 중앙정부 뿐 아니라 독일 내 각 지방정부도 스타트업 생태계 육성에 적극적으로, 핀테크 시장은 당분간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독일 핀테크는 7.8억 유로의 투자유치를 달성하며, 2016년 6.3억 유로, 2017년 7.1억 유로에 이어 꾸준한 성장률을 보임 · 기존 금융기관과 핀테크 협력 건수가 2014년 55건에서 2017년 506건으로 9배 이상 증가하는 등 협력 모델 활성화 : 2018년도 은행 분야에서는 코메르츠방크와 73건, 도이체방크와 58건 협력, 보험 분야에서는 Munich Re와 67건, 알리안츠와 54건 협력 하는 등 협력 건수 급격히 증가 중 · 바이에른 주에서는 2018년 핀테크 분야에서만 4억 5600만 유로를 유치하였고, Wirecard 같은 업체는 1999년 뮌헨에서 창업하여 매출액 20억 유로 규모의 핀테크 업체로 성장함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 핀테크 산업은 기존 금융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등 새로운 분야의 진출을 모색 중 · 독일의 대표적인 핀테크 기업으로는 SolarisBank, N26, Kreditech, Figo 등이 있음 · N26은 모바일 은행으로 2018.3. 1.3억 유로 투자유치에 성공하였으며 미국 진출 계획 중 · SolarisBank는 2018.9. 베를린에 위치한 대출 유통화 서비스 스타트업 CrossLend에 투자 진행 · Kreditech는 기계 학습 기술을 바탕으로 한 온라인 대출 기관으로 러시아, 멕시코, 스페인 및 폴란드를 포함 전 세계 5개 시장 진출 · Figo는 3,100여 개 이상의 은행 및 금융기관의 재무 데이터 집계 플랫폼을 제공하는 스타트업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현지 기업과의 협업 · 각종 핀테크 포럼 및 현지 스타트업 행사 참여 · 현지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지원
<p>품목명 4</p>		
<p>게임</p>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세계 게임 시장의 붐과 더불어, 독일은 유럽 제1의 게임 소비국 등극 · 유럽 게임 시장은 2023년까지 미국, 중국 시장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 * 유럽 4.6%, 중국 3.6%, 미국 1.7% CAGR · 독일정부의 게임 진흥정책 역시 지속될 전망 · 독일 모바일 게임 시장의 큰 성장은 온라인·모바일 게임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국내 기업에 좋은 기회가 될 것임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독일은 게임 시장 매출 47억 달러를 기록하며 세계 5위 차지 · 독일에서 2017년까지 PC 게임이 가장 보편적인 게임 플랫폼이었다면, 2018년부터는 '스마트폰'이 가장 큰 게임 플랫폼으로 자리매김 · 독일 정부는 2019년 5천만 유로 규모의 게임펀드를 조성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2020년에도 이어질 전망

	<p>경쟁동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일 내 게임산업 허브는 베를린과 함부르크,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지역 베를린에는 부가(Wooga, 직원 200명), 게임듀엘(GameDuell, 직원 150명), 야겔(Yager, 직원 100명)의 독일 게임기업 소재, 그 외 텐센트(Tencent), 킹(King), 에픽(Epic)등 세계적인 게임기업 역시 유럽지사 운영 중 2020년 마이크로소프트와 소니가 새로운 Xbox와 플레이스테이션5를 론칭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독일 유명 게임개발사 크라이텍(Crytek) 등은 이에 맞는 새로운 게임 개발 중
	<p>진출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일 게임트렌드 파악 및 분석, 강화된 유럽 개인정보보호법, 모바일 인터넷 환경 등을 고려해 철저한 현지맞춤형 전략 수립 필요 매년 8월 쾰른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컴퓨터, 비디오 게임전시회 '게임스컴(Gamescom)'에 전시회에 참가하여 시장조사 및 마케팅 필요
<p>품목명 5</p>		
<p>E·서비스- 음식주문배달</p>	<p>선정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럽 음식주문배달 시장은 2023년까지 연평균 약 12%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중국(11.2%), 미국(7.1%) 시장보다 더 높은 수치임 2018년 매출 규모로 독일은 유럽에서 영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음식주문배달 시장 형성
	<p>시장동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8년 독일 온라인 음식주문배달 시장 매출액은 17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2023년까지 28억 달러 규모로 성장 예상 온라인 음식주문배달 서비스는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① '딜리버리히어로'와 같은 플랫폼을 이용하여 레스토랑에 직접 주문하는 주문 대행 방식과 ② '딜리버루'와 같이 배달 대행 서비스 방식이 있음 2018년 독일에서는 ① 주문 대행 서비스가 15억 달러, ② 배달 대행 서비스 매출은 약 2억 달러의 시장을 형성하여 주문 대행 서비스의 시장이 배달 대행 서비스 시장 보다 크며, 2023년까지 그 추이를 이어갈 전망
	<p>경쟁동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리퍼란도(Lieferando)는 2019년 딜리버리히어로를 인수하면서 기존에 인수한 음식 주문 스타트업 Pizza.de와 Foodora와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독일 음식주문배달 독보적 위치 차지 2019년 영국계 딜리버루(Deliveroo)는 독일 시장에서 철수하고 영국 외 다른 유럽 국가와 아시아 시장에 집중기로 계획 발표
	<p>진출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 성장세는 지속될 예상이지만 경쟁이 치열한 시장으로 현지 시장, 경쟁사, 산업 환경, 트렌드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요구됨

2020년 독일 지역 전시회 KOTRA 한국관 개최

주요 행사	일시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 실내 장식용 직물 전시회	1.8 ~ 1.11
독일 쾰른 하드웨어 전시회	3.1 ~ 3.4
독일 프랑크푸르트 건축조명 전시회	3.8 ~ 3.13
독일 하노버 산업박람회	4.6 ~ 4.10
독일 뮌헨 환경 전시회	5.4 ~ 5.8
독일 뒤셀도르프 국제포장 전시회	5.7 ~ 5.13
독일 하노버 정보통신 전시회	6.22 ~ 6.26
독일 프랑크푸르트 자동차부품 전시회	9.8 ~ 9.12
독일 함부르크 조선 및 해양기자재 전시회	9.8 ~ 9.11
독일 쾰른 유아 및 아동용품 전시회	9.17 ~ 9.20
독일 베를린 국제 철도차량 수송기계 박람회	9.22 ~ 9.25

2020년 독일 지역 KOTRA 주요 사업

주요 행사	일시(잠정)
Tchibo Supplier Day	2월
Korea Day	6월
프랑크푸르트 강변축제	8월
한-독 채용박람회	10월
한-독 의료산업 협업상담(MEDICA 전시회 연계)	11월
GP Europe	11월
지자체 투자유치사절단	연중
소비재 제품 독일 온라인 유통망 입점사업	연중
독일 주요 유통망 플랫폼 진출 지원사업	연중

첨부 4 2020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정치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함부르크 의회 선거(Buergerschaftswahl)	2020년 2월 23일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주의회 선거	2021년 세부일정 미정	
라인란트-팔츠주 주의회 선거	2021년 세부일정 미정	-
작센-안할트주 주의회 선거	2021년 세부일정 미정	-
멕켈렌부르크-포어폼머른주 주의회 선거	2021년 세부일정 미정	-
독일연방의회 선거 및 독일 총선	2021년 세부일정 미정	9·10월

주요 경제·통상 일정

주요 일정	일시(잠정)	비고
정부 예산	2020년 3월 차기 예산안 상정, 6월 말경 승인	
통독세(Solidaritaetszuschlag : 통독 후 서독과 동독의 재정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1991년 최초 도입, 1995년 재시행) 단계적 폐지	2021년(잠정)	기존의 소득세와 법인세의 5.5%를 추가 징수, 총 3,550만 명 소득근로자의 연 110억 유로 부담 감축
EU-일 간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2018년 7월 17일 체결, 2019년 2월 1일 발효	-
EU-싱가포르 간 FTA	2018년 10월 19일 체결, 2020년 발효 예정	-
EU-메르코수르(Mercosur)	2019년 6월 28일 메르코수르 각 회원국별 의회 승인 후 잠정 발효 예정이며, 이후 EU 국별 비준 후 정식 발효	* 메르코수르 회원국 :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EU-멕시코 간 FTA	2016년 5월 협상 개시, 2018년 4월 21일 체결, 향후 발효 예정	-
EU-호주 간 FTA	2018년 6월 2일 협상 개시	협상 중, 직전 협상 2019년 7월
EU-뉴질랜드 간 FTA	2018년 6월 2일 협상 개시, 2019년 하반기 협상 체결 전망	협상 중, 직전 협상 2019년 5월

주요 행사

주요 행사	일시	장소	특이사항
Tech Open Air(TOA)	2019.7.	베를린	· 2012년부터 베를린에서 클라우드 펀딩으로 시작된 테크 페스티벌로 현재는 유럽에서 잘 알려진 테크 컨퍼런스
Automobilwoche Kongress	2019.11.6.~7.	베를린	· 독일 내 자동차 분야 전문 매거진이 주최하는 국제 행사로 동 분야 Top 네트워크의 장 · 2019년 행사의 주제는 '자동차 분야 전략 변화'이며, 이번에도 총 4년에 걸쳐 국제 자동차 분야 스타트업 섹션 마련
TechCrunch Disrupt Berlin	2019.12.11.~12.	베를린	· 매달 3,700만 페이지뷰를 달성하고 있는 글로벌 스타트업 정보 플랫폼인 테크크런치가 주최
Digital FUTURE Congress	2020.2.18.	프랑크푸르트	·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디지털화, 혁신 IT 기술에 대한 국제회의박람회
자율주행(Automatisiertes Fahren) 2020	2020.3.31.~4.1.	비스바덴	· 제6회 국제 자율주행 기술 전문가회의 · 자동차 분야 기술 매거진 ATZ가 주관
배터리 전문가 포럼(Battery Experts Forum 2020)	2020.9.29.~10.1.	프랑크푸르트	· 배터리와 충전기술의 트렌드에 관한 포럼 · 배터리 전시회와 병행 개최

유망 전시회 캘린더

산업	종목	전시회명	일자/장소
제지	종이, 사무용품 등	사무용품 박람회(Paperworld)	1.25 ~ 28/프랑크푸르트
소비재	스포츠용품	스포츠용품 박람회(ISPO)	1.26 ~ 29/뮌헨
소비재	장난감, 유아용품 등	완구 박람회(Spielwarenmesse)	1.29 ~ 2.2./뉘른베르크
소비재	가구, 선물용품 등	소비재 박람회(Ambiente)	2.7 ~ 11/프랑크푸르트
공구	공구, 철물 등	하드웨어 전시회(Eisenwarenmesse)	3.1 ~ 4/뮌헨
광학기기	조명, 건축조명 등	건축조명 전시회(Light&Building)	3.8 ~ 13/프랑크푸르트
광학기기	조명기기, 음향기기	조명 및 음향 전시회(Prolight Sound)	3.31 ~ 4.3/프랑크푸르트
종합	기계, 전자제품 등	하노버 산업 전시회(Hannover Messe)	4.20 ~ 25/하노버
포장지	포장지, 포장용품 등	국제 포장 전시회(Interpack)	5.7 ~ 13/뒤셀도르프
소비재	애완용품 등	애완용품 전시회(Interzoo)	5.19 ~ 22/뉘른베르크
광학기기	엔터테인먼트 상품 등	광학기기 전시회(Photokina)	5.27 ~ 30/뮌헨
IT	PC게임, 모바일 게임 등	게임스컴(Gamescom)	8.25 ~ 29/뮌헨
자전거	(전기)자전거 등	유로바이크 전시회(Eurobike)	9.2 ~ 5/프리드리히샤펜
가전	전기, 전자제품 등	국제가전통신 박람회(IFA)	9.4 ~ 9/베를린
조선	선박부품, 기자재 등	조선 및 해양기자재 전람회(SMM)	9.8 ~ 11/함부르크
자동차	자동차부품 등	자동차부품 전시회(Automechanika)	9.8 ~ 12/프랑크푸르트
금속	기계, 정밀기계 등	금속가공 전시회(AMB)	9.15 ~ 19/슈투트가르트
소비재	유아용품	유아 및 아동용품 전시회(Kind+Jugend)	9.17 ~ 20/뮌헨
소비재	재활용품 등	국제재활용품 박람회(Rehacare)	9.23 ~ 26/뒤셀도르프
출판	서적, 출판사 등	국제도서전(Buchmesse)	10.14 ~ 18/프랑크푸르트
가구	가구	국제가구 전시회(IMM)	10.27 ~ 31/뮌헨
의료기기	의료기기 등	의료 박람회(Medica)	11.16 ~ 19/뒤셀도르프

부록

對독일 K패키지(양국 간 상생협력방안)

I. 한-독일 상생협력 필요성과 미래비전

가. 독일의 협력 잠재력과 주요국 협력 현황

 독일의 잠재력

- 세계 4위 경제대국이자 유럽 최대의 시장
 - * GDP : 세계경제의 5%에 해당하는 4조 달러(2018년), 미·중·일에 이은 세계 4위의 경제대국
- 세계 최대 경제 블록인 EU의 최대 시장이자 교두보
 - * EU : 28개국, 인구 5.1억, GDP 17조 달러(2018년), 독일은 EU의 GDP 20%를 차지
- 제조업 및 중소기업 기반 경제구조
 - * 자동차·화학·기계 산업이 강하며, 1,500여 개의 히든챔피언(강소기업)이 경제를 뒷받침
- 4차 산업혁명의 일환으로 제조업과 ICT 기술 융합 추진
 - * 2020년까지 전 독일의 스마트 공장화 추진, CPS(사이버물리시스템) 세계 선두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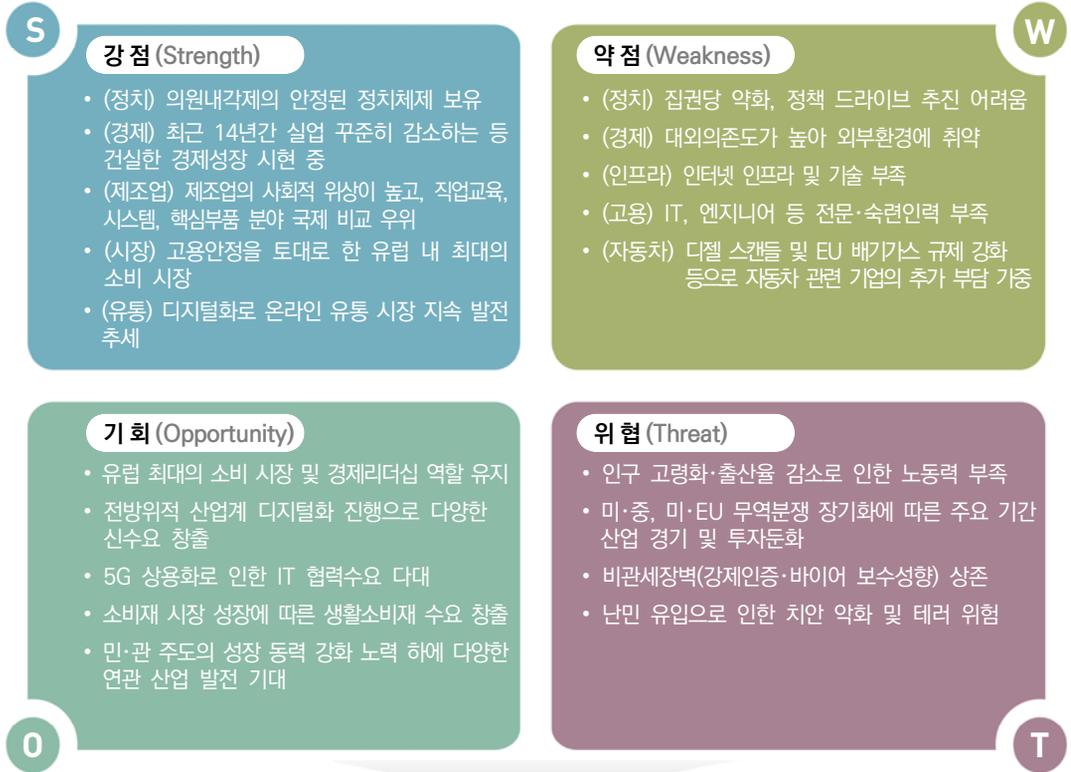
 주요국의 대(對)독일 경제협력 현황

- 독일 시장의 잠재력과 중요성을 높이 산 주요국은 다각적 차원에서 독일과의 협력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는 실정

주요국의 대(對)독일 협력 현황

주요국	경제협력 전략 및 진행사항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은 독일의 전통 우방국으로 수십 년 간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 · (무역) 미국은 독일의 최대 수출국이자(2018년 1,340억 달러) 4위 수입국(2018년 : 763억 달러) · (투자) 독일 기업은 미국에 총 3,200억 달러를 투자(최대 투자국)하고 67만 명을 고용한 반면, 미국도 독일에 1,080억 달러 투자 및 67만 명 고용 · (R&D) 미국 기업, 독일 R&D에 83억 달러 투자, 독일 기업은 미국 R&D에 71억 달러 투자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은 중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시 여기며, 메르켈이 최근 14년간 중국을 12번 방문 · (무역) 중국과의 교역규모는 거의 2,000억 달러로 독일이 중-EU 교역의 1/3을 차지 · (투자) 독일, 중국에 810억 달러를 투자, 중국은 M&A로 독일 기술기업 매수 추세 · 독일은 중국의 외투기업 규제, 지식재산권 침해, 홍콩 이슈 등에 불만이 있으나 중국과의 만남에서 언급을 자제하는 편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은 아시아에서 중국 다음으로 중요한 경제 파트너이며, 거의 매년 정상회담 개최 · (무역) 독·일 교역량은 424억 달러이며, 2018년 EU-일본 FTA 체결 후 교역이 증가할 전망 · (투자) 특히 일본의 독일 직접투자 M&A 증가 추세, 최근 10년간 2배 증가(2017년 : 25억 달러) · 독일 기업은 특히 동남아에서 일본 기업과 전략적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다대

독일 시장진출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부록

전략방향	세부전략	진출전략
SO 전략 (역량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 4차 산업 관련 분야 우선 공략 • 주요 R&D 기반 프로젝트 참가기회 발굴 	미래자동차·IT(5G) 등 신기술·고부가가치 협력기회 발굴
ST 전략 (강점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실가스 감축 조치로 인한 시장기회 발굴 • K-Beauty 등 트렌드에 편승해 유통채널 확대 및 공략 품목 다변화 	독일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참여 확대, K-Beauty 붐 적극 활용
WO 전략 (기회 포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성장 및 고부가가치 시장 개척 및 표준화 및 R&D 협업 강화 • 주요 산업별 실수요에도 적극 대처 	시장 선점 공략 및 표준화 선도
WT 전략 (위협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화·저출산으로 노동력 부족현상에 주목 •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양국 간 협력 활용 	韓 전문 인력 유치 취업기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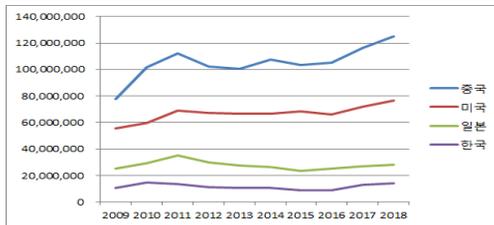
한-독 양국은 민족분단의 경험을 공유한 역사적 유대감에 바탕을 두고 수교 이래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

○ 1883년 11월(고종 20년), 조독수호통상조약 체결

- 1955년 12월 서독과 대한민국의 외교관계 재개, 1958년 8월 대사관 설치
- 특히 독일은 1960년대 재정·기술원조 및 간호사·광부 파견을 통해 한국의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한 바 있음
 - * (1961년 12월) 경제 및 기술원조에 관한 의정서, (1964년 12월) 한독 재정원조에 관한 협정 등
- 2011년 7월 한-EU FTA 체결, 한-EU 및 한-독 교류 크게 증가
 - * 2016년 한-EU FTA 시 양측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줬다는 평가가 대다수
 - ** 한-EU 상품교역은 25%(총 900억 유로), 서비스교역은 30% 증가
- 독일 500여 개 기업이 한국에, 국내 200여 개 기업이 독일에 진출
 - * 독일 기업의 주요 진출 분야는 화학, 자동차 및 기계설비, 부동산, 금융 분야

한국-독일 및 주요국 교역·투자 동향

1. 독일의 연도별 주요국 수입액(단위 : 천 달러)



- 2018년 독일 주요국 수입액은 중국 1,252억 불, 미국 763억 불, 일본 280억 불, 한국 143억 불 규모
- 2017~2018년도 증가율로 비교 시, 미국 약 10%, 중국 5%, 일본 4%, 한국 11%로 주요국 대비 높은 증가율 추세
- * 특히 최근 5년 대한(對韓) 수입이 크게 증가(+33.4%)

자료 : ITC(2019년 10월)

2. 대(對)독일 한·중·일 수출 상위 5개 품목(HS코드 2단위, 2018년 기준)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한국	전자기기	기계	자동차	의약품	플라스틱
중국	전자기기	기계	의류	가구	광학기기
일본	기계	전자기기	자동차	광학기기	유기화학

- (수출경합도) 대(對)독일 수출 상위 5대 품목 가운데, 한국과 중국은 2개 품목, 한국과 일본은 1~3위 품목이 겹침
- 자료 : 국제무역센터(2019년 10월)

3. 대(對)독일 투자진출 현황(2017년 기준)

순위	국가	비중
1	네덜란드	19.0
2	룩셈부르크	17.2
3	미국	9.8
4	영국	8.7
5	스위스	8.3
6	프랑스	6.5
7	벨기에	4.4
8	이태리	3.9
9	오스트리아	3.4
10	일본	3.0

- 한국의 대(對)독일 직접투자자는 주로 판매법인·연구소 위주
- 일본이 5.5%를 차지하는 반면, **한국은 약 1.8% 차지(9위)**
- 특히 중국·일본이 독일에서 기술기업 M&A를 주도하는 반면 한국 기업 진출사례는 매우 적음
- 전체 투자 비중은 제조업(45.3%)이 가장 높으며, 운송, 창고업(10.3%), 건설업(10.8%), 무역업(9.2%), 금융서비스업(9%) 순

자료 : 수출입은행, 독일 연방통계청(2019년 10월)

자료 : 독일 연방통계청(2019년 10월)

나. 한-독 상생협력 미래비전 도출



독일, '국가 2030 전략' 발표, 독일의 기술경쟁력 및 주요 산업 리더십 보존을 위한 미래 핵심기술 지원·보호의지 표현

독일의 협력 수요 산업

산업		구체적인 수요(협력방향)
미래자동차	신재생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발전을 위한 독일 혁신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ICT 인프라 분야가 뒤떨어짐
ICT(5G, 플랫폼 경제)	K뷰티 등 소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자동차 산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차 리더십 유지
전기전자, 가전	기계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산업 기술 리더십 유지·탈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바이오, 나노, 신소재 등
항공우주	보건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차 산업 분야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CT(5G), 스마트팩토리 등 ◆ 제조역량 공유(투자유치-수출연계)

독일(EU)의 권역별 협력 수요

권역	내용
북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적인 우방국인 미국과 경제·정치·국방·문화적 네트워크가 강함 · 독일 제조업 기업의 대미(對美) 투자 증가 추세(트럼프 압박) · 특히 스마트팩토리 분야에서 미국 기업과 협업 증가 추세
남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7월 EU-MERCOSUR FTA 체결 · 아르헨티나, 브라질과의 통합적인 협력방안 모색 · 독일은 남미 다수 국가와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화 협업 진행 중
아시아·태평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과의 관계를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 대(對)중국 관계 확대 · EU 차원에서 체결한 한국, 일본과의 FTA 적극 활용 · 인도-EU의 FTA 체결 고려 중

우리나라도 유럽 시장 진출 핵심 교두보인 독일과 경험개발 노력

(최근 양국 G2G 레벨 회담에서의 주요 협력 논의 분야) 4차 산업혁명 등 제조업, ICT, 신재생에너지, 취업·창업 등

독일 수요 대비 우리나라의 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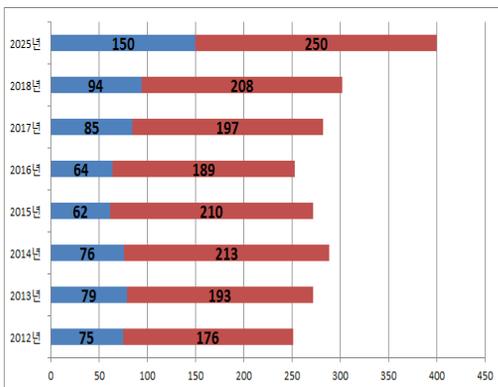
협력 우선 산업		구체적인 역량
미래자동차	신재생에너지	◆ 제조기술·생산능력 전 세계 최상위국 - Bloomberg Innovation Index 2018 5년 연속 1위 ◆ 전통적 ICT 강국 - IT·정보통신 국가기술력 세계 11위(Business Insider, 2017년 6월) - 세계 최초 5G 도입 ◆ 높은 전문 인력·기술 보유 - 대학 졸업자 비율 약 68% ◆ 미래자동차(전기차·수소차) 선두주자
ICT(5G, 플랫폼 경제)	K뷰티 등 소비재	
전기전자, 가전	기계장비	
항공우주	보건의료	

양국 경제협력을 통해 2025년 교역액 400억 달러 달성 목표설정

교역액 목표설정 근거

- ◆ 2025년 양국 교역 400억 달러 달성 목표
 - 2018년 교역 302억 달러 대비 98억 달러, 32% 증가치
 -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므로 관련 품목 교역이 크게 증가할 전망

〈대(對)독일 교역 추이 및 목표〉



자료 : 무역협회(2019년 10월)

〈대(對)독일 향후 유망품목〉

근거	
자동차	미래자동차 위주 급성장
건전지·축전지	獨 전기자동차 산업 증가추세
반도체	4차 산업혁명 핵심 리소스
자동차부품	미래자동차 부품 중심으로 증가세
합성수지	독일 수출 지속적 증가추세
통신기기	5G 도입으로 인한 수요 발생
화장품	K-Pop, K-Beauty 수요 증가

한-독 미래비전 및 실현 전략으로서의 K패키지

경제협력대상국을 확대하기 위해 세계 최대 성장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아시아국가와의 경제협력다변화를 추구하는 독일과 전략적 협력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과 협력 및 협력분야와 방식의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한국 간 경제협력을 통한 미래 공동 지향점 설정

* 경제적 관점에서의 접근, 외교, 안보, 정치 및 문화 등의 분야 추가적으로 반영 필요

2020년 상생협력 가능 분야	
분야	상생협력 내용
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일, 전문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해외인력 채용 확대 (해외취업) IT·엔지니어링 등 韓 기술인력 채용 트렌드 활용 (플랫폼) 독일 기업·국내 인력 수시 매칭 가능 플랫폼 구축
미래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일, 2022년 전기자동차 100만 대 보급 전망 전기차·수소차 등 미래자동차 기술협력 강화 E-Mobility 확대로 변하는 밸류체인 변화에 주목
ICT(5G)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일, 2019년 하반기 5G 상용화 개시 도이치텔레콤 등 주요 통신사와 5G 협력 강화 5G 선두주자인 강점을 심분 활용, 협업 관계를 주도
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 정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비중 제고 (신재생) 2022년 원자력, 2038년까지 석탄발전 중단, 신재생 수요 급증 (풍력) 세계 1위 기술력을 확보한 독일과 협력 증대 필요
K-Beau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일 내 K-Beauty 붐에 편승한 공급 품목 다변화 품목·유통채널 다변화를 위해 K-Beauty의 독일 안착 국내 화장품 브랜드화 강화로 K-Beauty의 고급 이미지 구축

우리 청년에 독일 취업기회 제공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기술 협력기회 발굴

II. 주체별 상생협력 과제와 실행방안

가. 獨 정부의 해외 우수인력 유치 적극 지원, 韓 청년실업난 완화

한국의 강점 분야인 IT, 엔지니어 등 이공계 인재 취업기반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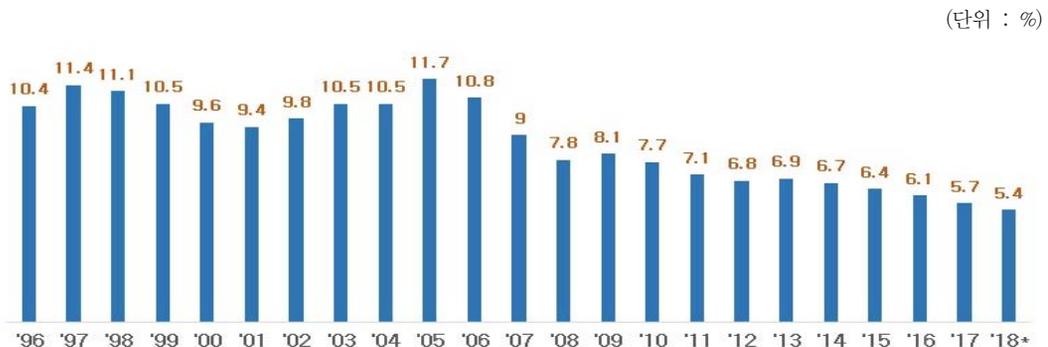
① 독일, 해외인력 채용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보 노력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독일, 고령화·출산률 감소에 따른 기술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해외인력 적극채용 검토
- 수요분야는 IT·엔지니어링·이공계·의학 등 한국의 강점 분야, 우리 청년 해외취업 기회 제공 가능
- 현지 기업·국내 인재를 손쉽게 매칭할 수 있는 플랫폼 절실

- 독일의 경제활동 인구 대비 노인(65세 이상) 비율 : 32.8%
 - 이탈리아(35.2%)·핀란드(34.2%) 등에 이은 EU 5위(2018년 기준)
 - 연금·의료 등 복지비용 증가에 따른 국가재정 부담이 가중
- 독일 정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국 내 노동력이 부족한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해외인재 적극 유치 중
 - * 특히 수학, IT, 자연과학, 의료산업의 앞 자를 탄 'MINT' 산업 인재가 매우 부족, 관련 취업자에게 블루카드를 제공하고 최소 21개월 근무 후 영주권 발급

1996~2018년 독일 연평균 실업률 현황 및 전망



자료 : 독일연방노동청(2019년 10월)

② 한-독 상생협력 실행방안

① (유럽잡) 독일·유럽에 특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채용플랫폼 구축

- (배경) 우리나라 청년들의 유럽 일자리 선호도는 높은 반면, 구인기업, 구직자 정보 및 유럽에 특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은 부족한 환경
 - 독일을 포함한 유럽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월드잡 플러스를 통해 구인기업의 정보를 제공하여 일자리를 매칭하고, 해외취업 책자*를 제작, 배포하여 국가별 고용환경, 유망직종 등을 소개하고 있음
 - * 해외취업 완전정복, 해외취업 25개국 취업정보 등
 - 그러나 여전히 독일, 유럽의 현지 구인 기업은 구직자의 보유 역량에 대해, 청년 구직자는 독일 기업 및 한국 진출기업정보(주요 사업 및 수행 예정 업무, 복리후생 등)에 대해 상호 정보가 부족
 - * 구직자에 있어, 독일 취업 핵심 성공 요소는 ①언어, ②업무경력, ③전공분야 순이며, 현지 채용기업들은 구직자들이 최소한 워킹 홀리데이 비자만이라도 소지하길 희망

2018년 독일 채용박람회 참가 24개 기업 설문조사 내용

질 문	긍정 답변 비율
유럽에 특화된 온라인 채용 플랫폼 필요?	65%
월드잡 사이트 편의에 만족?	28%
월드잡 사이트 추후 이용 의향?	13%

- 또한 월드잡 플러스는 한국 체류 구직자가 주로 사용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유럽 성공 취업자 중 해외에 기 체류한 경우가 90% 이상

유럽 체류 유학생·구직자에 특화된 전문 플랫폼 구축 절실

- 유럽 구인기업·구직자 온라인 DB 구축 필요
- 유럽에 특화된 취업정보(비자, 취업환경, 유망산업 및 직종, 주요 행사, 서류·인터뷰 노하우 등) 제공 및 Q&A 기능 활성화 중요

- (추진내역) 유럽에 거주하는 구직자들의 K-Move 사업 참여 유도 및 확산을 위해 유럽잡 사이트 확대 추진, 7월 1일 구축 완료
 - * 링크 : europejob.org
 - (DB 구축) 유럽 구인기업·구직자 온라인 DB 구축, 양방 주요 정보 필터링 기능 추가
 - * 7월 1일 구축 완료 후 구직자 209명, 구인기업 45개 등록
 - (편의성 개선) 디자인 및 필수 입력정보 간소화로 고객의 사용편의 개선, 시스템 내 구인기업·구직자 연락을 유도하여 실적집계 용이
 - * 대부분 기업회원들이 월드잡 등록이 어렵다고 호소하며 무역관이 입력을 한 경우가 자주 있었으나, 유럽잡 등록은 기업이 모두 직접 완료

- (양방 검색 기능) 구직자들은 구인기업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반면, 구인기업도 구직자의 이력서를 열람할 수 있어 매칭 가속화
 - * 무역관은 Admin 역할을 하면서 구직자·구인기업 활동 모니터링 기능, 차후 실적 집계 시 용이하게 설계
- (기대성과) 유럽 맞춤형 DB 구축으로 향후 K-MOVE 사업 효율성 극대화
 - (단기) 유럽 소재 구인기업·구직자의 진입장벽 완화로 인해 K-Move 사업의 활성화 유도
 - * 2019년 구직자 500명, 구인기업 70개 달성 목표
 - (장기) 유럽 특화 취업 플랫폼 활성화를 통해 구인처 발굴·취업 실적 제고, 구인기업·구직자 데이터 베이스 온라인 구축 및 효율적 관리 가능
 - (한·독 협업) 독일 고용노동부 해외유치 산하기관 ZAV, 독일 상공회의소 등을 통해 독일 기업·구직자 등록 유도
 - 또한 유럽 무역관을 활용해 유럽잡 사용을 독일 시장으로 제한하지 않고 유럽 K-Move 담당 무역관 소재 구인기업 및 구직자 정보 게재 유도
 - 현재 등록 기업 중 독일 지역 진출기업이 대다수이나, 점진적으로 현지 기업 등록을 유도하여 우리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
- ② (채용박람회) 독일 기 진출 청년인력에게 면접 및 취업기회 제공
 - 1년 1회 개최, 구직자 200명 참여, 연 채용 20명 목표
 - 즉석 면접 및 온라인 화상면접을 통해 참여도 극대화

사례 1 한-유럽 취업박람회 2018 개최 현황

- 일시 : 2018년 11월 20일(화), 오전 9시~오후 5시
- 장소 : 독일 프랑크푸르트, HOLM 빌딩
- 주최·주관 : 고용노동부, KOTRA, 독일 상공회의소(IHK Frankfurt)
- 참가규모
 - 구직자 : 100명(제3국 거주 원격화상 인터뷰 참가자 10명 포함)
 - 구인처 : tecmata, 한화유럽 등 24개사

취업박람회 사진 1 - 화상 상담회



취업박람회 사진 2 - 면접 진행



- 주요 성과
 - 계량 : 100명 250건 면접 진행, 5명 채용 확정
 - * 덴티움(치과용 임플란트), 오스텍(치과용 임플란트) 각 2명, 포인트 모바일(산업용 PDA) 1명
 - 비계량 : 취업 면접과 온라인 화상면접을 병행, 한국 거주 취업지망생에도 유럽 취업기회 제공

나. 미래자동차 밸류체인 변화로 인한 기회 포착

친환경자동차 및 자율주행 기술 확대 보급에 편승해 새로운 진입기회 창출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독일, 2030 기후 위기 대응책 발표, 친환경자동차 수요 확대에 박차
- 주요 완성차기업, E-모빌리티 자동차 개발 및 출시에 역량 집중, 밸류체인 변화 가시화
- 차세대 친환경차 시장에서는 전기차와 수소연료전지차가 서로 보완적인 역할 기대

① 독일 정부, 2030 기후보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추가 대응책 발표

- (배경) 2019년 1990년 대비 CO₂ 약 30% 감축에 성공했으나, 2020년 40%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전망
- (목표)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CO₂ 55% 감축, 현재 연 8억 6,600만 t → 연 5억 6,300만 t, 총 예산 500억 유로
- (친환경자동차) 전기차 보조금 지원 확대, 자동차세 면제, 수소화물차 구매 지원 등으로 친환경 자동차 지원 확대
 - (보조금) 4만 유로 미만 전기차 구입 시 최대 6,000유로 구매 지원
 - (자동차세) 2025년까지 전기자동차 자동차세 면제
 - (수소화물차) 전기 및 수소 화물자동차 구매 지원, 2030년까지 친환경 화물차 비중을 1/3로 확대 추진

독일 2030 기후보호 위기 대응책 주요 내역

분야	내역
난방	· 2026년 기름·화석연료 난방시설 신규 설치 금지 · 기존 난방시설 친환경 난방 교체 지원
자동차	· 친환경자동차 지원 확대(전기차 보조금 지원 확대 및 자동차세 면제 등) · 가솔린·디젤 세금 인상(2021년 : 3ct/l, 2026년 : 9~15ct/l 인상)
세제혜택	· 원거리 철도티켓 부가세 인하, 통근비 공제 확대 등
탄소 거래권	· CO ₂ 가격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10유로에서 35유로로 인상할 전망

자료 : 독일 일간지 FAZ(2019.9.24.)

② 독일 완성차기업, 천문학적인 금액을 미래 기술에 투자

- 獨 자동차 기업, 향후 3년간 E-모빌리티 분야 관련 400억 유로, 디지털 커넥티드카 및 자율주행 기술에 180억 유로 투자 예정
 - (전기차) 향후 3년 내 VW를 필두로 벤츠, BMW, Audi 등 독일 완성차 기업은 약 100개의 신규 전기자동차 모델 출시 전망
 - (수소차) Audi, Bosch, ElringKlinger, Mahle, 콘티넨탈 등 수소연료 전지차 관련 기술 개발에 역량 집중, 독일정부 차원에서도 수소전략 추진 결정, 2019년 말 최종 전략콘셉트 발표 예정
 - (자율주행 기술) 2022년 5월 이후 신규 출시 차량모델에 각종 안전장치 의무화 시행이 유력한 가운데 관련 기술연구 수요 확대
- Daimler
 - 현재 중형급 전기자동차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수행 중
 - 2022년까지 10개의 전기차 모델 출시 예정

- BMW
 - 2023년까지 25개의 전기자동차 신규 모델 공급 예정
 - CEO 크뤼거(Harald Krueger), 전기자동차 판매 비중을 연 30% 이상 확대 촉구
- Volkswagen
 - 2022년까지 전기차 총 2,200만 대 생산 계획
 - 2028년까지 70개 전기차 모델, 30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공급 계획 발표
 - 2040년 이후 모든 내연기관차 생산 중단 예정
- Audi
 - 2025년까지 30개의 전기자동차 모델 출시 계획 발표

3 한-독 상생협력 가능 사업

- Global Partnering Europe 사업
- 한-독 미래자동차 관련 세미나

사례 2 Global Partnering Europe 사업

- 일시/장소 : 2019년 11월 12일(화)/독일 프랑크푸르트
- 주관 : KOTRA, 협업기관 : KAICA, 지자체, 獨 정부산하기관
* 바덴뷔르템베르크·헤센 주정부 산하기관, VDA(독일연방자동차협회)
- 참가규모 : (韓) 미래차 산업, 위기산업분야, 대체소재부품 분야 40개
(獨) 바이어, R&D 및 정부정책기관 80여 개사 등 총 120개사
- 주요 프로그램
 - ① GP 전시 상담회
 - (유럽) Daimler, BMW 등 글로벌 기업 30개사, 소재분야 일반기업·기관 50개사
 - (韓) 중소중견 부품소재기업 30개사
 - ② 미래차 세미나(Innovative Growth in Future Car)
 - (유럽) Daimler, BMW, VDA(독일자동차산업협회) 등
 - (韓) 현대자동차, 생산기술연구원 등
 - ③ 위기지역 조선업 지원 상담회
 - 국내 조선분야 기업 5개사, 유럽 바이어 10개사(부산·경남지원단 협업)
 - ④ 대체 수입선 발굴 상담회(일본 수출규제 대응)

- 국내 수요기업 5개사, 독일 기업 5개사
 - * 산자부 산하 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와 논의 중
- 한-독 협업기관
 - (독일) 독일연방 자동차 산업협회(VDA), 헤센 주정부, 헤센 경제진흥기관(HTAI),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정부 산하기관, 상공회의소 등
 - 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 생기연(KITECH) 등

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5G·IT 관련 기술 공동개발

5G 선두주자로서의 강점을 심분 활용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독일, 2019년 초 5G 주파수 경매 완료, 하반기 상용화 개시
- 독일 최대 통신사인 도이치텔레콤 비롯, 주요 통신사들은 韓 기업과 5G 협력을 강화
- 2025년까지 독일 인구 98%를 5G에 연결하기 위해 최소 500억 유로 투자

① 2025년 전국 '5G Connectivity(5G 연결)'를 달성하기 위해 박차

- 독일 5G 주파수 경매입찰 마감, 입찰가 65.5억 유로 기록
 - 도이치텔레콤(Deutsche Telekom), 보다폰(Vodafone), 텔레포니카(Telefonica/O2), 1&1 드릴리쉬(1&1 Drillisch) 등 4개사가 입찰에 성공(2019년 6월 11일)

독일 5G 주파수 경매입찰 금액

(단위 : 억 유로)

기업명	총 금액	2GHz 주파수	금액	3.6GHz 주파수	금액
1&1 드릴리쉬	10.70	2X10 MHz	3.35	50MHz	7.35
도이치텔레콤	21.75	4X10 MHz	8.52	90MHz	13.23
텔레포니카	14.25	2X10 MHz	3.81	70MHz	10.44
보다폰	18.80	4X10 MHz	8.07	90MHz	10.73
총 금액	65.5	-	-	-	-

자료 : 독일 일간지 FAZ(2019.6.12.)

- 도이치텔레콤, 보다폰 등 주요 통신사 5G 상용화 본격화
 - 도이치텔레콤, 2020년까지 20개 도시에 5G를 도입하여 2019년 독일 인구의 2.5%, 2025년까지 99%를 5G와 연결한다는 목표를 공개
 - 보다폰도 2019년 7월 5G 상용화 개시, 쾰른, 뒤셀도르프, 함부르크, 뮌헨, 도르트문트에 5G 도입, 2021년까지 사용자 2,000만 명 목표

② 한국 콘텐츠 및 애플리케이션 관련 기술협력 추진

- 한국이 5G를 '세계 최초로 도입한 나라'라는 사실을 적극 활용 필요
 - 독일 및 유럽 통신사와 협업할 경우 한국에서 서비스 실행 여부 및 성과 제시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
 - * 5G 활용 서비스 시장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으므로, 창의적임과 동시에 한국에서 상용화 및 Reference가 있는 서비스일 경우 유럽 진출 유력
 - 한국은 전형적인 Early Adopter 시장으로 신기술 또는 새로운 기기 등이 매우 빨리 배포되는 편인 관계로 유럽 신기술 기업이 관심이 많은 시장
- (서비스) 독일 통신사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거나 5G 세대의 캐시카우(Cash Cow)가 될 수 있는, 수익성이 높은 '킬러앱'을 개발하는 기업과 협업 환영
 - (비용절감) 유럽 통신사들이 독일 주파수 경매 과정에서 예상보다 높은 금액이 소요되어 5G 인프라에 투자할 자본이 부족하며, 따라서 5G 관련 비용을 절감하는 기술을 지닌 기업이면 환영
 - (캐시카우) LTE(4G) 세대의 진정한 캐시카우는 유튜브라고 대부분 인지하고 있는데, 아직 5G에 특화되어 거대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킬러앱'은 개발되지 않았음
 - (Campus Network Solution) 독일 정부는 기업, 연구소 등이 스마트팩토리 등을 위해 직접 5G 주파수를 구매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았는데, 이러한 독립된 5G망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술이 캠퍼스 네트워크 솔루션(Campus Network Solution)임

③ 한-독 상생협력 가능 사업

- 한-독 정보통신 협력 포럼 운영
- 한-독 Smart City 포럼 개최
- IFA 전시회 등에 주요 발주처·정책개발자 초청 및 기업 상담회·세미나 개최

사례 3 SK텔레콤 - 도이치텔레콤 협업 추진 중

- (협업 계기) SK텔레콤과 도이치텔레콤은 2014년부터 양사 간 정보 공유를 시작했으며, 도이치텔레콤에서 SK텔레콤 CTO를 영입한 후 두 기업의 협력이 긴밀해짐
 - * 도이치텔레콤은 2019년 6월 회장 등 임원 60명이 'SKT 벤치마킹'을 위해 방한하는 등 SK텔레콤과의 협업을 중요시 여김
- (R&D) 2019년 6월 공동개발 연내 합작회사 설립계획 발표, 5G 초저지연 영상 전송기술(MMT : MPEG Media Transport), 5G 중계기 및 인빌딩 솔루션, Multipath UDP 등을 공동 개발할 계획
 - * 이미 2019년 2월 MWC 전시회 시 두 회사는 5G 네트워크, 미디어, 보안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

- (투자) SK텔레콤, 도이치텔레콤 산하 VC인 DTCP(Deutsche Telekom Capital Partners)가 운영하는 펀드에 3,000만 달러 투자 결정
 - 현재 DTCP는 함부르크, 샌프란시스코, 텔아비브에서 5G·IoT·AI·빅데이터 관련 기업에 투자 중인데, 서울에 아시아 사무소를 신설하고 아시아 관련 기업에 투자를 개시할 전망
 - 또한 양사는 각각 자회사에 상호 투자를 하여 5G, 차세대 미디어 등의 분야에서 협력기회를 공동으로 모색
- * 도이치텔레콤은 SKT 자회사인 IDQ에, SKT는 도이치텔레콤 자회사 MEX에 각각 투자

SKT-도이치텔레콤 양자회사 설립 서명식



자료 : 도이치텔레콤(2019년 9월)

양사 5G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라. 풍력에너지, 수소경제 등 한-독 신재생에너지 협업 추진

독일의 탄소배출 절감 및 에너지 전환 정책 적극 활용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독일, 2022년 원전, 2038년까지 석탄발전 전면 폐기 계획
-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40%, 2050년까지 80~95% 감축하는 EU 공동 목표 이행을 위해 재생에너지 생산 및 소비량 확충 가속화
- 친환경 녹색당 지지율이 20%를 넘어가는 등 전 국민이 친환경 에너지 정책 및 탄소배출 감소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

① 신재생에너지 분야 주요 현황

- 2018년 국가 소비전력량의 40%를 신재생에너지로 조달, 비중을 2050년까지 80~95%로 증가 목표
 - (풍력) 독일, 유럽 최대 풍력 선도국, 신재생에너지의 48.9% 차지
 - * 400만 가구 이상 공급, 매년 30억 유로 이상 투자
 - * 현재 설치용량 6.6GW, 2025년까지 10.8GW로 증가 전망

- (수소경제) 독일은 자국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소인프라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 중
 - * 2019년 6월 기준 71개의 수소충전소를 2025년 400개로 확충 계획 추진 중
 - * 2019년 말 발표 예정인 '독일 국가수소전략(NSW)'은 독일 에너지 정책의 중점 어젠다로 부상 예정

연도별 독일 에너지 자원별 생산

(단위 : 10억 kWh)

에너지원		1995년	2005년	2014년	2018년
갈탄		143	154	156	146
경탄		147	134	119	83
원자력		154	163	97	76
천연가스		41	73	61	83
석유		9	12	5	5
신재생	풍력(Onshore)	1	28	57	94
	풍력(Offshore)	0	0	2	19
	수력	21	20	20	17
	바이오매스	1	12	42	46
	태양광	0	1	36	46
	유기폐기물	1	3	6	6
기타		18	24	27	27

자료 : 독일 경제에너지부(2019년 9월)

2 한국 정책과 맞물린 협력사업 발굴

- (3020 전략) 한국도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 풍력에너지 등 친환경에너지 확대 정책을 본격화
 - 서해안 및 울산 등지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 중이므로 해상풍력 관련 기업 및 기관 간 협력 증대 필요
 - 특히 독일 해상풍력 기업의 대형터빈 제작 역량 및 실제 운영 노하우를 한국이 보유한 세계적인 조선해양산업 기술력과 결합하여 해상풍력 분야 경쟁력 강화 가능
 - 세계 유일하게 에너지 전환에 성공한 독일 산·학·연과 지속적 교류 필요
- (수소산업) 한국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통해 강점 분야인 수소차와 연료전지를 중심으로 한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 중
 - 독일은 수소인프라 구축을 선도하고 있으므로 쌍방향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가능
 - 독일 수소전략과 연계한 자동차 산업을 뛰어넘는 에너지 경제를 위한 공동 협력 사업 네트워크 구축 기회 모색
 - 이에 편승해 수소자동차 관련 협업을 그린 수소 관련 협업으로 확대 추진 필요, 화학, 철강, 연료전지 분야 등 활용 가능성 다대
 - * 독일 내 선도 기업은 지멘스(Siemens), GE Power, MAN 등

③ 한-독 상생협력 실행방안

- GP 사업 시 수소차 유망바이어 모집 및 우리 Tier 1, 2 기업 매칭
- 독일 수소인프라 구축 기관(H2 모빌리티, NOW GmbH 등)과 국내 수소산업 유관기관(수소산업 협회 등) 및 수소차·연료전지 관련 제조기업 간 정기 교류체제 구축
- 독일의 해상풍력(Offshore) 대표기업과 한국의 해양산업·조선기자재 기업 간 파트너링 사업 추진

마. 유럽 최대 소비 시장 독일에 K-Beauty 안착

품목 다변화와 'K-Beauty' 브랜드화 추진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유럽 최대의 화장품 시장인 독일의 입지를 최대한 활용
- 독일 내 K-Beauty 붐에 편승한 대형 유통망 내 입지 구축 및 공급 품목 다변화가 중요
- 차후 K-뷰티 붐에 편승해 식품류나 소형 가전을 위시한 기타 소비재 시장 수요 공략 확대

① K-Pop 열풍에 힘입어 K-뷰티 수요 지속적 증가 추세

- 독일 화장품 시장은 유럽 최대 규모 시장이나(2018년 : 138억 유로), 성장률 2%에 불과한 성숙된 시장
 - (K-Beauty 약진) 단, 한국 화장품 소비는 독일에도 도착한 K-Pop 및 K-Beauty 열풍에 힘입어 급성장 중
 - * 2018년 독일의 한국 화장품 수입, 2013년 대비 11.5배 증가(CAGR : 63%)

독일의 한국 화장품 수입규모, 2014~2018년

(단위 : 만 달러,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대(對)한국 수입액	505	578	1,518	2,366	3,803
전년 대비 수입 증가율	53.3	14.4	162.7	55.8	60.8

자료 : 국제무역센터(2019년 9월)

- (인기비결) 한국 화장품의 패키징·디자인·기능성이 호평을 받으며, K-Pop·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통해 젊은 여성고객 다수 확보
 - (패키징·디자인) 한국 화장품은 유럽 시장에서도 상당히 고가이나,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고 있으며, 패키징 및 디자인도 훌륭하다는 평가
 - (기능성 선호) 한국 화장품이 갖고 있는 추가 기능성(Anti-Aging 등)에 대한 고객의 선호도가 높음

- (인플루언서 마케팅) 화장품의 잠재 소비자층인 젊은 여성 소비자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정보 공유, 인플루언서 마케팅 효과가 높은 편

② 품목·유통채널 다변화, 브랜드화로 독일에 K-Beauty 확대 및 대중화

- (품목다변화) 천연화장품·비건 등 독일 최신 트렌드에 적합한 상품 출시 및 미개척 색조 시장 공략
 - (천연화장품) 독일은 유럽 최대 규모의 천연화장품 시장이자, 시장 규모가 10년간 2배로 증가
 - (색조 시장) 현지 트렌드 및 소비자들의 최근 관심사를 분석한 후 국내 기업이 상대적으로 약한 색조 시장 진출 필요
- (유통다변화)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멀티유통 필수, 코스메틱 스튜디오·호텔·미용실 등 다양한 공급선 발굴 추진 필요
 - (멀티유통) 온라인 마케팅에만 집중하기보다 상대적으로 제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오프라인 마켓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유럽인들의 특성을 감안, 멀티유통 전략 중요
 - (공급선 발굴 확대) 대형 온라인 공급선(Amazon)이나 TV 홈쇼핑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공급선 발굴 노력 필요
- (브랜드화) 독일은 글로벌 화장품 제조사의 경쟁이 매우 치열한 시장이나, 'K-Beauty' 자체의 브랜드화로 노네임 중소기업의 해외진출도 활발
 - 한국 제품이 대거 공급되면서 'K-Beauty'라는 브랜드 대비 개별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는 부족, 매력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홍보하며 타제품 대비 차별화도 중요
 - * 특히 유관 전시회나 다양한 기획 이벤트, 인플루언서 등 다양한 통로를 이용한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통합 마케팅 추진 필요

③ 한-독 상생협력 실행방안

- K-Beauty 2019 사업으로 국내 기업과 대형유통망 매칭
- 인플루언서·유튜버·블로거 등을 활용한 홍보사업 지원
- 독일 인증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국내 기업 진입장벽 완화

사례 4

K-Beauty in Europe 2019



K-Beauty 고급화, 글로벌화를 위한 유럽 시장 진출

- 아시아 중심의 K-Beauty 붐의 유럽지역 확산이 필요하나 인증, 글로벌 브랜드 등의 높은 진입 장벽으로 인해 시장 진출 애로

* 유럽, 아시아에 이어 세계 2위 시장(22.8%, Euromonitor)

- 스킨케어 등 검증된 분야의 선별된 기업들로 국내 기업들의 메인 스트림 시장 진출 강화

* 유럽지역 선호 품목 : 스킨케어(20%) > 헤어케어(13.9%) > 색조(13.1%) 순

유럽 1위 화장품 시장에서 凡유럽권 사업 추진

- 유럽 1위 화장품 시장인 독일*에서 실질적인 상담과 브랜드 제고를 위한 체험형 활동 병행을 통한 성과 제고 추진

* 유럽 화장품 시장 : 獨(17.7%) > 英(15.6%) > 佛(13.8%) > 伊(10.6%) 순

- K-Beauty의 브랜딩(PR)과 유력 유통망과의 B2B 상담추진을 통해 주요 타깃층(15~18세)을 뛰어넘는 소비자층 확보 및 지속성장 발판 제공

추진방향

- 브랜드 제고를 위한 체험형 활동과 B2B 상담의 적절한 배합
- 유관기관들의 대거 참여를 통한 유럽 대표 뷰티사업으로 확대
- 온라인 콘텐츠 제작을 통한 K-Beauty의 지속성장성 확보 추진

사업개요

- 일자/장소 : 2019년 10월 29일(화)/프랑크푸르트

- 참가규모

- (국내) 우수 화장품기업 28개사(2개사 취소)

* 기초, 색조, 원료, 헤어

- (유럽) 글로벌 유통망, 온라인 유통사 및 벤더 등 70개사, 인플루언서, 유튜버, 언론사 등 100여 명

- 주요 내용 : 사전 검증된 국내 기업과 대형 유통망, 유력 바이어 간의 1:1 상담회, B2C(Beauty to the Customer) 체험 및 전시 행사

Ⅲ. 향후 對독일 K패키지 실행체계(안)

① 한-독 경제공동위원회를 통한 지속적 이행점검 체계 가동

- 1965년부터 한-독 경제공동위 31회 개최 → 다양한 경제협력 방안 논의 중
- Sub 분과도 만들어, 분야별 트러블 슈팅, 신규 과제 발굴, 실행력 제고

한-독 주요 협업 분야 및 관련 부처·기관

협업 분야	한국 기관	독일 기관
기술인력 유치	고용노동부·산업인력공단	노동사회부·ZAV·상공회의소
미래자동차	산업부·자동차산업협동조합	경제에너지부·VDA
신재생에너지	국토부·한전·신재생에너지협회	경제에너지부·신재생협회
ICT·4차 산업혁명	과기정통부·NIPA	교통디지털인프라부·BITKOM
K-Beauty	산업부·대한화장품협회	경제에너지부·화장품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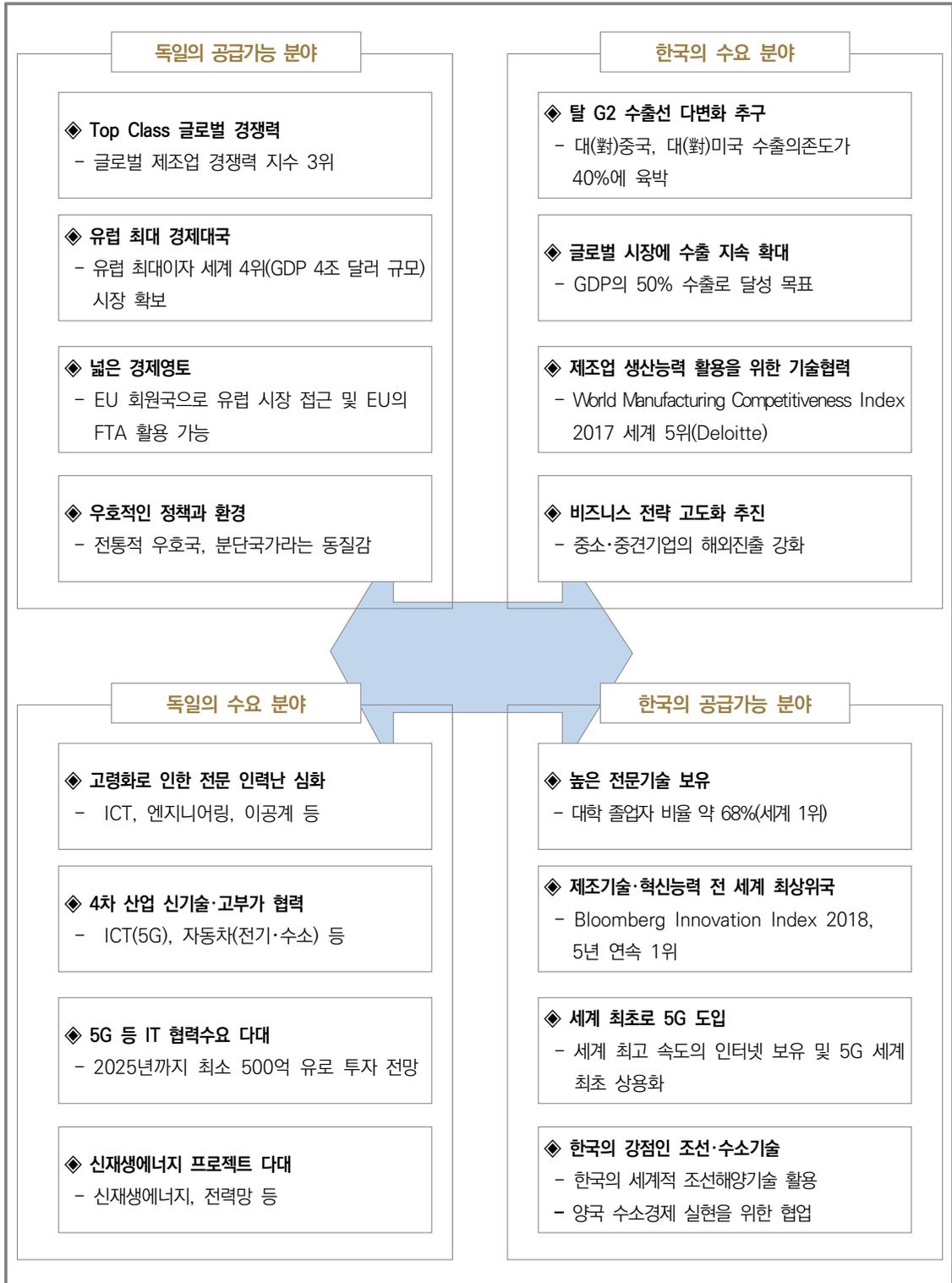
② 경제·무역 분야는 KOTRA를 통해 상시협업

- KOTRA, 중장기적으로 한-독 B2B 허브로 구축
 - 시장정보, 해외마케팅, 투자유치, 현지법인설립, Key Man 네트워킹, 지재권, 취업 및 창업지원, 법률, 노무, 세무 등 원스톱 패키지 컨설팅 제공
 - 경제 후속지원을 통해 정부·지방정부 협업 기반 구축, 정부 간 협력(G2G) 및 민관협력(B2G) 촉진

③ [향후 과제] 관계부처 수요 반영, 정부차원 K패키지 마련, 순방 시 활용

- KOTRA 차원 자료로(대(對)정부 제안 성격), 양국 정부·유관기관·대기업의 구체적 수요 추가 반영 필요 → 정부차원 K패키지 마련
 - * 경제부문 중심이 아닌, 외교, 안보, 사회, 문화 숲 분야 참여주체 수요 반영
- 한-독 정상회담 시 K패키지 내용을 보도자료 등으로 발표 검토
 - * 추후 부처·기관 間 K패키지 실행력 제고를 위한 기반조성 MOU 체결

<한-독일 상생협력 요약>



 작성자

연번	작성자	직책	소속	Tel	Email
1	김환국	차장	프랑크푸르트무역관	+49-(0)69-242-99220	kcc2008@kotra.or.kr
2	박소영	과장	프랑크푸르트무역관	+49-(0)69-242-99233	sypark@kotra.or.kr
3	김승현	과장	함부르크무역관	+49-(0)40-3405-7411	shkim7@kotra.or.kr
4	김수민	대리	함부르크무역관	+49-(0)40-3405-7416	moeller@kotra.or.kr
5	육주희	대리	함부르크무역관	+49-(0)40-3405-7418	juhee.yook@kotra.or.kr
6	김홍재	과장	원헨무역관	+49-(0)89-2424-2641	hongjaekim@kotra.or.kr

KOTRA자료 20-034

2020 국별 진출전략 **독일**

발행인 권평오
발행처 KOTRA
발행일 2020년 1월
주소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
(06792)
전화 02) 1600-7119(대표)
홈페이지 www.kotra.or.kr
문의처 경제협력총괄팀
(02-3460-7689)
I S B N 979-11-6490-180-7(95320)

Copyright © 2020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